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1 호　　　　1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1호 (134)

1957년1월25일

내 용

권 두 언 증산하며 절약하자 ……………………………………………………(3)

당의 통일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한 투쟁은
당원들의 선차적 과업……………………………………………김 정 환(8)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예비적 총화와 1957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장 세 기(18)

조선 인민군은 민족의 보위자이며 혁명의 보위자……………김 봉 률(30)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의 다양성과 공통성에 대하여……마 춘 영(36)

형식과 내용………………………………………………………………송 태 영(46)

당 생 활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대중과의
련계 강화의 기본……………………………………………………신 리 범(54)

산간 지대에서 농업 협동 조합 조직 지도 경험………………문 덕 홍(59)

독자들의 편지

우리 공장 실정에 적응한 내부 독립 채산제……………………………(64)

서적 해제 및 평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력사적 제
조건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몇 가지 명제들에 대
하여》(《인민》1956년 11월호)에 대한 몇 가지 의견…………리 석 채(69)

좌 담 회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82)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리론적 문제에
대하여………………………………………………………………………(100)

증산하며 절약하자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후 인민 경제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한 조선 인민은 용솟음치는 새 힘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승리적 완수에로 억센 첫 발'자국을 내디디였다.

《모든 힘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로!》라는 당의 엄숙한 부름을 받들고 전체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간고한 고난을 이겨 가면서 많은 일을 하여 놓았으며 훌륭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경제 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인민 경제 발전 전망을 예견하면서 전쟁으로 인하여 저하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복구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도 동시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총로선을 제시하였다.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이 폐허 우에서 전후 복구 건설의 첫 괭이를 들고 나섰을 그 때,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원쑤들은 우리가 더는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떠버리면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사실 당시 우리에게는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자금이 거의 없었으며 이 밖에도 수 많은 곤난이 중중첩첩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이나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쟁의 시련을 이겨 낸 높은 긍지와 앙양된 기세로 충만된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하에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들의 고귀한 기술—경제적 원조에 의거하면서 자기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였다.

당의 정확한 령도와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창조적 로력은 훌륭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것은 3년이란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의 면모는 일신되였으며 사회적 생산은 모든 분야에 걸쳐 전쟁의 상처를 기본적으로 회복하고 전쟁전 생산 수준을 훨씬 릉가하게 된 그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원상대로 복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업에서 원료, 반제품 생산에 치중하던 낡은 공업의 부문별 구조, 락후한 기술적 토대, 생산의 불합리한 지리적 배치 등을 퇴치 시정함으로써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현저히 퇴치하였다.

오늘 우리는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300 여 개소의 대 중 기업소들을 복구, 확장, 신설함으로써 인민 경제에 필요한 많은 생산 수단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직, 식료품, 일용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 기업소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서 획기적 전변으로 되는 농업 협동화 운동이 계속 앙양되고 있으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현저히 강화됨으로써 다수확을 쟁취할 수 있는 튼튼한 농촌 기지가 축성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전쟁으로 말미암아 령락되였던 우리 인민의 생활 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였으며 금후 생산 수준의 발전에 따라 그들의 복리 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 기초가 구축되였다.

이 성과들이야 말로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물질적 담보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현실적 담보인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이다.

우리 인민은 무엇으로 하여 이와 같은 위대

한 성과를 쟁취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민을 번영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이 정당하였으며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현명하였으며 강철같이 통일 단결된 위력으로 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우리는 서슴 없이 대답한다. 또한 우리는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기술—경제적 원조가 있었으므로 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것을 감사의 정으로 말한다.

정전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곤난과 애로가 우리의 앞을 가로 막았을 때 만약 우리가 일시적인 난관 앞에서 주저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만일 우리가 몇몇 반당적 종파 분자들이 말하듯이 곤난과 고생을 겪지 않고 안일무사하게 지내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복구 건설과 기술적 장비에 전심하지 않고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장성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겠는가?

우리 당은 인민의 수요를 돌보지 않고 맹목적, 고립적으로 중공업의 발전 속도만을 강조하는 모험적 경향과 또 목전의 리익만 생각하고 지나치게 많은 재정과 물력을 소비 생활에 투하함으로써 인민의 항구적 리익에 손해를 주려는 우경적 경향들을 극복하고 시종일관 자기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의 실천에로 근로 대중을 힘차게 조직 동원하였다.

실로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쟁취한 혁명적 전취물은 위대하고도 찬란하다. 우리는 이 빛나는 성과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자랑한다.

3년전의 우리 나라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우리 인민들의 심장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승리의 함성 속에는 우리를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는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를 성심 성의로 원조하여 주는 형제적 국가 인민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정이 스며 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자랑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하에 당과 정부와 인민의 철석같이 단결된 필승불패의 력량을 시위하는 것이며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얻어진 성과에 현혹 도취하며 자화 자찬만 하고 앉아 있는 속물이 아니다. 우리의 원대한 지향——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에 공산주의의 락원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과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제 터전을 닦았을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5개년 기간에 이 터전 우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주추'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는 아직 튼튼치 못하며 제1차 5개년 계획의 문을 열어 놓는 1957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도 낮은 수준에 처해 있으며 인민 경제 내부에는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발전 공업, 연료 공업, 화학 공업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혹심하였기 때문에 전후 시기에 현저한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야금 공업은 장성하는 기계 공업과 기본 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경리 부문에서 알곡 및 공예 작물 생산은 경공업 발전과 인민의 장성하는 수요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3개년 계획 기간에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적지 않게 형제적 나라들의 원조에 의거하였다면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주로 우리 나라의 내부 원천에 의거하여 해결하여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더우기 수출품 생산의 완만한 장성과 형제적 나라들의 무상 원조의 축감은 외화 수지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일정한 곤난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부단한 배려의 시책은 이미 방대한 자금을 방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자금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만한 충분한 국가 축적과 예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생산을 많이 내고 소비를 극력 축소하여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국가 축적과 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주민들의 실질 수입이 증대되고 구매력의 장성과 관련하여 그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에 상응하도록 상품 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외화 획득의 원천을 적극 탐구하는 동시에 물자 발란스에서 적지 않게 대외 수입에 의존하던 물자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용하는 강력한 대책을 취함으로써 외화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출의 현저한 증대와 대외 원조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제기되는 재정적 보장의 긴장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물자 소비와 재정 지출에서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며 저축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자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앞에 당면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함이 없이는 1957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 조국은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아직도 유족하지 못하며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통치하에서 처참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국제 긴장 상태 격화에 날뛰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파괴하며 이 나라들의 협조 단결을 와해시켜 보려고 악의에 찬 독설을 퍼부으며 온갖 비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배들의 악랄한 파괴 활동과 소위 《북진》 소동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늘 조성된 국내외 정세와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과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엄숙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자만 자족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결코 안일성과 무경각성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며 앞으로의 혁명적 곤난과 애로와의 투쟁에서 더욱 긴장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날의 보람찬 투쟁에서 쟁취한 위대한 승리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우리 인민의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 소비는 극력 줄이고 생산은 최대한으로 많이 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이를 철저히 관통할 때 제기된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고도의 긴장성을 요하는 1957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전체 당 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을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증산하며 절약하자——이것은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57년 계획 수행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 인민들에게 우리 당이 내놓은 전투적 구호이다.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이미 쟁취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방향과 그 실행 방도에 대한 기본적 요구로서 이 구호를 제시하였다.

물론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에 기초한 증산은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합법칙성이며 엄격한 절약제는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에 고유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당이 오늘 이 구호를 제시하게 된 것은 이상과 같은 일반적 합법칙성과 원칙

을 강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 조성된 경제 조건들로부터 출발하여 추가적 투자를 극히 적게 하고 강재, 유색 광물, 석탄, 쎄멘트 등과 생활 필수품, 식료품과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며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함으로써 1957년도 계획 수행과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결정적 고리를 풀어 놓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의 이 기본적 요구를 사상적으로 심각히 접수하여야 한다. 리론은 대중을 파악하였을 때 비로소 물질적 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우리가 증산하며 절약하는 정신으로 단단히 마음 먹고 긴장된 태세로써 정력적으로 투쟁한다면 어떠한 곤난한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앞을 가로 막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 대중이 당의 호소를 사상적으로 깊이 접수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적극성과 긴장성을 발휘한다면 자금, 로력, 자재를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원천들을 얼마든지 탐구해 낼 수 있다.

우리 당이 특히 현 모멘트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출로써 최대한의 생산을 보장하라고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수행의 문을 열어 놓는 1957년 계획에 대한 당의 호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 일'군들로부터 전체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필요하며 완강하게 증산하며 근검하게 절약하는 정신으로 당의 호소를 구현하는 헌신적 투쟁에로 궐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지도 일'군들은 앞장 서서 군중과 고락을 같이 하는 정신으로 지도 작풍을 개선하며 지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에서의 보수성과 침체성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추가적 투자를 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우리가 생산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며 창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하여야 한다. 문제는 안일성과 보수성을 배격하며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으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으며 경제 건설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과 정치 교양 사업을 잘 결부시키는 데 있다.

증산하며 절약하자는 당의 호소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도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일체 귀중한 제의들을 적극 지지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시키며 정확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현존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로력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생산을 조직 관리하며 현실적인 경제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료해한 기초 우에서 생산을 지도하여야 한다.

오늘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정치적 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앙양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산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는 아직도 설비 능력에 많은 예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옳게 동원 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재, 로력, 자금 등을 랑비하는 현상이 존속되고 있다.

우리의 매개 근로자들은 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굳게 하고 더 많은 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기들과 창의 고안들을 더 많이 제기하며 기술 기능 수준 제고와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 일반화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자재, 로력, 자금을 가지고 보다 많은 생산을 보장하도록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발양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호소를 사상적으로 깊이 접수한 지도 일'군들의 정확한 지도와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의 가일층의 앙양의 결합——이것은 실로 증산과 절약을 보장하는 기본 고리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 대중이 일체 생산적 예비, 내부 원천을 옳게 동원 리용하고 적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기계화를 도입한다면 원자재와 로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여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로력, 자재, 자금의 최대한의 절약을 위한 예비들과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원천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지 현실성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원들이 경제 사업에서 얼마나 견실하게 당성을 표시하는가에 있으며 근로 대중을 이 투쟁에로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에 있다.

국가와 인민의 혈연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당의 호소는 오늘 우리 나라의 공장, 광산, 건설장, 농촌 등 방방곡곡에서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일으키고 있으며 증산하며 절약하자는 구호에 호응하는 광범한 근들자들의 기세는 곳곳마다 높아 가고 있다.

물론 일정한 자금, 자재, 로력으로써 생산량을 종전보다 더 장성시킨다는 것은 그리 손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곤난과 애로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타산해야 한다. 문제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사상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다.

우리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에 조국 해방 전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3개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가 보다 더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써 곤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생산의 장성을 저애하는 고리가 무엇이며 자재, 로력의 랑비 현상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어데 있는가를 밝혀 내고 항상 신중한 계획성과 예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부 원천들과 생산 예비들을 적극 동원한다면 계획 지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할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상품 폰드의 증대를 위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당 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지도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가일층 제고시키며 인민 경제의 모든 령역에서 조직 정치적 지도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국내외 원쑤들이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철같은 사상 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존함으로써 인민들을 자기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우리를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우리의 모든 성과와 우리 인민의 무궁 무진한 생활력은 통일 단결된 우리 당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과 행동의 일치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당원 및 비당원 대중 속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며 제기된 과업과 그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전체 근로 대중이 일치 단결하여 당의 호소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궐기하도록 사상 동원 사업을 옳게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할 수 있으며 우리의 창조적 사업을 저해하는 관료주의, 기관 본위주의, 로동에 대한 고용자적 태도 등 침체성과 보수주의를 제거할 수 있다.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 기관들의 지도 수준과 사업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상부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행정 질서와 국가 규률을 준수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경향들과 일부 일'군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과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호상 협조와 비판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근로자들에게 깊이 침투시키며 그들을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강력히 조직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당의 호소 실천을 위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모두 다 궐기하자!

당의 통일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한 투쟁은 당원들의 선차적 과업

김 정 환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에 관한 문제는 모든 맑스—레닌주의적 당 건설에 있어서 항상 강조되는 중요한 기본 문제이다. 우리 당도 포함한 모든 맑스—레닌주의적 당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의한 사상 조직적 통일의 기초 우에서 건립되고 강화 발전된다. 국제 로동 운동의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파괴되면 당 자체가 파멸한다. 반대로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공고한 당은 불패의 력량으로서 세계를 개조하는 위대한 과업을 능히 수행한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당의 불패의 위력의 기초이며 당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맑스주의 당의 조직 원칙, 당 생활 규범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심적 기본 문제로 삼았으며 그가 직접 창건하고 지도한 쏘련 공산당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무리 사소한 편향과도 타협 없는 원칙적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할 것을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자각 있는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레닌이 작성한 당 조직 원칙, 당 생활 규범 및 그의 교시에 충직하게 의거하여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보장하는 것은 모든 맑스—레닌주의적 당들의 제일차적 과업이며 자기의 계급적,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려 왔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이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당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범위에서 모든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있어서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도 포함하여 모든 맑스—레닌주의적 당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업의 중대성과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날카로운 계급 투쟁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방면에서 당 대렬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고도의 경각성으로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제일차적 과업으로, 신성한 의무로 된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극히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두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의 한 측면은 당이 자기 대렬내에서 발생되는 이러저러한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당내 투쟁이며 다른 한 측면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당의 적들과의 심각한 계급 투쟁이다. 이 두개의 측면은 호상 련결되는 것이다.

완강하게 반항하는 당외의 계급적 적들과의 투쟁에서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 자체의 대렬을 사상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내의 하나의 적은 당외의 수천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며 중대한 혁명 과업 수행에 있어서 그 전위적 당내의 사소한 동요와 분렬도 혁명의 모든 것을 파탄시킬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천명되였으며 국제 혁명 운동의 경험이 실증해 준 진리이다.

자기 대렬의 공고한 사상 조직적 통일과 단결이 없이는 당이 자기의 전 계급, 전 인민을 령도하여 당외의 적, 인민의 적과의 투쟁에 나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투쟁을 일상적 가장 중요한 기본 과업으로 인정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란 일반적으로 당내에 발생되는 온갖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며 특수적으로는 당내 종파와의 투쟁이다.

그런데 당 발전에 저해를 주며 혹은 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당내 모순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당원의 탈을 쓰고 잠입한 간첩 분자, 당원으로서 적의 앞잡이로 넘어간 변절자 및 기타 기회주의 분자들이 당내에 생길 수 있는·바 이러한 분자들과의 투쟁은 당외의 적들과의 투쟁과 같은 성질, 즉 적대적 계급과의 계급 투쟁의 성질을 띤다.

또한 당내에 있을 수 있는 모순은 당내에 생기는 종파와의 모순이다. 종파는 협소한 자기 종파의 리익을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더 높이, 더 먼저 내세운다. 그는 자기의 종파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을 사상 조직적으로 분렬시키며 혁명을 위한 당의 정당한 정치 로선을 파탄시키는 것을 서슴치 않으면서 당에 대하여 반항한다. 그리함으로써 그는 결국 당에는 막대한 해독을 주고 당외의 적들을 도와주게 된다. 종파, 그것은 우리 편으로부터 적의 편으로 넘어 갈 수 있는, 혁명가로부터 변절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행동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때에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그는 결국 적의 편으로,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과 종파와의 모순에 있어서도 그 성질이 다 동일할 수 없다. 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종파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적의 편으로, 변절자의 길로 전락된 종파와의 투쟁은 적대적 성질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의 종파 활동을 중지하고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려는 그러한 종파 분자와의 투쟁은 비적대적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당원은 단결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관대하게 포섭하여 교양하며 비판하는 방법으로 그 모순을 극복한다.

이 외에도 단결의 원칙에서 교양하며 비판하며 광범한 의견 교환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순들이 있다. 례하면 당내에 반영된 일반적인 소부르죠아적 요소와 당의 프로레타리아트적 성질간의 모순, 당내에서 정확한 의견과 부정확한 의견간의 모순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들도 그것이 제때에 극복되지 않고 장성 확대되거나 혹은 간첩 및 종파 도당들에게 리용되게 되면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며 적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극히 엄중한 위험성으로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당내에서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제때에 시정하지 못함으로써 종파 분자들에게 리용당하여 당에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손해를 끼친 일부 당원들의 실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당내에 있는 모순은 그 어떠한 성질의 것이나 다 제때에 극복되여야 한다.

그러면 당내에 왜 그러한 모순들이 발생하며 현재 우리 당내에는 어떠한 모순이 있으며 또 있을 수 있는가?

맑스—레닌주의적 당내에서 기회주의, 종파 및 기타 일련의 모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근원에 관한 리론은 주지되여 있다. 우리 당내에서 발생되였었으며 될 수 있는 모순의 근원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 건설의 특수성, 당이 처한 현 객관적 제 조건과 특히 관련된다.

과거 조선 혁명 운동에 악독한 해독을 끼친 종파 잔재의 당내 잔존, 우리 당의 청소성,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우리 당에 대한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악랄한 공격, 광범한 계급적 토대를 가진 우리 당의 대중적 특성 기타 등등의 제 사정이 당내에서 제 모순이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 근원에 첨가되

였다. 이러한 제 조건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당의 통일을 위하여 더욱 경각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역시 지금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전에 우리 나라에는 통일적, 맑스—레닌주의적 당이 없었다. 과거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과 로동 운동에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종파 분자들의 분파 행동에 의하여 오래 존재하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이 당을 파괴한 종파 분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 각종 파벌로 분렬되여 종파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조선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으며 악독한 종파 독소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에 들어 서서 그 투쟁을 일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당 재건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 창건의 사상 조직적 토대를 이룩해 놓았다. 그러나 해방전에 우리 나라에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당이 창건되지 못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에 비로소 창건되였다. 그러므로 당이 자기의 적지 않은 당원들을 공개적, 합법적 투쟁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충분히 검열하지 못한 조건에서 창건되였다. 그것도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행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극히 복잡한 정세하에서이다. 당이 자기의 많은 당원들을 충분히 검열 료해하지 못하고 창건되게 된 다른 조건의 하나는 해방전 조선 혁명 투쟁에 대한 통일적 지도부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조건과 관련하여 해방후 국내 국외 각지에서 모여 온 공산주의자들을 당에 단결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에도 있었다.

우리 당 창건의 이러한 복잡성과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미제의 책동 등에 의하여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과 같은 분자들이 가면을 쓰고 당내에 잠입할 수 있었으며 또 과거 오래'동안 종파 투쟁에 물젖은 종파 분자들이 종파적 습성을 버리지 않은채로 당내에 들어 올 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당내에 들어 온 종파 분자들은 당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종파 행동을 시도하였다.

또한 당의 주위에 자본주의적 및 소부르죠아적 요소가 있다는 것,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일제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 남조선에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제도가 존재하며 그가 항상 부르죠아 사상 독소를 각종 수단으로 전파한다는 것 등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우리 당이 광범한 근로 대중을 조직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고 있는 조건들은 불가피하게 당내에 소부르죠아 요소가 반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 조건에 의하여 음폐된 형태로 당내에 반영된 종파적 및 소부르죠아적 요소들은 수백만 인민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검열을 받는 실천을 통하여, 특히 전쟁과 같은 곤난한 투쟁 속에서 자기 정체를 폭로하게 되였다. 당은 항상 실천을 통하여 자기 대렬을 검열하며 당원들을 단련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그 창건의 력사가 비록 청소하지만 극히 복잡한 당내 투쟁을 거쳐 왔다.

그것은 우리 당 력사에 있은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과의 투쟁, 기타 일련의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 그리고 자유주의, 개인 영웅주의, 출세주의, 관료주의 및 기타 등등의 온갖 소부르죠아적 경향과의 투쟁 또는 당원들의 당성 단련과 계급 교양을 위한 투쟁 등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이 자기 대렬의 사상적 순결성과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기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그러한 투쟁은 불가결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그 전신 당 창건과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로동당 창립 대회, 제2차 및 제3차 당 대회, 당 중앙 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전원 회의, 1955년 4월 및 12월 전원 회의, 1956년 8월, 9월 전원 회의 등 일련의 대회 및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에서 당내 종파 잔재의 극복 및 소부르죠아적 경향과의 투쟁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은 때는 없었다. 우리 당이 겪어 온 당내 투쟁에 있어서도 극히 심각한 투쟁은 종파와의 투쟁이였다. 각양한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에서 우리 당이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은 것은 당내에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오랜 반일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견실한 당의 지도적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우리 당은 견실한 당 핵심에 의거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집체적 지도 밑에 당내에 발생하는 제 모순, 특히 당내에 생기는 각종 종파들을 제때에 분쇄함으로써만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당을 100 여 만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당외의 적들——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오늘 우리 인민이 쟁취한 바와 같은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은 당내 투쟁, 당의 통일이 가지는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더욱 더 뚜렷이 실증하여 준다. 그는 동시에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견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잠시도 경각성을 해이함이 없이 꾸준하게 당내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 당내에는 아직도 종파 잔재가 남아 있으며 종파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남아 있다. 이미 정체를 폭로한 종파들은 당에 의하여 분쇄되였다. 그러나 이미 분쇄된 종파들이 끼쳐 놓은 여독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종파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루 아침에 다 불살라 버릴 수도 없는 것인 바 오직 오랜 사상 투쟁을 통하여서만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당내에는 종파가 발을 붙일 수 있으며 거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소부르죠아적 소요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당이 만일 항시 경각성을 높이지 않고 종파 잔재와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시 대두하여 당에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종파 잔재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내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리유에서 뿐만은 아니다. 우리 당은 복잡한 국제 국내의 적들과의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더욱 중대한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력사적인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에 착수하였다. 이 과업의 완수는 우리의 새로운 거대한 력사적 승리로 될 것이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타격으로 될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우리의 건설 사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를 지도하는 우리 당을 파괴 약화시키려고 더욱 발악할 것도 의심할 바 없다.

당이 당면한 중대한 과업 수행 행정에는 불가피한 난관과 애로들도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 결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력사적 경험으로 보아 당이 곤난한 과업에 부닥쳤을 때, 우리 당에 대한 적들의 공격이 더욱 심할 때, 당내에 견실치 못한 요소들이 흔들릴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종파 잔재가 대두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당에 의하여 분쇄된 과거 모든 종파들의 실례가 그러했고 지난 8월 전원 회의에서 철저히 폭로되였으며 전당에 의하여 분쇄된 최 창익,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박 창옥 동지 등의 종파 행동의 실례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들은 전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페허 우에서 당이 진행하는 전후 복구 건설의 극히 곤난한 시기에 대두하였었다. 그들은 우리 인민 생활이 당과 정부의 거대한 배려에 의하여 급속히 개선 향상되였으며 되고 있으나 전쟁의 참혹한 피해로 인하여 아직 일부 유족하지 못한 것을 리용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결과인듯이 떠들면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이미 달성한 당의 모든 업적을 무시하며 당 정책을 파탄시키려는 반당적 종파 행동을 감행하였다. 또한 그들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결정 정신에 의하여 일부 형제적 당들이 국제 반동 세력과의 어려운

투쟁의 조건하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던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는 기회를 악용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당에도 마치 엄중한 개인 숭배의 후과가 있는듯이 떠들면서 당 간부 정책을 비방하며 당의 지도적 핵심을 파괴하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우리 당과 형제 당들, 특히 쏘련 공산당과의 간에 리간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감행하였다.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주장과 시도는 당에 대한 악랄한 중상과 비방이며 어려운 시기에 당을 분렬시키려는 반당적 무모한 행동이라는것은 당 중앙 위원회 8, 9월 전원 회의가 잘 보여 주었으며 최근 12월 전원 회의 결정과 그 결정 실행에 궐기한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전례 없는 로력적 열성과 당에 대한 사랑과 지지, 열렬한 충성이 더욱 뚜렷이 말해 주고 있다. 1957년도 계획을 맞이하면서 전국적 범위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 운동은 종파 분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옳았으며 3개년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우리 당내에와 또는 당과 대중간에 불패의 통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가장 명백한 해답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한 과업을 앞에 놓고 지나온 교훈을 잠시도 망각할 수 없다. 우리는 현 시기에 있어서 종파 잔재에 대하여 가일층 경각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당내에서 반종파 투쟁을 강조할 때 적들은 그것을 리용하여 우리 당내에 종파가 일정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듯이 또는 당이 종파 세력으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듯이 떠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적들의 그러한 비방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 하면 현 우리 당내에는 어떠한 분자도 종파로서 존재할 수 없으며 더우기 자기의 세력을 가질 수 없다. 만일 종파 잔재가 그 어떤 경우에 대두한다 하더라도 당은 그를 제때에 분쇄하리 만큼 강대하며 통일되여 있다. 그것은 지난 여러 시기에 있어서 그러했던 바와 같이 작년 8월 전원 회의가 그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우에서 말한 종파 분자들의 종파 행동을 추호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적시에 분쇄하고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전 당이 철석같이 단결된 당의 통일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당이며 혁명의 당이다. 그러므로 당은 이미 달성한 승리에 결코 자만하지 않으며 그럴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현재 자기 대렬의 통일이 결여되였거나 자기 력량이 약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복잡한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반종파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파 잔재와의 투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 당은 당내 투쟁의 원칙적 방법에 의거하여 조금이라도 그가 자기의 종파적 과오를 시정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당에 포섭하여 그들을 방조하며 그의 시정을 기대한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며 당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파에 대한 당의 추호의 원칙상 양보도 타협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종파 잔재에 대한 경각성을 해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반대로 종파에 관계되였거나 그의 영향을 받았던 동지들에 대하여 경원하며 그들을 적극 방조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역시 잘못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두 다 당의 통일 단결에 해로운 현상이다.

우리는 당내의 모든 동지들과 단결하면서 그 누구에게서 나타나든지간에 종파적 경향에 대하여는 경각성을 높이여 원칙적 투쟁을 할 것을 당은 요구하는 것이다.

당내 종파 분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종파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이한 시기에 각이한 위장을 하고 종파에 리용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교묘하게 리용하려 한다. 이것은 당에 의하여 이미 분쇄된 여러 종파의 실례가 잘 말해 준다. 종파 분자들은 당 정책에 대하여 극히 비렬한 량면적 태도를 취한다. 당 조직 앞에서는 당 정책을 지지하며 지어 찬양까지 하고 뒤에서는 그를 비방 반대하며 파탄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위장을 하고 나타나든지 간에 그들은 다 같이 당 생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란포하게 위반하며 당에 복종하지 않고 뒤'골목에서 당 정책을 비방 반대하며 건전치 못한 분자들을 종파적으로 자기에게 끌어 모으려 시도한다. 그러므로 종파 잔재와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을 지지 옹호하여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 정책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대하며 그에 대하여 뒤'골목에서 시비하며 외곡 비속화하는 경향에 대하여서는 결정적 투쟁을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은 우선 무엇보다도 정당한 당 정책에 대한 전 당의 일치한 지지 및 그의 철저한 관철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종파 잔재와의 투쟁에서 우리의 매개 당원들의 의무는 우선 자기가 당 정책에 대하여 책임지는 한 사람이라는 것, 당 정책 옹호의 투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또한 종파 잔재와의 투쟁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 생활을 충실히 하며 유일한 당 규률, 당 규약의 모든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 단체들은 례외 없이 모든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일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그리함으로써 종파적 요소들이 자라나며 활동할 가능성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종파 잔재와의 투쟁은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내에 반영되는 소부르죠아적 요소와의 투쟁을 과소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과 당원들 중에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을 종파와의 투쟁만으로 리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당 단체나 당원들은 당내에서 어떠한 종파 분자들이 폭로되였을 때만 당의 통일에 대하여 관심하고 일상적으로는 그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이다. 적발된 종파만을 분쇄하는 것은 일면적이며 소극적인 투쟁이다.

당내에 반영된 소부르죠아적 요소, 그것은 종파의 온상으로, 리용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경험이 보여 준다. 소부르죠아적 요소는 당 사상 조직 생활에서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당과 대중 앞에서의 무책임성, 관료주의, 자유주의, 개인 리기주의, 영웅주의, 탐위 출세주의 등등이 바로 소부르죠아적 요소의 표현이다. 종파 분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며 그에 의거하려 한다. 또한 개인 영웅주의, 출세주의 등 소부르죠아적 경향이 제때에 극복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면 그것이 종파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내 소부르죠아적 경향과의 투쟁은 극히 중요한 측면이다. 그것은 당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내 종파 발생의 지반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된다.

현 우리 나라의 환경과 우리 당 발전의 특수성은 당내 소부르죠아적 요소와의 투쟁에 대하여 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다. 원쑤 미제와 직접 상치하여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당은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였으며 하고 있다. 광범한 근로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는 우리 당의 이 조직 로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 로선이 현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 있어서 유일하게 옳은 길이며 참말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적 정당으로의 당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당내에 불가피하게 소부르죠아적 요소 반영의 일반적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현 우리 당원의 많은 부분이 전쟁 시기 혹은 전후 시기에 입당한 당 생활 년한이 비교적 짧은 당원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당성 단련이 미약하며 사상 정치적 준비 정도가 당이 요구하는 응당한 수준에 도달되여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당원들의 당 사상 조직 생활에서는 자유주의, 관료주의, 개인영웅주의, 안일성, 무책임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당내 투쟁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일부 당원들 중에는 당의 정책, 중대한 결정들을 신중히 연구하지 않고 그에 무책임하게 대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시비하기를 좋아 하며 당 조직 규률,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잘 준수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엄격한 당적 규률과 당적 도덕을 문란케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한 관료주의 경향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당의 군중 로선을 연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기에 노력하지 않는 일부 당원들은 경제 사업, 정치 사업 기타 등에 있어서 당에 적지 않는 해를 주고 있다. 현 시기 우리의 경제 사업에서 물질 기술적, 정신적 내부 예비를 사장하며 당과 대중의 리탈을 조성하는 관료주의는 대중과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절약하라는 당의 정신과 량립할 수 없는 해독물이다.

당내 소부르조아적 경향과의 투쟁에 있어서 안일성, 공명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특히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해방 후 인민이 정권을 잡은 합법적 환경하에서 창건 발전해 왔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정책과 지도에 의하여 계속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지도적 핵심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우리 당원들은 과거혁명 투쟁 경험이 적거나 없으며 오랜 혁명 생활의 체험과 단련이 부족하다. 이러한 일부 당원들은 혁명 사업을 혁명적 락관주의로가 아니라 소부르조아적 안일성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안일성은 여러가지 편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 난관과 애로에 대하여 사전에 신중히 연구 대처하지 않고 당면하여 당황하며 사업에서 자만하며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며 직위 불만, 대우 불만 및 기타 등등이 그것이다. 혁명 사업의 간고성에 대한 리해, 혁명의 리익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러한 사상적 준비와 단련이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당 사상 생활에 있어서 우'자리만 바라 보는 직위 및 대우 불만으로 표현되는 소부르조아적 경향은 특히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당의 사상 체계와 조직 규률을 약화시키며 또 당 사업에서 무책임성, 태공 혹은 공명주의적 모험, 아첨 등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파 분자들과 당외의 적들은 당내의 그러한 요소들을 자기에게 리용하려 하는 것이다。

당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상과 같은 제 경향들은 부분적으로 일부 당 단체들의 지도적 기관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당 단체들의 지도적 기관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가 당에 끼치는 해독은 더욱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경향은 당의 순결하고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적 사상에, 당의 조직성에, 당의 강철같은 규률에, 당의 군중 로선에 배치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와 당 정책 관철에 저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내에 존재하며 또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소부르조아적 경향과 강력히 투쟁하여 그를 적시에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들을 극복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 당에는 비판과 자기 비판이 있다.

우리 당원들은 모두 입당하기 전에 이미 훌륭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준비되여 당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다. 당원은 당내에서 교양 받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하여 자기에게 남아 있는 소부르조아적 사상 의식을 청산하며 당성 있는 당원으로 단련된다. 그러므로 비판과 자기 비판은 결함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당성을 단련하는 강력한 무기로써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모든 당원들은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를 들고 결함과, 당내 소부르조아적 경향과 투쟁하는 것이 의무이다.

당원은 결함에 대하여 묵과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당적 도덕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규약상의 엄격한 요구이다. 당원은 동지들과 단결하면서 결함에 대하여는 엄격하고 비타협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은 결함을 묵과하며 타협하는 대'가로써 그와 《단결》하며《화목》을 유지하려고 하는 례가 아직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가인 당원들 간의 투쟁 및 단결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이다. 남의 결함을 비판하거나 혹은 제가 비판 받는 것은 남을 칭찬하거나 제가 칭찬받는 것보다 유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과 그 자신에게 앞으로 불행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가들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의 통일에, 당 사업에 저해를 주는 일체 결함에 대하여 그 누구를 물론하고 비판하여 교양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결함과의 비타협적 투쟁에 있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투쟁에 대한 원칙적 방법 문제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 저러한 당원들의 긍정적 면을 평가할 때 그의 부정적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 저러한 동지들의 결함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 그의 준비된 정도와 긍정적 면을 동시에 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긍정적 면을 조장 발전시키며 그에 의거해서만 그의 부정적 면들을, 결함을 시정할 수 있다. 또 그리함으로써만 결함에 대하여 투쟁하며 단결할 수 있다. 우리의 매개 당원들의 사상 발전 및 사업 수행 행정에서 이러 저러한 부분적 결함이 전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매개 당원들이 더 큰 결함 혹은 오유를 범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결함을 시급히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당 단체들은 그를 적극 방조하고 교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서 리탈하여 능히 설복하고 방조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결함 혹은 오유를 범한 당원들에 대하여 처벌을 람용하는 경향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및 실무적 장성과 당의 통일 강화에 저해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덮어 놓고 《때릴내기》가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진정한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 그것은 당원들 간의 완전한 신임, 참으로 우의적인 공산주의적 단결을 전제로 하며 당의 사상, 당의 정책에 대한 일치한 지지와 리해를 요구한다. 정확한 당 정책과 그에 대한 일부 부정확한 리해, 동지간의 옳은 견해와 그른 견해 등과 같은 모순은 때때로 불가피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제때에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것이 적시에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 정책 실행에 저해를 주며 당의 사상 통일, 동지간의 신임과 단결에 저해를 주게 된다.

당 정책을 깊이 연구 리해하지 않고 부정확한 견해 혹은 의문을 그대로 품고 당에 대하거나 동지들 간에 납득되지 않은 의견 차이를 해명 해소하지 않고 덮어 두고 겉으로 어물어물 지내려는 경향이 없지 않은 바 이러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당에 대한, 동지들에 대한 극히 무책임한 소극적 태도이다. 당의 정책을 옳바로 리해하기 위하여, 당을 위한 자기의 의견을 당 조직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개 당원들은 당 정책, 맑스—레닌주의 리론, 현실 정형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조직적으로 되는 집체적 토의 및 토론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 당이 유일한 정책에 대한 일치한 사상과 견해로 관철될 때 당의 사상적 통일은 가일층 공고해 진다.

상술한 바와 같은 부분적으로 존재하며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제 모순, 결함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당내에서 레닌적 당 생활 규범이 철저히 실시되여야 한다. 당 기관들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의 준수,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일상적 통제,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 당 규률의 강화, 당원들의 당성 단련과 군중 관점의 확립, 당과 대중과의 련계 강화 등 이러한 모든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당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 단체들은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며 당 핵

심들의 양성에 응당한 배려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초급 당 단체는 당의 정치 조직 로선을 관철시키는 기본 단위이다. 초급 당 단체들을 강화함으로써만 당의 모든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모든 당원들의 당 생활을 건전하게 지도 통제할 수 있다. 우리 당의 모든 초급 당 단체들을 당 정책을 지지 옹호하여 철저히 관철하며 당원들을 당 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여 교양하는 전투적 단위로 강화함으로써 당의 통일 단결은 불패의 것으로 될 것이다. 초급 당 단체 강화에 관한 문제는 당 열성적 핵심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당이 광범한 대중적 당으로 발전한 조건하에서 당 핵심에 대한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당 창건 첫 시기부터 당 단체 핵심 육성에 대하여 한 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어느 직장, 어느 기관, 어느 초급 당 단체에나 튼튼한 핵심 분자들을 육성하고 그들에 의거하여 그 기관 및 그 당 조직들을 강화하며 그리함으로써 전체 당원 또는 전체 근로 대중을 더욱 잘 당의 주위에 집결하며 인도해 나갈 수 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물론 당내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당내 투쟁과 함께 당외의 적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더욱 높이는것이 우리의 주요 과업이다.

✻ ✻

우리 당이 오늘 자기 대렬을 더욱 공고히 함에 있어서 당외의 적들에 대하여 당원들의 더욱 높은 경각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력사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맑스—레닌주의적 당도 자국의 또는 국제 제국주의 세력의 반항과 투쟁함이 없이, 그 투쟁에서 승리함이 없이는 자기의 대렬을 강화 발전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국제 국내의 반동 세력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발생하는 첫 순간부터 그를 말살하려고 발악하였으며 자기들의 시도가 몇십 몇백번 실패되여도 단념하지 않고 더욱 더 완강한 반항을 가하였으며 하고 있는 것이다. 당이 만일 잠시라도 당외의 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방심한다면 불의의 큰 손상을 당하거나 파괴를 당한다는 것을 력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은 당외의 국내 국제 반동 세력과의 가혹한 투쟁을 거쳐 왔다. 과거 일제 통치자들과의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더 말하지 않고 해방후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과의 우리 당의 투쟁만 말하더라도 참말로 가혹한 투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당외의 계급적 적들은 당이 곤난한 과업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것이 조선 혁명 발전에 더욱 큰 의의를 가진 과업일수록 일층 악랄하게 우리 당을 분렬 파괴하려고 발악하였다. 오늘 당이 우리 당 대렬을 더욱 강화하며 당외의 적들과에 대하여 더 일층 경각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지나온 력사적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국제적 범위에서 적들의 발악이 더욱 심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지난 웽그리야 사변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력사적 필연성에 의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국제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쏘련을 수위로 하여 더욱 강대해 가는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며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며 그 나라들의 사회 제도를 전복하려고 가장 비렬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 있어서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파탄시키며 그 당들을 파괴 와해시키려는 데 활'살을 집중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파괴하기 위한 국제 제국주의 반동의 시도는 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하여 간첩의 당내 잠입, 당내의 건전치 못한 요소들의 매수 리용, 각종 수단에 의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당내 전파, 당에 대한 악질적 비방 중상과 당과 대중과의 련계 파탄, 기타 각종 형태의 공작을 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무력의 지원으로써 당을 외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기회와 구실을 매순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적들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 내에서의 사소한 사상적 불통일이나 지어 의견 차이까지도 그 당들의 내부 분렬에 리용하려고 하며 당내에 출세주의, 자유주의 분자 및 기타 모든 건전치 못한 요소들을 자기의 동맹군으로 매수 리용하여 당을 와해시키려고 갖은 간교한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사회주의 제 국가와 그 당들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적, 제국주의 세력 뿐만 아니다. 의식적으로나 또 무의식적으로 제국주의 세력에 봉사하는 분자들이 공산주의의 벗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기'발 밑에 국제 공산주의 대렬을 분렬시키며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려는 변절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적 및 비공개적인 사회주의의 적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며 그 당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을 그 대상에서 결코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제 및 국내 반동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 당은 특히 복잡한 환경하에 있다. 남조선이 직접 미제에게 강점되여 있으며 우리 조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여 북진을 고창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불굴의 투사인 우리 당을 약화 와해시키려고 온갖 음흉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혁명적 경각성으로써 국제 국내 반동 세력과 그에 봉사하는 기회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의 일거 일동을 주시하며 우리에 대한 그들의 모든 공격을 제때에 분쇄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당 대렬을 더욱 강화하면서 위대한 쏘련 공산당과 형제적 제 당들간의 불화와 리간을 조성하려는 적들의 악질적 시도를 분쇄하고 형제적 제 당들, 특히 쏘련 공산당과 우의와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우리 당 대렬의 가일층의 강화와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그의 당들과의 튼튼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강화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예비적 총화와 1957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장　세　기

1956년 12월에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전후 3개년 계획의 실행 정형에 대한 예비적 총화가 이루어 졌으며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한 토대 우에서 우리 인민 경제가 제1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이 제기된다는 데 대하여 당적 주의를 환기시켰다. 즉 우리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새로운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심오하게 분석하였으며 이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데 대한 제 방도와 대책들을 명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한 기초 우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천명하였으며 그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 데 대해서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창조적 로력 투쟁에로 궐기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후 3개년 계획의 예비적 총화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 밑에 전후 당의 경제 발전의 총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창조적 로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1954년~1956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경제 정책을 옳게 실천한 결과 현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전쟁의 상처를 기본적으로 회복하고 전쟁전 생산 수준을 훨씬 릉가한 그것이다.

3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은 그의 생산 수준에서 1956년 생산 수준을 이미 1956년 1월 말 현재로 릉가하고 총량적으로 4개월 반을 기간 단축하여 1956년 8월에 완수되였을 뿐만 아니라 1956년 말에 이르러 계획보다 약 23% 초과 수행되였다.

이리하여 1956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은 1953년에 비하여 2,9배로 장성하였으며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약 2배로 장성하였다.

야금 공업, 광석 채굴업,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의 생산과 중공업의 기타 중요 부문들의 생산량이 현저히 장성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우리 산업의 면모를 일신하고 전쟁전 수준을 기본적으로 회복하였으며 생산 수단의 생산과 더불어 인민 소비품 생산이 급속히 증가됨으로써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경공업의 락후성이 현저히 퇴치되였다.

결과에 공업 총 생산액 중 생산 수단의 생산은 1956년에 1953년에 비하여 4,3배로, 1949년에 비하여는 1,8배로 장성하였으며 소비재 생산은 1953년에 비하여 약 2배로, 1949년에 비하여는 2,2배로 장성하였다.

공업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지도 사업에서 표현된 일부 농업 지도 일'군들과 계획 일'군들의 오유를 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 경리의 물질적 토대를 복구 확장하는 데 신중한 주의를 돌렸다. 결과에 농촌 경리에서 알곡 총 수확고는 정전후 두해에 걸치는 혹심한 자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6년에 이르러 전쟁전 1949년 생산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소채는 116%로, 저류는 124%로 전쟁전 수준을 릉가하였다. 공예 작물의 생산과 축산업도 전후에 현저히 발전하였는 바 아마의 생산은 1956년에 1949년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였으며 돼지의 두수는 이미 1956년 10월 1일 현재로 전쟁전 수준을 릉가하였다.

중공업을 비롯한 경공업 및 농업의 이와 같은 높은 발전 템포를 보장한 결과 이 부문들의 상호 관계가 전쟁전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상호 관계를 이루게 되였다. 즉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제고되였으며 공업의 발전 수준은 농촌 경리 발전에서의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게 되였다.

둘째로 달성된 성과는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공업에서 원료, 반제품 생산에 치중되였던 낡은 공업의 부문별 구조, 락후한 기술 토대, 불합리한 지리적 배치가 개선됨으로써 식민지적 편파성이 현저히 퇴치된 그것이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종전에 우리 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공업 부문들을 창설함으로써 이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새 제품들을 허다히 생산하게 되였으며 특히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제작 공업의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에 아직 있어 보지 못한 공작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농업 기계, 방직 기계, 전기 기계 공업들이 창설되였으며 낡고 수공업적이였던 방직 공업이 현대적인 대규모 공업으로 확장 개편되였다.

결과에 일제 통치 시기에 가장 락후한 부문이였던 기계 공업과 경공업이 1956년에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제고되였는 바 공업 총 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방전 1944년의 1,6%로부터 전쟁전 1949에는 8,1%로, 1956년에는 17%로 제고되였으며 같은 시기에 방직 공업의 비중은 6%로부터 11,4%, 18,2%로 제고되였다.

전후 기간에 파괴된 기업소의 복구와 함께 공업의 기술적 개건이 상당한 범위에서 진행되였으며 동시에 낡은 공업 중심지들이 새로운 근대적인 공업 도시로 확충 개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업 중심지들이 창설되여 가고 있다.

그리하여 낡고 식민지적이였던 우리의 공업은 새로운 근대적이며 자립적인 민족 공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그의 지도적 역할은 가일층 제고되고 있다.

세째로 달성된 성과는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확고한 지배적 및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특히 농촌 경리의 협동화에서 획기적 전변이 이루어 졌다는 그것이다.

공업 부문에 있어서 전후 3개년 기간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더욱 확대 강화되여 소유 형태별 상호 관계는 현저히 변화되였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인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의 90,7%로부터 1955년에는 98,3%로 제고되였는 바 1956년에는 이것이 더욱 제고되였다.

농촌 경리에서도 개인 농민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급속한 템포로 수행되고 있는 바 이 부문에서의 경제 형태별 상호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1956년 11월 말 현재로 농업 협동 조합수는 15 612 개 소에 달하여 총 농가 호수의 79,3% 총 경지 면적의 76,4%가 이에 망라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분야, 특히 농촌 경리에서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확

대 강화와 우리 당의 옳은 시장 정책으로 인하여 상품 류통 분야에서의 사회화 과정이 현저히 촉진되고 있다. 소매 상품 총 류통액 중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인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의 56,5%로부터 1955년에는 84,6%로 제고되였는 바 1956년에는 이것이 더욱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기본 문제, 즉 자본주의 경제 형태에 대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달성되였다.

네째로 달성된 기본적 성과는 공업 및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에 기초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되였던 인민 생활이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금후 생산 수준의 발전에 따라 그들의 복리 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 기초를 구축한 그것이다.

우리 나라 생산의 부단한 발전과 관련하여 국민 소득은 계속 장성되고 있는 바 1956년에 국민 소득은 1953년에 비하여 약 2배로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는 약 1,4배로 장성하였으며 소매 상품 류통액은 전쟁전 1949년 수준을 2,2배로 장성하였다.

전후 5차에 걸치는 물가 인하를 실시한 결과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물가 수준은 1953년에 비하여 1956년에는 55%가 저하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민들이 얻은 리득은 약 340억원에 달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상과 같이 체계적인 물가 인하를 실시하는 한편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을 부단히 향상시켰다. 전후 두 차례에 걸치는 임금 인상의 결과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은 1953년에 비하여 1956년말에는 188%가 장성되였으며 그들의 실질 임금은 현저히 장성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을 위한 사회 보험, 사회 보장에 의한 보조금, 각종 상금, 무상으로 되는 정양 및 휴양, 무상 치료, 그리고 무료 교육 등 사회 문화 시책을 위하여 277억원의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주택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474만 평방 메터의 주택을 새로 건설하였다.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서도 거대한 배려가 돌리여 졌다. 국가는 전후에 약 2만 3천 톤의 종자 및 식량과 58억원의 융자적 방조, 막대한 량의 량곡을 무상으로 원조하여 주었으며 현물세를 고정화시키는 한편 관개 사용료를 인하하며 생활 토대가 미약한 빈농민들의 현물세, 대여곡 등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인민의 복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이 지나간 3개년 계획 기간에 실생활에 력력히 구현되였다.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 과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이와 같은 거대한 승리는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그것은 우리 당의 전후 경제 정책이 가장 정확하였으며 전 당이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일치 단결하여 그 정책을 관철시켰으며 우리 당의 령도하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 인민이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국제적 벗들의 고귀한 원조에 고무되면서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불굴의 투지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한 결과이다.

전후 3개년 계획의 승리적 총화——이것은 우리 인민을 번영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는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당의 정책이 정당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민들이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난관을 두려워 하지 않고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여 투쟁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였다는 것을 증시하는 것이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필승 불패의 력량을 시위하는 것이다.

* *

제1차 5개년 계획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

전후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총화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가 수행한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 성과는 거대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제 내부에는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발전 공업, 연료 공업, 화학 공업 등은 전쟁에 의한 피해가 너무나 혹심하였기 때문에 3개년 계획 기간에 막대한 투자가 실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6년에 이르러서도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우리의 인민 경제는 공고한 연료, 동력 기지를 가지지 못하고 화학비료에 대한 농촌 경리의 수요도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야금 공업은 급속히 장성하는 기계 공업과 기본 건설 사업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쟁 피해를 혹심하게 입은 농촌 경리는 당과 정부의 백방으로 되는 방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상처를 완전히는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알곡 및 공예 작물의 생산은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공업의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앞으로 인민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수출품 생산의 완만한 장성은 외화 수지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일정한 곤난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제적 국가들의 무상 원조는 이미 그 대부분이 복구 건설에 투하되였으며 당과 정부가 전후 시기에 계속 배려를 돌리고 있는 인민 생활 개선 향상을 위한 시책들은 금후 계속 방대한 자금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경제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자금 축적과 예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3개년 계획은 주로 기존 기업소를 복구하며 그의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지 않게 형제적 국가들의 원조에 의존하였다면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존 기업소들과 새로운 기업소들을 개건, 확장, 신설하여야 하며 그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로 우리 나라 자체의 내부 원천에 의존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형편하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에로 이행하는 우리들 앞에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일련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실질 수입이 증가되고 구매력이 현저히 장성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그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에 상응하도록 상품 공급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이다.

전후 시기에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책이 거듭된 결과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전시에 비하여 현저히 장성되였는 바 특히 최근에 취하여진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 인상과 농민들의 국가적 부담의 감소 및 1956년도 농작물의 풍작으로 인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과 근로 농민들의 실질 수입은 현저히 장성되였으며 그 기초우에서 그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인민들의 급속히 장성하는 지불 능력 있는 수요에 상응하여 상품 생산을 확장하며 그의 예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가 만일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제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상품 생산을 확장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충분한 량의 상품을 생산 공급할 대책을 취하지 못한다면 국내의 경제 생활은 륭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여 상품 생산과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간의 불균형이 조성됨으로써 인민 생활의 향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는 3개년 계획시에 비하여 형제적

국가들의 원조가 현저히 축감되게 되므로 1957년 계획에서는 외화 보장(외화 발란스)의 긴장성이 예견되며 따라서 외화를 획득하며 그를 극력 절약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3개년간에 예견되였던 대외 원조 폰드를 대부분 복구 건설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생산 및 건설의 계속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외화 원천을 확대하기 위한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물자 발란스 작성에서 적지 않게 대외 수입에 의존하였던 압연재 및 석탄, 전력 및 량곡 발란스에서의 긴장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현재 외화 사정의 긴장성은 어디에 기인되는가? 그것은 한편으로 대외 원조 폰드의 감소와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대책과 관련하여 섬유 제품을 비롯한 인민 생활 필수품의 수입을 증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있으며 우리의 대외 수출이 부족한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외 수출을 백방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적지 않게 대외 수입에 의존하였던 석탄, 강재, 유지류, 화학 제품 등 원자재들의 대외 수입을 될 수 있는 한 제한하며 기본적인 보조 원료 자재를 제외하고는 기타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국내 생산품으로 대용하는 등 외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그를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이행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의 또 하나는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 지출을 현저히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과 대외 원조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제기되는 재정적 보장(재정 발란스)의 긴장성과 관련하여 물자 소비와 재정 지출에서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국가 재정은 항상 공고한 기초 우에서 일정한 여유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에 있어서는 이와는 사정이 다르게 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형제적 국가들의 원조가 축감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후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당과 정부의 대책 보장을 위하여 막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데로부터 재정 발란스에서 긴장성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7년에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계속 많은 국가 자금이 지출되게 될 것인 바 그것은 량곡 구입, 자금 지출, 사회 문화 시책에 대한 사업비 지출의 증가 또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 지출 등 막대한 자금들이 지출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또한 인민 경제의 장래 발전을 위한 기본 건설 투자 규모를 계속 현재의 규모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하에서 국가의 재정 형편을 견실하게 하고 충분한 예비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책은 국가 경제 기관의 축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온갖 예비를 적극 동원 리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물자 소비와 재정 지출에서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는 문제는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우리의 인민 경제가 제1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은 이상과 같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곤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며 그를 성과적으로 해결한 토대 우에서 우리의 인민 경제를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이 없이는 우리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 생활은 급속히 향상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이 중요한 경제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만이 우리의 경제는 륭성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정치적 및 물질적 기초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할 거대한 정치 경제적 과업을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난 전후 년간에 우리가 달성한 경제 건설의 성과가 아무리 크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이에 자만할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더욱 더 긴장된 투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요 과업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은 조선 인민이 전후 3년간에 달성한 거대한 경제 건설 성과에 기초하면서 우리 경제 건설 분야에 조성된 새로운 경제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장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였다. 즉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총로선에 확고히 립각하여 그리고 경제 발전 도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신중히 참작한 기초 우에서 작성되였다.

1957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22%로 장성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바 그중 생산 수단의 생산은 117,2%로, 소비재의 생산은 125,5%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1957년 계획에서는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촉진시킬 과업에 상응하여 중공업 부문에 계속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발전 공업, 연료 공업, 광업,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등 기간적 공업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데 기본 투자의 많은 부분이 분배되였다.

1957년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공업 건설 투자 총액의 84%에 해당하는 130억원이 분배되였는 바 야금 공업 건설을 계속 확대하며 석탄 공업 및 광업의 건설을 강화하며 전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발전 공업, 화학 공업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1956년에 비하여 발전 공업은 122,2%, 연료 공업은 127%, 광석 채굴업은 113,9%, 야금 공업은 115,9%, 기계 제작 공업은 111%, 화학 공업은 135%, 건재 공업은 123%로 각각 급속히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중공업의 발전과 함께 경공업의 급속한 동시적 발전의 보장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으로 되여 있다. 계획에는 1956년에 비하여 1957년에는 방직 공업은 124%;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140,8%로 급속히 장성시킬 것이 예견되고 있다.

1957년 계획에 있어서 소비재의 생산이 생산 수단의 생산보다도 더 급속히 발전되는 이와 같은 사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전후 3년간에 중공업 건설에서 달성된 성과에 기초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구매력이 장성됨에 따라 급격히 장성하는 상품 수요를 충족시키며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시책을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재 생산의 증대를 보장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농촌 경리 발전에 따르는 지방 원료 원천의 증대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주고 있다. 따라서 1957년에 있어서 생산 수단의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이와 같은 장성 템포는 우리 앞에 제기된 정치—경제적 과업에 상응하는 적절한 균형인 것이다.

공업의 발전은 반드시 이에 상응한 농업 생산의 발전이 배합될 것을 요구한다. 1957년에 농촌 경리에서는 알곡 증산과 함께 공예 작물 재배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 1956년에 비하여 알곡 총 수확고는 102,5%, 면화는 184,6%, 아마는 168%, 과실은 123,5%. 잠견은 119%로 각각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리하여 1957년에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련계는 일층 강화될 것이다.

1957년 계획에서는 공업 및 농업 생산의 앙양, 대외 무역의 확장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실질 수입이 현저히 제고되는 실정과 관련하여 주

민들의 구매 능력의 제고에 상응하여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을 1956년에 비하여 123,7%로 장성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1957년에 직물류의 판매는 인구 1인당 8메터에 달할 것이며 콩기름, 비누 등의 공급도 현저히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57년도 계획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중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에 신중한 주의가 돌려 지고 있는바 특히 금속, 석탄, 기계, 전력, 화학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당면 제 과업이 제시되고 있다.

흑색 공업 분야에서는 급속히 발전되는 기계 공업 및 건설 규모의 확대에 상응하여 그에 소요되는 강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황해 제철소, 성진 제강소 및 강선 제강소의 복구 건설을 촉진시키여 소형 형강, 특히 각종 환강, 규격 강관, 가스관, 주철관, 각종 공구 및 전기 기계, 기구 제작용 강판 등 다종 다양한 강재의 생산을 확장할 과업이 규정되고 있다.

석탄 공업 분야에서는 연료에 대한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에 비하여 석탄 채굴이 락후해 있는 현상을 극복하며 특히 국내 유연탄 생산을 적극 확장하고 고열탄의 국내 생산 조직을 추진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규모가 크고 전망성 있는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 신창, 고원, 흑령 탄광 등 여러 탄광들의 보조갱 개발과 덕천 지구, 조양, 룡등, 고참, 신창 탄광들에서의 새 갱구 조업 개시를 촉진시키며 기본 굴진을 항상 채탄에 선행시켜 채탄 개소를 생산에 지장 없이 확보할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오지, 고건원 탄광들에서 고열탄 생산을 계속 확장하며 석탄 시설들을 복구 정비하며 석탄의 품질을 제고하며 용도에 따라 석탄을 규격별로 공급할 대책을 강구할 것이 규정되고 있다.

기계 공업 분야에서는 아직 완비되지 못한 공장들의 복구 정비 공사를 촉진시켜 그를 완성하는 동시에 현존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매개 공장들의 주물 주강 능력을 제고하여 공정간의 능력상 불일치를 제거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는 등 방법으로 설비 리용률을 일층 제고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소요되는 기계 설비 및 그의 부속품을 원만히 생산 공급하도록 할 것이 규정되고 있다.

이 과업에 상응하여 1957년 계획에서는 기계 설비 부속품을 총체적으로 1956년에 비하여 145,7%, 그중 탄광 및 광산 설비 부속품은 141,5%, 야금 설비 부속품은 약 3,2배, 쎄멘트 설비 부속품은 172,7%로 현저히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전동기, 변압기, 공작 기계, 광산용 기계 설비, 농기구, 선박, 공기 압축기 등 중요 제품들의 생산도 계속 증가시키는 동시에 시추기를 비롯하여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규격의 제품 생산도 대담하게 조직할 과업이 제시되였다.

전력 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1956년에 비하여 발전량을 121%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는 동시에 공업 발전의 급속한 속도에 따라 1958년 이후에 전력 발란스가 더욱 긴장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처하여 현존 수력 발전 및 화력 발전 설비를 급속히 완비하고 그의 출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전력의 원만한 공급을 위한 제 대책을 미리부터 강구할 것이 규정되여 있다.

화학 공업 분야에는 알곡 증산을 보장하며 공예 작물 및 유지 작물 재배를 발전시켜야 할 과업에 상응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화학 비료의 공급을 증가할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는 바 이를 위하여 1957년에 화학 비료의 생산은 1956년에 비하여 144,8%로 증대시킬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흥남 비료 공장의 암모니야 생산 설비들을 계속 복구 정비하며 질안 쩨호의 건설 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195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그의 조업 개시를 촉진시킬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중공업 부문에 대한 이와 같은 발전 규모와 함께 1957년 계획에서는 전후 시기에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일관한 제반 시책의 결과 이루어 진 성과를 계속 공고화하기 위하여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며 인민들에 대한 그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할 과업이 중요하게 제시되였다.

생활 필수품 상품 폰드의 확대——이것은 실로 오늘날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키며 인민들 속에 방출되는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인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축적을 증대시키는 결정적 고리이다.

1957년 계획은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을 참작하면서 경공업, 지방 산업, 생산 협동 조합들은 물론 농촌 가내 수공업과 개인 수공업에 이르기까지의 각 생산 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예비를 동원하며 지방 원료 원천을 적극 탐구 리용하며 생활 필수품 생산의 확대 특히 그의 품종을 인민들의 수요에 상응하도록 확대하며 질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수요와 기호를 원만히 충족시킬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1957년 계획에는 경공업성의 생산을 127,5%, 도영 및 생산 협동 조합 생산을 150%로 급속히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생활 필수품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의류 생산은 1956년에 비하여 면직물은 109,1%, 견직물은 139,6%, 내의류는 151,9%, 편직물은 123,1%, 피복 제품은 155,5%로 각각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부족되는 섬유 원료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진 방직 공장에서 년간 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는 인견사 공장을 1957년 2,4 분기에, 스프 공장을 1958년에 완공하도록 건설 공사를 촉진시킬 것이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원료 원천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기존 생산 시설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며 일부 생산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식료품 생산은 140,8%로 장성시킬 것이 예견되고 있는 바 식물성 유류, 간장, 된장, 소금 등 대중 식료품 생산이 현저히 장성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곡산 공장, 육류 가공 공장, 어류 통조림 공장 등 현대적 공장들에서 물엿, 고기 통조림, 과실 통조림, 고기 만두 등 새로운 식료 품종들을 생산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계획에는 필수품 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도영 및 협동 조합 공장들에서의 생활 필수품 생산 품종을 확장하며 그 부문 일'군들의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폰드 생활 필수품 생산 계획을 독립적인 계획 항목으로 설정하였는 바 이에는 1 300 여 종의 일용품이 포함되여 있다.

인민 생활 향상과 관련하여 계획에는 또한 농업 및 수산업 발전 문제에 신중한 주의가 돌려 지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알곡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농업 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농민들 자체의 력량으로 소규모적 관개 수리 공사를 전개하여 경지 면적을 복구 확장하는 동시에 퇴비를 다량 생산케 하며 화학 비료 공급을 증대하며 농업 기술 과학을 발전시켜 선진 영농법을 도입함으로써 단위당 수확고를 더욱 제고시킬 과업의 제시되고 있다.

알곡 생산의 증가와 함께 공예 작물 및 유지 작물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공예 작물의 파종 면적을 1956년에 비하여 약 1,5배로 확장하고 그의 정당 수확고를 현저히 제고함으로써 공예 작물 생산을 현저히 장성시킬 것이 예견되고 있다. 섬유 작물의 확장에 주력을 두면서 공한지와 휴한지를 리용하여 피마자, 해바라기 등 유지 작물의 파종 면적을 확장하며 엽연초, 락화생, 고삼피 및 홉뿌 등의 생산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대외 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수출 원천을 확대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제 과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에는 화학 비료의 시비를 1956년에 비하여 128,2%로 증대시켜 전전 수준에 거의 도달하게 하며 농약의 공급을 현저히 증대하고 4억 5천 600만 원에 달하는 주요 농기구를 새로 공급하며 국영 채종포들에서 우량 종자 생산을 증가시키는 등 국가적 방조 대책을 강화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알곡 생산의 현저한 장성에 의하여 조성된 축산업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타산하여 1957년 계획에서는 중요한 가축들의 년말 가축 두수를 현저히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였는 바 1956년 말에 비하여 1957년 말에 조선소의 두수는 110,5%, 돼지의 두수는 119%, 면양의 두수는 119%, 산양의 두수는 121%로 각각 장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바 조선소를 제외한 중요 가축 두수는 전쟁전 1949년의 수효를 훨씬 릉가하게 될 것이다.

농업 생산물이 점차 장성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농산물의 수매 사업은 국가의 수중에 농민들의 여유 농산물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향상을 자극하고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에는 수매 량정성의 수매 총액을 1956년에 비하여 1957년에 143,9%로 제고하며 그중 량곡은 167%, 육류는 153,6%, 섬유 공업 원료는 132%, 고공품 및 곡초는 127%로 장성시키며 이외에 상업 기관들의 자체 구매액을 1956년에 비하여 128,9%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의 확장과 함께 이를 공급하는 상품 류통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문제가 당면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계획에는 이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하여 중요한 고려가 돌려 지고 있다.

상업 기관 일'군들 앞에는 각종 상업망의 분포를 재 검토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접근시키며 특히 로동자 지구와 산간 오지에 대한 상품 공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농산물에 대한 수매 사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상품 농산물 생산을 자극하며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과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의 공급을 현저히 개선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주민들의 수요를 타산함이 없이 상품을 기계적으로 분배하는 상업 일'군들의 건전치 못한 사업 태도를 청산하고 상품 배정에서 무규률성과 무질서한 현상을 근절함으로써 상품의 지역간 편재, 체화, 품절 현상을 근절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상업망들에서는 상품 품종 구성을 부단히 개선 확장하여 주민들의 다종 다양한 요구에 수응하며 상품 주문을 기동성 있게 조직함으로써 상품 생산을 자극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의 계절적 수요를 원만하게 충족시키도록 상업 조직을 민활히 하며 수산물의 선도를 보존하면서 그를 비생산지에 수송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생선 공급을 현저히 증대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자 지구의 상업을 강화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직장 상점들에서의 산채, 과실, 소채 등 식료품의 품종을 확장하는 한편 로동자, 사무원들의 부양 가족으로 생산— 판매 협동 조합 등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소채, 두부, 콩나물 등 식료품의 공급을 증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에는 기업소들에서 자기 기업소내의 상점, 식당, 식량 배급소들을 책임적으로 신설, 보수, 정비하며 상품 수송 사업을 적극 보장할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농촌 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 소비 협동 조합들의 자체 력량으로 상점, 식당들을 신설 보수 정비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소요되는 자재를 지방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에는 외화 발란스의 긴장성과 관련하여 대외 무역 분야에서 수출 원천을 광범히 탐구 개발하여 외화 획득을 증대시키며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적극 조직 확대하여 외화 절약을 강화할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요 수출품들인 유색 금속 및 유색 광물들과 세멘트, 카바이트를 비롯한 화학 제품, 인삼 및 담배를 비롯한 경공업 제품, 과실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및 수산물 등의 생산을 백방으로 증가시키며 그의 질을 제고함과 함께 특히 농산물 및 수산물을 비롯한 일체 수출품들의 수매 사업을 강화할 것이 규정되였다.

또한 외화를 극력 절약하며 수입을 축감하기 위하여 석탄 및 강재를 비롯한 모든 수입품을 가능한 한 점차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충족시키도록 국내 생산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그를 가능한 한 국내 생산 대용 자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특히 수입탄을 국내 유연탄 및 무연탄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강재의 사용을 세멘트, 콩크리트로써 대용하는 등 결정적 대책을 강구 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57년도 무역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작성되였는 바 1957년 상품 수출을 1956년에 비하여 1,4배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상품 수입을 1956년에 비하여 90,5%로 축소하였다.

기본 건설 분야에서 1957년 계획은 이미 8월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기본 건설에 있어서의 투자의 분산성을 방지하며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집중적, 중점적 투자를 예견하였다.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과업에 상응하여 기본 건설 투자 규모가 제한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1957년 계획에서는 그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일부 긴급치 않은 건설 대상들을 중지하며 속한 시일내로 생산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상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집중하였는 바 그것은 현존 생산 면적, 현존 생산 설비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원칙 우에서 배정되였다.

계획에 의하면 생산적 건설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을 계속 유지하며 특히 공업 건설에 대한 중점적 투자를 보장하면서 주택 건설 및 교육 보건 건설에도 상당한 투자가 배정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농업 건설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규모는 1956년에 비해서 현저히 축소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계획에는 농민들 자체 력량에 의한 건설에 물질적, 재정적 방조를 제공할 대책을 예견하는 한편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화학 비료의 증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를 공업 부문간에 분배함에 있어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할 데 대한 기본 방향과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야금 기지 및 연료, 동력 기지를 급속히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 건설, 특히 금속 공업, 석탄 공업, 광업, 전력 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저히 제고하며 경공업 부문에서는 방직 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제고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1957년 기본 건설 총 투자액 중 생산적 건설에는 72,6%, 비생산적 건설에는 27,4%가 분배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공업 건설에는 58,4%, 농업 건설에는 4,6%, 운수 체신 건설에는 8,4%, 교육 및 문화 기관 건설에는 4,6%, 주택 건설에는 16%가 분배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계획에서는 또한 재정 발란스와 물자 발란스의 긴장성이 예견됨과 관련하여 물자 소비와 재정 지출에서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할 것이 중요한 중심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계획에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력 조직을 일층 개선하며 선진 기술 및 창의 고안을 광범히 도입 적용하여 그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각 광산, 탄광, 기업소들에서 수송 계통의 기계화 및 작업에서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는 등 제 방법으로 로력을 절약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일층 제고시킬 것이 예견되고 있는 바 1956년에 비하여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8,2%, 건설 부문에서 20,5% 제고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리하여 1957년 공업 총 생산액 장성의 47%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보장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계획에는 또한 경제 절약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축적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가일층의 제고, 단위당 제품에 대한 원료, 연료, 전력의 소비량의 저하, 행정 관리비 및 기타 비생산적 지출의 현저한 축소에 기초하여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 예견되고 있는 바 1956년에 비하여 공업 원가는 6,2% 이

상, 건설 가치는 9,9% 이상 저하시킬 과제가 예견되고 있다.

1957년도 계획에서 제기된 중요 과업들은 대략 이상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1957년 계획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총로선에 확고히 립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당이 경주하고 있는 심심한 배려가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계획은 그의 중요 과업의 하나가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에 돌려 지고 있다. 그러니 만큼 계획에서의 긴장성이 표현되고 있다.

*　　　　*

1957년 계획——이것은 방대한 5개년 계획의 첫해 계획이며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5개년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각급 당 단체들과 모든 국가 기관, 경제 기관 및 그 지도 일'군들은 자기들의 모든 조직 경제적 력량을 동원하여 전체 인민들을 고무 추동함으로써 그들을 1957년 계획의 성과적 실행에로 궐기시켜야 할 것이다.

1957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산물들을 더 많이 적극 증산하며 모든 자재, 로력, 재정 자원을 백방으로 절약하는 데 있다.

증산과 절약——이것은 1957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모든 생산 예비——설비, 자재, 로력 등——를 철저히 적발 동원하며 물자 소비와 재정 지출에서 엄격한 절약제를 확립하며 로력을 적극 절약하여 추가적 투자를 하지 않고 또는 극히 적게 하면서 최대한의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보장하며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 일'군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생산 계획이 장성되면 그에 따라 응당 설비가 늘어야만 한다고 일면적으로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설비 및 투자만을 요구하고 현존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생산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유해로운 사업 태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새로운 투자를 하여야 하며 우리 공업 기지들을 부단히 확장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시기 우리 앞에 조성된 경제 형편은 많은 부문에서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을 확대하는 문제를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 사실은 다만 우리의 제한된 건설 자금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존 설비와 우리의 기술 력량들의 예비가 극히 많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여 있다.

우리의 현존 대다수 기업소들은 지난 시기와 달리 훌륭한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군들의 사업 수준과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현저히 장성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 리용률은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아직 많이 뒤떨어 지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 사이에서도 선진 기업소와 락후한 기업소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면적 리용에서나 자재, 로력 및 재정의 리용에서도 동일한 형편이다.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생산 장성의 중요 고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 면적과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로력의 합리적인 조직, 작업의 기계화,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설비와 로력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없이 생산을 확대하는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여야 한다.

로력을 절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비생산 로력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바 이를 위하여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기구들을 대담하게 축소하는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방대한 자금과 자재를 요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고도로 긴장되여야 할 이러한 시기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재정, 자재, 로력들이 랑비되고 있으며 쓸모 없이 허실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자금 문제를 주로 우리 자신들의 고귀한 로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랑비 현상은 곧 우리의 경제 건설을 좀 먹는 행위로 될 것이며, 경제 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는 수요는 많으나 우리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는 물자들이 적지 않으며 또한 일부 물자는 국내에서 생산은 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부문에서 수요를 대외 원조, 대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절약 투쟁은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업인 바 오늘 인민 경제 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 석탄, 강재를 비롯한 일련의 물자 발란스는 우리에게 특별히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당 단체들은 연료, 전력, 강재, 량곡을 비롯한 물자들의 절약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부족한 자재들에 대한 대용 자재를 적극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서 석탄의 연소률을 제고시키며 그의 열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니탄, 초두목, 톱밥, 곡식 뿌리 등 대용 연료를 광범히 탐구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재의 랑비 현상과 강력히 투쟁하는 한편 각 부문에서 환강을 비롯한 각종 강재들을 광범히 회수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각 기업소들에서는 단위당 제품의 전력 소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는 한편 전력 소비에서 도전 무허가 가설, 전기 온돌 및 전열기의 장치 등 일체 비생산적 랑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석탄, 강재 및 전력 절약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해로 되는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긴장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긴장된 시기에 고도의 긴장성과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력량을 동원하여 부과된 과업의 성과적 수행에로 확신성 있게 총 궐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은 인민 경제 계획의 중요 과업을 사상적으로 깊이 접수하고 모든 생산 및 건설에서 예비력을 적발 동원하는 한편 효과적인 경제 조직에 자기의 심혈을 다 바침으로써 보다 높은 증산을 보장하며 절약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은 1957년 계획 수행이 결코 쉽게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을 옳게 타산하고 우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동원 사업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계획의 초과 수행에로 조직 추동하며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하부에 대한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등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품종별로 꼭꼭 초과 수행하도록 당적으로 보장하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끝

조선 인민군은 민족의 보위자이며 혁명의 보위자

김 봉 률

조선 인민은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승리적으로 초과 완수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긴장된 로력 투쟁 속에서 자기의 진정한 무장력인 조선 인민군 창건 제9주년을 맞이한다.

조선 인민군의 영광스러운 지난 전 행로는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혁명과 그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함으로써 조국 보위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한 업적으로 일관되여 있다.

오늘 조선 인민군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제 성과에 의거하여 자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평화의 방선에 경각성 있게 서 있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여하한 도발적 침습에 대하여서도 결정적 타격을 주고 우리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보위하기에 항상 준비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은 그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준비되여 있는 무력이 없이는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수 없으며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지배 계급이 자원하여 주권을 양도하지는 않으며 더우기 그가 전복된 후에도 강한 힘을 가지고 국제 자본과의 련계와 지지하에 옛 제도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무장적 반란, 온갖 도발적 책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는 만약 그가 지배할 것을 원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그의 군사 조직체로도 증명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며 그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민의 무장력을 창건하여야 한다.

오직 무장한 인민만이 자기의 강압자와 교살자를 타승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하에 있어서만이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강점되여 갖은 민족적 압박과 무권리와 기아와 빈궁 속에 신음한 것도 그 당시 조선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격파할 수 있는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였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는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후 또 다시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노예가 되지 않으며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 무력을 창설할 데 대한 전 민족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는 새 사회 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또 그 승리의 공고화를 위하여서는 인민의 무장력을 창설할 것을 교시하고 있는 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이 문제를 절실한 민족적 과업으로 조선 인민 앞에 제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조선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자기 수중에 국가 주권을 튼튼히 장악한 조선 인민은 쏘베트 군대의 사심 없는 원조와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제반 민주 개혁과 찬란한 민주 건설을 성과 있게 진행함으로써 우리 조국 북반부에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튼튼한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들을 노예화하며 우리 조국을 극동에서의 침략적 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자기의 음흉한 계획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범한 남반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면서 반동적인 지주, 자본가, 친일 친미파 등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하여 리 승만 반동 정권을 조직하는 한편 《국방군》을 조직하고 침략 전쟁을 준비하며 북조선에서 달성한 민주 혁명의 제 성과를 파괴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엄중한 정세는 우리 인민들 앞에 이미 쟁취한 민주주의 혁명의 제 성과를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무장력을 창건할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의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취한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8일 조선 인민의 진정한 무력이며 조국 방위의 성새인 조선 인민군을 창건하였다.

인민 군대의 창건은 실로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사변이였으며 이는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조선 로동당의 지도하에 조선 인민이 혁명적 실천에서 쟁취한 위대한 승리였다.

조선 인민군은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나 그의 목적과 과업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 군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 형의 군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 군대는 언제나 지배적 착취 계급들의 추악한 권력의 유지와 보다 많은 돈 벌이를 위한 독점 자본가들의 대내 대외 정책의 강제적 집행의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군은 쏘련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군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목숨으로 보위하는 혁명적 군대이다.

김 일성 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인민군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완전 자주 독립을 일층 촉진》시키며 《민주주의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의 토대인 북조선 민주 개혁의 성과를 보위하며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이 그 고귀한 사업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북조선 인민 생활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김 일성 선집》 1권 658 페지)하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하고 있다.

조선 인민군은 우리 나라의 해방된 로동자, 농민 및 전체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조직된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므로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민족적 리익을 옹호하는 목적의 공통성을 가지고 인민과 굳게 단결되였으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군의 고상한 사명과 목적으로 하여 공화국 공민은 인민 군대 복무를 가장 영예스러운 의무로, 자기의 애국적 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조선 인민군은 김 일성 원수가 지도한 항일 빨찌산 부대의 고귀한 혁명 전통과 애국 정신을 계승하고 그의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된 혁명 군대이다.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빨찌산 부대는 악독한 일제 군경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15 성상에 걸친 장기간의 혁명적 투쟁에서 애국적 헌신성과 백절불굴의 완강성을 발휘하였으며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 사상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남기였다. 우리 인민군은 바로 이 애국적 헌신성과 불굴의 혁명 전통을 직접 계승하였다.

김 일성 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인민군은 비록 그의 창건 력사는 짧다 할지라도 《실지에 있어서는 장구한 혁명 전통과 애국 정신으로 빛나는 군대》로서 그는 《단지 총칼로 무장된 것만이 아니라 열화같은 애국 정신으로 또는 우수한 선배들의 실지 경험으로 무장된 강철같은 군대》(《김 일성 선집》 1권 662페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항상 영예로운 항일 빨찌산 부대의 빛나는 투쟁 력사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우리의 선렬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피어린 혁명 투쟁에서 발휘한 불멸의 애국주의와 전투 정신을 자기들의 가슴 속에 깊이 명심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적과의 결사전에 용감하게 나아갔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김 일성 원수가 지도한 항일 빨찌산 부대 용사들이 원쑤들과의 전투에서 발휘한 혁명적 자기 희생성, 고상한 동지 우애심, 곤난과 난관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불굴의 강인성, 용감성, 대담성 등의 모범은 매개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여 그들의 고상한 전투--도덕적 품성 형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적의 어떠한 침략으로부터라도 자기 조국을 보위하는 군사적 의무의 성과적 수행에로 고무한다.

조선 인민군은 선진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있으며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의 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받고 있는 군대이다.

조선 인민군은 협애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와는 아무러한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존중히 하며 각국간의 평화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받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은 계급적 의식과 계급 투쟁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되고 있으며 당의 위업과 자기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필승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며 조국 보위와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의 성과를 수호하는 것을 자기의 최대의 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 인민군은 쏘베트 군대의 풍부한 전투 경험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쏘베트 군사 과학을 부단히 연구 섭취하고 있다. 쏘베트 군사 과학은 현대 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 주며 전쟁 승리의 모든 가능성과 요인들과 현대 전쟁에 적응하는 군사 행동의 방법과 수단들을 명시하여 주고 있다. 인민 군대는 선진적 군사 과학의 제 원칙들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그를 우리 나라의 조건과 전투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지난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였다.

새 형의 군대인 조선 인민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 특징들은 그가 전투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훌륭한 군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인민 군대를 창건하고 그를 육성 강화함에 있어서 당은 조선 인민군의 조직, 관리, 보충, 교육, 교양 및 공급 등의 다종 다양한 군사 건설의 원칙적 제 문제를 선진 국가의 경험과 전쟁과 군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레닌은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서 유일하게 옳으며 합목적적인 무력 조직 형태는 밑으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고 확고한 조직, 엄격한 중앙 집권제, 강철같은 군사 기률을 가졌으며 지휘관과 장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정규군이라고 하였다.

당과 정부는 인민군을 창건하는 첫날부터 그를 현대적 정규군으로 육성 강화하기 위하여 심심한 배려와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인민군 장병들은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한 군사 기술과 전투 기능을 련마하였으며, 선진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였으며,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도덕적으로 견실한 혁명적 군인으로 교양되였다.

이와 같이 청소한 인민군은 짧은 기간에 우리 조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보위할 수 있는 강력한 인민의 무장력으로 장성 강화되

였다.

력사적 사실은 인민 무력을 적시에 창건하고 그를 육성 강화한 당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우리 인민은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이미 조선 인민군과 같은 자기 민족의 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적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조종하에 리 승만 역도들의 1천 8백 여 차에 걸치는 무장적 도발 사건을 제때에 격파 분쇄하고 공화국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 장엄한 창조적 로력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공화국 북반부를 튼튼한 혁명 근거지로 전변시키는 데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조선 인민은 조선 인민군과 같은 혁명적 인민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민의 혁명 력량을 말살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며, 조선 인민을 자기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고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군의 력사는 그가 혁명을 보위하며 자기 민족을 보위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영웅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은 조선 인민과 그의 무장력인 인민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전투 행동과 전반적 전쟁의 성과는 전쟁 승리의 제반 가능성과 요인들을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동원 리용하는 데 크게 의존된다.

전쟁 초기부터 당과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를 전시 체제로 적시에 개편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정의의 투쟁에로 궐기시켰으며, 국가의 경제적, 도덕적 잠재력과 모든 직접적, 간접적 예비들을 적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리용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는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생활력과 우월성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흉악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개시하면서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무능력하며 청소한 인민군은 《전격전》으로 일격에 격파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적들의 심중한 오산이였다.

전쟁의 초기에 있어서 벌써 백 여 년의 침략 전쟁의 경험을 가졌고 신형 무기로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자들은 조선 인민군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전격전》 계획은 파탄되고 그의 위신은 땅 바닥에 떨어졌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추락된 위신을 회복하며 략탈적 침략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태평양 지역의 병력의 대부분과 16개 추종 국가 군대들까지 조선 전선에 투입하였다.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심지어 국제적 법규까지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화학 무기와 세균 무기까지 서슴 없이 사용하였으며 대량적인 비행기와 함포를 동원하며 무차별 폭격과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보기 드문 온갖 비인간적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소위 가장 《유명한》 장군들인 맥아더, 릿치웨이, 밴 풀리트, 클라크, 테일러 등을 련이어 조선 전선에 파견하면서 소위 결정적 승리를 한 두 번만 호언 장담하지 않았으나 결국 그들은 침략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며 자기의 무력(無力)을 폭로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 3년간에 조선 인민군은 적의 침략적 기도를 걸음마다 파탄시키면서 그의 전투적 위력, 그의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 그의 고상한 전투--도덕적 품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전쟁 행정에서 현대적 정규군으로 질적으로나 량적으로 더욱 강화 발전된 조선 인민군은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였으며 공화국의 대내 대외적 위신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군은 전체 조선 인민의 열렬한 지지 성원과 위대한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물심 량면의 원조와 형제적 중국 인민 지원군의 전투적 방조하에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수호하는 위대한 성전에서 민족의 보위자이며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자기의 진면목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전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들어선 우리 인민들은 당이 제시한 경제 발전의 총로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다.

전체 인민들은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받들고 자기의 창의 창발성과 헌신적 로력으로써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 타개하며 위대한 쏘련, 중국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경제 기술적 원조를 생산과 건설에 옳게 리용함으로써 현재에 이르러서는 300 여 개소에 달하는 현대적 대 중 기업소들을 비롯한 수다한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소들을 복구 확장 또는 신설하였으며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전후 3개년 계획을 빛나는 승리로써 수행한 결과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많은 생산 수단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 생활의 급격한 개선에 필요한 각종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을 가지게 되였으며 다수확을 획득할 수 있는 농업 기지를 창설하였다.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에서 거둔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였으며 그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이 일층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이 당과 정부의 령도하에 쟁취한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다.

우리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 계획을 비상히 고조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로써 맞이하고 있다.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현 계단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혁명적 민주 기지인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경제적으로 가일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념원을 유린하면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려고 책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정전후에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분렬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최근 리 승만 도당과의 사이에서 조작하여 낸 소위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비롯한 수다한 침략적 《조약》, 《협정》 등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며 그를 합법화하는 한편 매국 역적 리 승만 도배를 사촉하여 또 다시 조선 인민에게 동족 상잔의 류혈을 강요하려고 《북진》을 고창하며 발악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에 군사 기지를 확장하며 괴뢰 군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새로운 장비들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있으며 괴뢰 군대를 원자 무기로 장비하려고 로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적들은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타산하면서 정전 협정을 란포하게 위반하고 군사 분계선에서 빈번하게 무장 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령해와 령공을 침해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 발생한 웽그리야에서의 반인민적 음모, 애급에 대한 영, 불,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과 때를 같이 하여, 또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진영의 《파괴》와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분렬》을 조성하려고 갖은 반쏘 반공 선전과 온갖 허위와 중상을 퍼부으면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파괴 음모 활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미 제국주의 상전의 고무와 지시 밑에 리 승만 도배는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반인민적 전쟁 선동과 각종 도발적 책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면서 긴장 상태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이 헌신적 로력으로 쟁취한 성과들을 빼앗고 이 나라들에 다시 지주, 자본가의 질서를 세우려는 흉악한 음모의 일환이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강력한 중심인 위대한 쏘련으로부터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리탈시켜 개별적으로 파괴하려는 음모와 련결되여 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 군대로 하여금 평화의 방선에서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긴장성을 견지하고 온갖 우연성으로부터 자체를 보위하며 쟁취한 평화와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도록 인민 군대의 전투력과 전투 준비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인민군 장병들은 당이 제시한, 인민 군대를 기술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인민 군대를 간부 군대로 육성 단련하는 교시 실천에서 더욱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인민군 장병들은 전후 정치, 전투 훈련의 질을 제고하며 선진적 쏘베트 군사 과학과 조국 해방 전쟁 경험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현대전의 성격에 적응한 군사 기능을 완성하며 지휘관의 조직자적 능력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지휘관의 유일 관리제를 가일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휘관과 정치 기관들은 군인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그들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현대전의 특성에 적응한 군인들의 전투 도덕적 품성을 더욱 확고하게 형성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인민 군대는 인민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밑에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친선과 단결을 일층 공고히 하고 있다.

인민군 장병들은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전투적 긴장성과 혁명적 경각성을 고도로 제고하고 방어 진지를 철옹성같이 강화하면서 우리 조국의 안전과 인민들이 쟁취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장엄한 성과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겠다는 각오와 결의에 더욱 충만되고 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리익의 수호자이며 조국 방위의 강력한 성새인 인민 군대가 과거에도 그러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당과 조국과 인민이 자기 앞에 부과한 력사적 사명을 계속 영예롭게 수행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의 다양성과 공통성에 대하여

마 춘 영

맑스주의가 발생한 이후 이미 한 세기가 지나갔다. 이 기간에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과 탁월한 리론가들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리론을 외곡하며 수정하려는 적들과의 투쟁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더 한층 발전시키였다.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전략 전술과 사회주의 건설의 설계도는 로씨야 로동 계급을 혁명에서 승리케 하였고 오늘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을 승리에로 인도했으며 또 인도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리론은 앞으로 구라파와 아세아 기타 대륙의 많은 인민들을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향도성으로 될 것이다.

레닌의 혁명적 리론과 그의 지도하에 이루어 진 로씨야의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경험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의 당들로 하여금 간악하고 흉악한 원쑤들과의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을 자기의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 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 혁명 투쟁 속에서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키고 있다. 조선 로동당은 모든 자기 활동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함으로써 언제나 조선 로동 계급과 조선 인민을 혁명 승리에로 인도해 왔으며 인도하고 있다.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더 심오한 리해, 쏘련을 비롯한 전 세계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경험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킴에 거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인류 사회 발전에 공통한 기본 법칙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종 다양한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는 각이한 나라와 매개 민족은 구체적 형태에 있어서는 각이한 길을 따라 공산주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는 오직 일정한 민족적 특성들을 통하여서만 구현되며 작용한다. 이렇게 맑스—레닌주의는 각국 공산주의 운동이 필연적으로 그의 민족적 특성들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각국 공산주의 운동에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같이 일련의 기본 점들에 있어서는 결국 동일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창조적 적용》이라는 구호 밑에서 쏘련의 기본 경험이 가지는 국제적 의의를 부인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을 수정하려는 시도들을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향과 시도들은 모두 위험하며 유해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10월 사회주의 혁명 이후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구라파와 아세아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성과 또 앞으로 예견되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더욱 다양한 형태들만 보고 이러한 다양성과 함께 그 모든 혁명들 속에 관통하고 있는 원칙들의 공통성들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경향의 위험성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들로부터 리탈함으로써 적들에 대한 우리 로동 계급의 증오와 경각성을 마비시키고 적들을 유리하게 해 주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개 혁명의 특성의 연구와 함께 그 특성들 속에 관통하고 있는 공통성을 정확히 리해함으로써 세계를 변혁하는 무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날로 공고 발전되고 있는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사회 제도와 그 토대 우에서 이루어진 모든 혁명적 전취물들을 국제 제국주의자들로 부터도, 온갖 수정주의자들로 부터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해 보자.

1) 사회주의 혁명 수행에 있어서.
2) 사회주의 혁명에서 수립된 국가 주권에 있어서.
3)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1. 사회주의 혁명 수행에 있어서

인류 사회 력사에서 온갖 착취 제도를 청산하고 착취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로동 계급 이외의 어떠한 계급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란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생산 방식의 교체는 낡은 생산 관계를 고집하는 낡은 계급의 수중에 있는 정권을 탈취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선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파괴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이 로동 계급의 투쟁은 각이한 나라에서 동일할 수 없다. 그것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이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기 때문이다. 즉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은 그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와 특성에 의하여 제약된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덜 발전하였는가 또는 충분히 발전하였는가 또는 식민지적으로 발전하였는가, 반식민지적으로 발전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계급 투쟁의 방법이 제약된다. 또한 혁명 투쟁은 그 나라에 이미 수립되고 있는 정권의 성격과 민주화 정도에 의하여 제약되며 그것은 로동 계급의 당이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으로 무장된 정도와 혁명적 투쟁에서의 단련 정도에 의하여서도 제약되며 그때의 국제 정세, 특히는 한 나라의 로동 계급의 투쟁을 지지 원조하는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원조의 정도와 형태에 의하여 제약된다.

이와 같은 제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는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 투쟁은 불가피적으로 각양한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씨야에서는 자본주의가 비교적 덜 발전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 났다. 로씨야의 부르죠아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교적 미약하였던 반면에 당시 제국주의적 모순의 결절처로 되였던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가혹한 착취하에서 혁명적인 계급으로 형성되였으며 위대한 레닌이 지도하는 볼쉐위끼당의 령도하에서 근로 농민과의 튼튼한 동맹 밑에 자본주의 제도를 폭력으로서 전복하고 주권을 쟁취하였다.

이와 달리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제2차 대전에서 쏘련 군대에 의하여 독일 파시즘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격멸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이루어 졌다. 이 나라들에서는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민주 개혁들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반동 세력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청산한 기초 우에서 공산당 또는 로동당들이 령도하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정권이 수립되였으며 그후 이 정권은 점차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이행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에 의한 정권의 장악은 공민 전쟁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점차로 장악되였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쏘련 군대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을 집결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립각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은 민주 개혁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정권으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동 계급에 의한 정권의 장악은 평화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밖에 또한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오늘 새롭게 조성된 정세하에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인민의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의회를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변시키고 이를 리용하여 나라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자본주의 체계가 지극히 약화된 반면에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가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과 근로 인민의 력량이 말할 수 없이 강대하여진 반면에 부르조아지의 력량이 약화된 결과 이전보다 비할 수 없이 혁명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현 정세하에서 의회를 인민의 도구로 만들므로써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사상을 새로운 조건하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모범이다.

그런데 의회를 리용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나라들에서 현재 집정하고 있는 반동적 정치 련합을 타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적 련합을 확립하여야 하는 바 이 새로운 정치적 련합은 프로레타리아트를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의 더 한층의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으로써 현 집정 당들에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대중의 온갖 복잡한 투쟁,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투쟁의 총체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따라서 오직 강대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의 힘이 존재하고 이 힘이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옳게 령도될 때에만 비로소 의회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성으로 전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각이한 조건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들이 각이하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성들이 엄연히 관통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려는 로동 계급은 반드시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는 일체 근로자들, 특히 근로 농민과의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고 있다. 그리고 로동 계급은 반드시 치렬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주권을 쟁취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바 사회주의 건설 과업을 수행하는 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것, 로동 계급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리론으로 무장된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적 당만이 할 수 있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의 전투적인 련대성을 가지고 호상 원조하고 있다는 것,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단련된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의 힘은 능히 원쑤들의 타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분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등이다.

지나간 모든 사회주의 혁명의 경험은 이상의 제 원칙에 립각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나라에서나, 어떠한 조건에서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일부 지도자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구실 밑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프로레타리아 당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 또는 부인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현재 간고한 조건하에서 영웅 분투하는 웽그리야 공산주의자들이 취한 혁명적 조치에 대하여 무책임한 비방을 가하고 있는 데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웽그리야 사태와 관련하여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실시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웽그리야의 사회주의 력량을 원조한 쏘련의 정의의 행동을 반대하여 나섰고 로농 혁명 정부에 대하여 성격 여하에 관계 없이 정권을 《지역 로동자 쏘베트》에 넘길 것을 요구하여 나섰으며 당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고 《권유》하여 나섰다.

이렇게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당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 부인하려는 《사회주의자》의 행동은 사실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자본주의의 복구를 기도하는 부르조아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명백히 리해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주의 혁명에서 수립된 국가 주권에 있어서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각이한 전제 조건은 혁명 수행의 방법을 각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립된 국가의 정치 형태의 다양성도 초래케 한다.

정권의 계급적 구성에 있어서

레닌은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인 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꼭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각자는 이러 저러한 형태의 민주주의로써, 이러 저러한 종류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써, 사회 생활의 각이한 부면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이 실시되는 이러저러한 속도로써 독자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전집 23권 58페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혁명의 경험들은 혁명이 수행되는 시기의 국제 국내 정세와 그 나라의 혁명 과업과 혁명 력량의 각이한 구성에 따라서 혁명의 결과 수립되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행하는 정권에 참가하는 계급들이 각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로씨야에서는 세 차례에 걸치는 혁명 과정에서 비프로레타리아트적 당들은 자기의 기회주의적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자연이 혁명 령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정권은 오직 공산당에 의하여, 로동 계급에 의하여서만 지도되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구라파 및 아세아에서 발생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처음에는 반제, 반봉건적 혁명 투쟁 시기에 존재했던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여 모든 민주주의적 력량을 집결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기초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정권이 수립되였다. 이 정권은 나라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 함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 있어서도 정권에는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계속 참가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정권은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인, 애국적인 력량인 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가하여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이다. 이 정권은 로동 계급과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서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민 민

주주의 국가들에서나 우리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권에 여러 정당이 참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모든 당들은 로동 계급이 실시하는 정책을 접수하고 적극 원조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정권은 조선 로동 계급의 정책을 실시하는 도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 송 예정 동무는 해방 이후 아무런 계급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것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여러 계급의 혁명적 련합 독재의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혁명 성격에 의하여 그렇게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로동 계급 없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유이며 앞으로의 혁명 승리의 결과에 대한 잘못된 리해에서 오는 오유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동력은 남 북반부의 로동 계급을 선두로한 전체 근로 인민과 애국적인 인테리들과 애국적인 민족 부르조아지도 참가하는 광범한 인민인 바 이 력량에서 결정적인 것은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로동 계급과 그와 동맹한 농민의 힘이다. 또 우리의 인민 정권이 그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민족적인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정권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혁명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 기지를 더 급속히 발전 강화시키고 있으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과업을 더 급속히 촉진시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술한 잘못된 견해는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제계급의 동맹을 전여 그들 내부에서의 투쟁이 없는 계급 관계로 보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의 여러 계급들, 특히 근로 인민들과 민족 부르조아지와의 사이에는 민족적 리해 관계에 있어서의 공통성과 함께 계급적 리해 관계에서의 적대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민족적 리해 관계에서의 공통성은 계급적 모순에서 나오는 투쟁을 일시 완화할 수 있으며 투쟁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투쟁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는 없으며 더우기 그 투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때문에 동맹하는 동시에 투쟁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투쟁 방법과 투쟁 수단을 다르게 할 뿐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은 로동 계급의 결정적 역할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바 이것은 우리가 모든 나라의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에의 계급들의 참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로동 계급과 맑스―레닌주의적 당이 국가 및 사회를 령도하고 있다는 것과 정권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망라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대표는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거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근로 인민의 대표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인민의 적이며 반혁명의 중요한 세력인 민족 반역자들과 파시스트 분자들은 정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국가의 정치적 조직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는 국가의 류형은 그 토대로 되는 경제적 관계에 의하여 따라서 그 계급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며 국가의 정치적 조직 즉 통치 형태는 그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발전 조건, 계급적 세력의 호상 관계 및 외'적 조건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리론은 오늘 여러 나라의 혁명 경험에서 확증되고 있다. 로씨야에서는 혁명 투쟁 과정에서 투쟁의 무기로서 쏘베트를 창조하였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로씨야 로동 계급의 모범을 따르면서 그러나 자기 나라의 특성들에 따라서 각각 특이한 국가 조직을 취하였다. 간단한 례로서 최고 주권 기관의 조직에 있어서 불가리야와 알바니야는 인민 회의를, 체코슬로바키야는 민족 회의를, 루마니야는 대민족 회의를 가지고 있다. 또 국가의 령수에서도 각이하다. 불가리야, 루마니야, 알바니야 등 나라의 국가 령수는 합의제 대통령제 즉 상임 위원회를, 체코슬로바키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이한 나라에서 국가의 정치적 조직이 각이하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공통성을 볼 수 있는 바 그것은 부르조아 의회제와는 달리 중앙만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방 말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립각한 지방 주권 기관이 존재하는 유일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 수령은 최고 인민 회의에서 선거되며 또 임기전에 소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최고 인민 회의는 립법권과 집행권을 장악하는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관으로 되고 있다는 것, 인민 회의들은 근로자들의 대표들의 기관이며 이것은 로동 계급과 공산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치 조직이라는 것과 이 정치 조직들은 부르조아 정권과는 달리 가장 국제주의적인 정치 조직이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야의 일부 지도자들은 결코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이 정치 조직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중앙 집권제 원칙을 완고한 《쓰딸린주의》라고 중상하면서 이를 약화 또는 부인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의 부인이 곧 프로레타리아트의 완전 무장 해제로써 부르조아지를 방조하는 것과 꼭같은 것이며 혁명 운동을 실패케 하는 극히 유해로운 경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권의 기능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권이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와 특성에 따라서, 그가 수행하여야 할 혁명적 과업의 복잡성에 따라서 그의 기능을 각이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정권을 리용하여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여 있던 일체 공장, 기업소, 광산, 철도 운수, 은행, 체신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쏘베트 국가는 지주의 토지를 비롯하여 전체 토지를 국유화했으며 이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봉건 잔재를 청산하는 민주주의적 과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로씨야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혁명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과업을 지나가는 길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첫 단계에서 철저하게 수행된 민주 개혁의 성과 우에서 이것들을 공고화하면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둘째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화국 북반부에 창건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정권은 그 첫 단계에서는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철저히 실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 과업의 수행은 송 예정 동무가 말하듯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 없이가 아니라 이 투쟁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로동 계급의 력량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조건하에서 평화적 개조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또한 전 민족적인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정권이 수행하는 두 과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민주 기지를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고 혁명을 완수하는 길을 촉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정권에 대한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확고한 령도만이 자본주의적 요소와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로동 계급의, 즉 사회주의적 요소의 정치적, 경제적 력량의 절대적인 우세하에서만 민족 부르조아지는 불가피적으로 사회주의적 개조를 접수하게 되는바 이 때에도 그들은 국가에 대하여 이러 저러한 형태로 반항한다. 때문에 국가를 통한 강력한 로동 계급의 통제 없이는 그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소부르조아지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자본주의에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 통제하는 한편 그들에게 유리하게 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도록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를 통한 절대적인 원조가 없다면 소상품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로씨야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정권은 자기 기능 수행에 있어서 각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세 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첫째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정권들은 타도된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다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련계를 강화하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 발전과 승리를 원조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둘째로 이 정권들은 근로자들을 부르조아지로부터 종국적으로 분리시키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며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인입시키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째로 이 정권들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하여 착취 제도를 청산하며 따라서 착취 계급들을 청산하며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권의 계급적 구성, 그 정치적 조직 형태 그의 기능 수행에는 일련의 특성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부차적인 일시적인 차이들이고 기본적으로는 레닌의 사상과 로씨야의 혁명 경험이 모범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우리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두 부분으로, 즉 도시와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자.

도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혁명이란 한 생산 방식이 다른 새로운 보다 발전한 보다 높은 생산 방식에 의한 교체를 의미하는 바 이 생산 방식의 교체는 두 생산 방식을 대표하는 낡은 계급과 새로운 계급과의 투쟁에서 새로운 계급의 승리에 의한 낡은 정권의 청산, 새로운 정권의 수립에 의하여 완성된다.

이 정권의 역할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바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주의적 경제적 토대가 전여 없는 조건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로동 계급은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쟁취가 혁명의 시작이요 이 주권을 통하여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생산 수단을 수탈하여 국가적 소유로 하고 사회주의적 토대를 완수함으로써 혁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주권을 쟁취하고 그 주권을 리용하여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을 창설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업은 각이한 나라에서 각이한 조건하에서 수행된다.

로씨야 로동 계급은 폭력으로써 일거에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수탈하여 국가 소유로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는 달리 구라파의 여러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자본가들의 소유의 국유화가 수차례에 걸쳐서 수행되였다. 즉 이 나라들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발전의 첫 단계, 즉 로동 계급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시기에 민족 반역자들과 파시스트 정권이 가지고 있던 산업의 중요한 부문들을 수탈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인 경제 토대들을 구축하였으며 그 후 인민 민주주의 독재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기에 가서 점차적으로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여 있던 공장, 기업소, 광산, 은행, 철도 등을 국가 소유로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를 확대 강화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1947년 봄에 반역자들의 소유와 기타 일부 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산업에서 국가적 부분이 75%를 차지하였는바 이것은 민주 개혁의 성과로서 이루어 졌다. 1948년 2월 반동들의 정권 전복의 음모가 파탄된 이후 정권으로부터 반동적인 부르조아 대표들이 축출되여 정권의 령도는 완전히 로동 계급과 그의 당에 넘어갔다. 그리하여 체코슬로바키야의 인민 정권은 이때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으로 되였다. 체코슬로바키야는 1948년 상반년에 50명 이상의 로동자를 가진 공장, 기업소에 대하여(기타 일부 중요한 기업소는 그 종업원 수에 관계 없이)국유화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1949년도에 벌써 국가적 부분이 전 산업에서 95%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점차적으로 산업의 중요한 부분들을 국유화하였다. 한편 이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의 미약한 부차적인 요소들을 리용 개조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 산업의 95%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조건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후 인민 정권이 실시한 민주 개혁의 결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일체 산업, 운수, 체신, 은행 등은 국유화 되여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로 전환되였다. 그 이후 로동 계급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 정권은 이 사회주의적 부분을 계속 강화 발전시키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 정권은 이 토대 우에서 부분적인 부차적인 자본주의적 요소를 생산 협동 조합을 통하여 국가의 통제하에서 리용하며 점차 개조하는 방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도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각이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볼 수 있다. 즉 로동 계급과 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정권은 우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들과 은행, 체신 철도 등을 자기 손에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의 중요한 부문들과 은행, 철도, 체신의 국유화는 국가적인 폭력에 의한 강제적 몰수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적 요소의 평화적 개조란 것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정치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세한 조건하에서 또 부르조아지의 리해 관계로부터가 아니라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송 예정 동무가 보듯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평화적인 방법이 마치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우리 혁명의 총적 과업에 의하여 제기된 것같이 리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 기지 강화의 필연성으로부터 또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경제발전의 필연적 합법칙성의 요구로부터 제기된 것이며 여기에서의 평화적 방법의 적용 여부는 계급들의 력량 관계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지 혁명의 총적 과업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조는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에 의하여 촉진되며 완성되고 있다. 이모든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적 원칙은 레닌이 가리킨 길이며 로씨야 로동 계급의 경험에

렵각한 결과인 것이다.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에로 개조한다는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를 할 것 없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실시되지 않은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한 나라로 될 수 없다.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없이는 도시의 산업의 발전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인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락후한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는 바 농촌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은 오직 농촌의 락후한 생산 관계를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생산 관계로 교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때문에 로동 계급은 정권을 장악한 날부터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그러나 보통 농촌의 전반적인 사회주의적 개조는 도시에 뒤떨어져서 진행된다. 그것은 농촌이 도시 산업에 비하여 발전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봉건 기타 잔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농촌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정은 두 단계, 즉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준비 단계와 직접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시하는 단계에 걸쳐 각이한 투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로씨야에 수립된 쏘베트 정권은 우선 그 첫 단계에서는 농민의 념원인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지주의 토지를 비롯하여 일체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며 토지는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토지의 개인 대차를 금지했으며 고용농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농촌에서 봉건 잔재의 청산과 함께 자본주의적 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이였다. 그러나 이때 쏘베트 국가는 상품 곡물 생산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한 부농 경리를 해체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쏘베트 국가의 곡물의 위기는 상품 곡물을 다량 생산하는 부농 경리를 해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일정한 시기, 즉 쏩호즈 및 꼴호즈에 의하여 상품 곡물이 국가에 공급되기 전에는 부농 경리를 리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쏘베트 정권은 1930년대에 가서 쏩호즈와 꼴호즈의 상품 곡물 생산량이 부농의 상품 곡물량을 릉가할 수 있었고 한편 농민 대중이 꼴호즈적 대규모적 집단 경리의 우월성을 확신함으로써 꼴호즈에로의 가입을 요구하며 동시에 부농을 반대하는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된 조건하에서 비로소 부농을 계급으로서 청산하고 농촌을 전반적으로 집단화하는 과업을 제기하였다. 쏘베트 국가는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인 부농 경리를 청산하는 동시에 소상품 생산을 꼴호즈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인 생산에로 이행시키는 과업을 동시적으로 실시하였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대개 로씨야에서와 동일한 길을 걸으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지주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국유화한 것이 아니라 발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분여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도 토지의 매매, 토지의 대차를 금지함으로써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부농 경리를 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대규모적인 자본주의적인 부농 경리가 일정하게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장애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10~20 헥터의 경지를 가진 농호수는 32 000호이여서 전 농호수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50 헥터르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농호수는 5 000호 이상이여서· 전 농호수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 토지 개혁시에 이 부농 경리를 해체하지 않고 리용하고 있는 결과 이 부농 경리는 어느 정도 농촌의 사회주의적 협동 조합 운동을 저해하고 있다. 때문에 일련의 나라들, 볼가리야, 체코슬로바키야 등에서는 부농에 대한 제한 구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일부 부농은 자기 경리를 파멸당하거나 청산해 버리고 있다. 또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농업 발전이 사회주의 진영의 호상 원조의 조건하에서 공업 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쏘련 또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 차이 점은 주로 우리 나라 농업의 락후성에서 기인하는 것인 바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부농들이 농업 로동자를 리용하여 경리하는 것보다 소작 제도에 의한 운영이 유리한 데로부터 봉건적인 지주적인 경리를 겸하고 있었다. 부농의 이와 같은 토지는 토지 개혁시에 몰수당하였는 바 이리하여 조선의 부농은 토지 개혁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부농의 경리는 그리 크지 않은 세력으로 잔존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부농은 전 농호수의 0,6%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약한 부농 세력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협동 조합 운동의 발전을 크게 장애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당과 정부의 옳은 정책과 절대적인 방조하에서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확신한 우리 나라 농민들은 급속하게 협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1956년 11월말 현재 전 농호수의 79, 3%가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쏘련 또는 다른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부농들에 대한 청산 정책을 실시함이 없이 점차적으로 그의 경리를 협동 조합에 병합시킴으로써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협동화 운동의 특성의 또 하나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변혁(기계화)에 비하여 사회 경제적 변혁(협동화)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서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이 역시 그 나라의 농촌 경리 발전의 정도와 산업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각이하게 실현되고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농촌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농촌의 봉건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며 농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의 점차적인 장성 강화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것 특히 쏩호즈, 꼴호즈, 농기계 임경소의 설치에 의한 대규모적인 기계화된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시범적으로 교양하고 있다. 또한 부농 경리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과 소멸을 통해서 농촌의 대규모적인 협동 조합 운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소농 경리는 협동 조합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경리에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농촌 경리는 도시의 발전된 공업의 원조에 의한 농촌의 기계화를 통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농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 정권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리탈할 때에는 농촌의 발전이 락후해 지며 사회주의의 정치적 기초인 로농 동맹의 파괴를 가져오며 도시와 농촌의 발전의 균형성을 파괴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 수행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레닌이 가리킨 길과 다른 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며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경험한 그 길과 원칙적으로 다른 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길이 모든 나라 인민들을 사회주의에로 가게 하는 원칙적이며 유일하게 옳은 길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더 한층 레닌의 위대한 사상, 위대한 쏘련 공산당의 투쟁 경험이 우리의 혁명 투쟁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협조없이는 혁명 승리를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리해하게 된다.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의 리탈, 쏘련으로부터의 리탈, 쏘련의 모든 긍정적 경험들까지도 부인하면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이것은 망상이며 이것은 오직 국제 공산주의 대렬의 단결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 대렬내에 혼란과 분렬을 야기시킬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원쑤들에게 리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깊이 리해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 인민은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성새인 위대한 쏘련을 옹호 지지하며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와의 형제적 친선 단결을 자기들의 가장 고상한 의무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혁명적 실천에서 언제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에 가장 충실한 전사로 되여 있을 것이다.

형식과 내용

송 택 영

맑스주의 변증법의 기본 범주의 하나로서의 《형식과 내용》의 범주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에 고유한 형식과 내용간의 합법칙적인 상호 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형식과 내용》의 범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맑스주의 변증법의 범주들——례하면 《본질과 현상》이라든가 《필연과 자유》 혹은 《가능성과 현실성》 등등은 현실 세계에 있어서 사물과 현상들의 가장 일반적인 규정성, 련관의 형태, 발전의 모멘트들을 표시하면서 그것들의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범주들은 현실 세계의 사물과 현상들에 있어서 그에 대응하는 대상들에 대한 단순한 호칭(呼稱)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이며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의 범주도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들의 형식으로 되는 측면과 내용으로 되는 측면에 대한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연구한 토대 우에서 그 형식과 내용의 본질적 특성, 합법칙적 련관 관계를 리론적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맑스주의 변증법의 리해는 우리들이 사물과 현상들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를 옳게 리해하며 그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옳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된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들의 사회—정치적 생활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례하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대한 문제, 국가나 당 사업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혹은 예술의 내용과 형식 등등의 문제를 옳게 리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 *

《형식과 내용》의 범주를 우리들이 연구할 때에 우선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맑스주의 변증법의 다른 일련의 범주들——례하면 《본질과 현상》, 《원인과 결과》, 《필연성과 우연성》 등등의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범주가 서로 쌍(雙)을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이 사실은 현실 세계의 사물과 현상들의 형식과 내용이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사물과 현상들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동일체이다. 우리가 내용에 대하여 생각할 때 바로 그와 련관적으로 형식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물의 형식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일정한 사물의 내용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물과 현상들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도 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례하면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예술은 사회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고찰할 때 형식과 내용의 관계에 놓여 져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의식의 형태로서 예술을 볼 때에 그 자체로서 그것은 또한 자기의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형식과 내용은 모든 사물과 현상들에 있어서 상호 련관되여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두 측면이다. 형식과 내용이 상호 련관되여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사물의 각이한 측면이라는 것은 례하면 일정한 사물에 있어서 내용이 보존되면서도 형식이 바뀔 때 명료하게 나타난다.

생산 방식에 있어서 생산력이 그 내용으로 되며 생산 관계가 그 형식으로 된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생산 방식이 교체될 경우에, 례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교체될 경우에 그 형식적 측면을 이루는 생산 관계는 완전히 변화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발전된 생산력은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 그대로 계승되며 보존된다.

또한 반대로 일정한 형식이 상이한 내용에 복무할 수도 있다. 례하면 우리의 민족 문화의 형식의 구성 요소인 조선 말은 우리 사회 발전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이한 사회적 내용을 가진 문화에 복무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은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된 사물의 두 측면을 이루면서도 상호 구별되는 두 측면이다. 내용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물과 현상들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요소와 과정들의 총체를 가르쳐 말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내용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과 결합되여 있는 만큼 내용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은 일견 리해의 곤난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내용에 대한 규정을 형식에 대한 규정과 상호 련관 아래서 고찰할 때에 자연 해소될 수 있다.

형식이란 사물과 현상들의 내적 요소와 과정들의 전체가 그 사물과 그 현상들에 있어서 련결되여 있는 방식, 표현 형태들을 가리켜 말한다.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하자. 생물계에 있어서 이러 저러한 생물 유기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적 구성 부분들과 그가 수행하는 기능——례하면 물질 대사와 번식 작용 등은 그 내용에 해당되며 그의 형태학적 구조, 물질 대사의 실현 방식 등은 그의 종(種)적 징표의 구성 요소들로서 형식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적 현상들에 있어서도, 례하면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생산력은 그의 내용에 해당되는 바 왜냐 하면 생산력——로동 도구와 인간의 로동력은 자연물이나 원료를 물질적 부로 전화시키는 생산 활동 자체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반면에 생산 관계는 생산 방식의 형식으로 된다. 즉 일반적으로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 및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로동 과정에 있어서의 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관계, 로동 생산물의 분배 관계 등에 나타나는 바 그것은 생산 활동이 어떠한 사회적 조직을 가지고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기 때문이다.

례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기계나 공장, 원료 등이 자본가의 소유로 되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로동자들은 로동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가면서 일하며 로동 생산물은 로동자들의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본가의 점유로 되는 방식으로 생산의 사회적 구조가 결정되여 있다. 반대로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이 근로자들의 공동 소유로 되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로동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며 로동 생산물은 직접 혹은 간접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분배되는 방식으로 생산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활동을 일정한 사회적 형식에서 제약하는 생산의 사회 경제적 구조이다. 모든 생산 방식은 이와 같이 그 내용으로서의 생산력과 형식으로서의 생산 관계의 통일체이다. 생산력이 없는 생산 관계가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생산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생산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일정한 《사회 밖에서의 고립적인 개인의 생산이란 것은 함께 살며 말하는 제 개인이 없는 언어의 발생과도 같은 공상》(칼•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1952년판 194폐지)이며 생산 관계란 바로 사회적인 생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 작품들도 일정한 사상적 내용과 표현 형식과의 통일체이다. 어떠한 문학 작품이나 회화나 조각을 들고 보더라도 그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예술가들의 예술—사상적 반영의 성과가 일정한 예술적 형식에서 표현되고 있다. 예술 작품들에 표현되여 있는 예

술가들의 예술적 형상에 의한 현실 세계에 대한 사상적 반영 자체는 예술적 작품의 내용으로 된다. 물론 예술의 사상적 내용은 그것이 예술가의 예술적 소양이나 사회—정치적 견해들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만큼 현실 세계의 단순한 묘사는 아니다.

모든 인간 인식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객관적 세계를 반영한 것인 바 그의 내용은 예술가의 구체적 제 조건——그의 예술적인 감수성 사회—정치적 견해 등에 의하여 제약된다. 동일한 현실도 예술가들의 주체적 제 조건 때문에 각이하게 반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내용은 현실 세계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작가의 주체적 제 조건들에 의하여 제약된 현실 세계에 대한 예술—사상적 반영의 전체이다. 이것은 물론 예술의 내용이 좁은 의미에 있어서 사상, 즉 그 작품에 표현되여 있는 예술가의 사회—정치적 견해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작품의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품에 표현되여 있는 예술가의 사회—정치적 견해, 작품의 사상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술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예술의 내용의 전부는 아니다. 예술 작품의 사상적 내용에는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일정한 객관적인 대상들과 그가 띠고 있는 정치 도덕적, 미학적 특성들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여 있는 바 만일에 예술의 내용을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사상에 귀착시킨다면 그것은 사실상 예술의 내용을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예술의 형식은 일정한 물질적인 표현 수단들의 도움에 의하여 그 사상적 내용에 주어진 작품의 구조를 말한다. 례하면 문학 작품에 있어서 그 사상적 내용은 언어의 도움으로 일정한 기교 구상을 가지고 통일적 체계로서 표현되여 있다. 또한 그림에 있어서는 선,채색 등과 일정한 구도를 배합하여 화가의 현실 세계에 대한 사상적 반영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이상 생물 유기체나 생산 방식 또는 예술 작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만일 그 사물과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및 정신적 제 요소와 그 운동 자체를 의미한다면 형식은 그것들의 그 사물과 현상들에 있어서의 결합 방식과 표현 형태들을 가리켜 말한다.

사물과 현상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본질과 현상들의 관계와 혼동할 수 없다. 1954년 판 게•에프•알렉싼드로브 총 편집 《변증법적 유물론》에는 형식을 내용과의 관계에서 규정하면서 《그에 (내용——필자) 의하여 제약된 내용의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에프•알렉싼드로브 총 편집 《변증법적 유물론》 1954년판 230폐지). 이 경우에 있어서 형식이 《내용의 표현》이라는 말은 본질의 표현으로서의 현상의 뜻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본질의 표현으로서의 현상에 있어서 그 내용의 표현 방식으로 리해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본질은 내용과 다른 사물의 규정성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응하는 범주인 현상은 형식과 다른 사물의 규정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본질》의 범주는 사물의 본성과 그 운동 과정의 합법칙성을 특징짓는 범주이며 그것은 사물과 그 운동 과정의 전체를 특징짓는 《현상》의 범주에 대응하며 이와 달리 《내용과 형식》의 범주는 일정한 사물과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및 과정들과 그 표현 방식의 관계를 특징짓는 범주이다. 내용이 본질과 동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과 현상도 동일하지 않다. 례하면 생산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인 생산력이 생산 방식의 본질은 아니며 또한 그 형식인 생산 관계가 생산 방식의 모든 현상을 포괄하지 않으며 오직 그 한 측면—내용과 구별되는 형식의 측면에 해당할 뿐이다.

형식의 범주를 현상의 범주와 혼동하여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범주를 본질의 범주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례하면 사회의 상부 구조적 현상으로서 국가에 있어서 그 내용은 이러 저러한 계급들을 대표하는 그 국

가 기구의 구성 성원들과 그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을 가르쳐 말하며, 국가의 형식은 일정한 국가 주권의 조직적 구조를 가르쳐 말한다. 이때 그 계급적 내용과 계급적 본질은 일정하게 구별된다. 례하면 오늘날의 중화 인민 공화국은 그 계급적 본질로 보아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이다. 그러나 그 계급적 본질과 계급적 내용은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바 국가의 계급적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대표 이외에 다른 계급들의 대표들——례하면 민족 부르조아지의 대표도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정책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그들의 리해 관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계급적 본질과 그 발현 내용과를 일정하게 구별하여야 하는 바 만일에 우리가 그 현실적 내용과 본질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쏘련의 쏘베트 주권과 중국의 인민 주권과의 차이, 즉 본질상 동일하면서도 현실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무시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일정한 국가 주권의 계급적 본질은 그 내용에, 즉 그 구성 성원들과 기능에서 표현된다. 물론 그것은 그 조직적 구조—형식에도 표현된다. 그러나 그 계급적 본질과 내용은 그대로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본질은 사물과 현상의 주도적인 지배적 경향을 특징 지우는 개념이며 내용은 그 사물 현상의 구성 요소 및 과정들의 총체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물과 현상들의 형식과 내용은 서로 무관계한 두 측면들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며 제약하는 련관된 두 측면들이다. 그들 간의 상호 제약성은 우선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그 형식이 결정되며 내용의 변화는 형식의 변화를 발생시킨다는 데서 나타난다. 례하면 생산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인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성격은 그에 대응하는 생산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며 또한 생산력의 변화와 발전은 일정한 단계에 가서 생산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 력사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시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생산력의 미약한 발전 수준과 그에 의하여 제약된 로동의 협동적 성격은 생산 수단에 대한 공동 소유에 기초한 원시 공동체적 생산 관계의 발생을 조건 지었는 바 협동 로동의 대상인 토지와 같은 생산 수단은 공동체의 소유로 되여 있었으며 로동 생산물도 균등하게 분배되였다. 그러나 원시 공동체 태내에 있어서 생산력이 점차 발전된 결과는 생산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원시 공동체적 생산 관계로 하여금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로 변화시켰다. 즉 원시 공동체 내에 있어서 만일에 초기에는 생산력 발전 수준이 극히 미약하였기 때문에 집단적인 로동 생산 수단에 대한 공동체적 소유 및 로동 생산물에 대한 균등 분배가 불가피한 일이였다면 공동체 내에 있어서 생산력의 점차적인 발전은 분배의 불평등과 사'적 소유를 발생시키고 이미 보다 생산적인 개인적 경영에로 이행할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결국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로 넘어 갔다.

이와 같이 생산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 즉 생산력의 변화는 불가피적으로 일정한 단계에 가서 그 형식, 즉 생산 관계의 변화를 가져 온다.

이와 동시에 생산 방식에 있어서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중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추동적인 방향에서나 혹은 제동적인 방향에서나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다음과 같은 실례는 이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생산 장성 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1929년에서부터 1937년에 이르는 기간에 쏘련에서는 공업 생산고가 4, 3배로 장성하였으나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는 겨우 4% 밖에 장성하지 못하였으며 1937년부터 1955년까지 쏘련에서는 공업 생산고가 4, 8배로 장성하였으나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는 1, 9배 미만으로 밖에 장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전전의 공업 생산 수준을 1955년에 릉가하였는 바, 즉 중국에

서는 2배 이상으로, 파란에서는 4배 이상으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2배 이상으로, 웽그리야에서는 3, 5배로, 루마니야에서는 약 3배로, 불가리야에서는 5배 이상으로,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2배 이상으로 각각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체계와 자본주의 체계와의 생산 발전 속도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이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을 위한 무한한 공간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 제국주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질곡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의 생산 발전의 속도와 남반부의 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정은 명백하다.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집단의 통치하에 있는 남반부에 있어서는 민족 산업이 파멸의 일로를 걷고 있으나 우리 북반부에 있어서는 전쟁중의 혹심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례하면 1955년에는 국영 및 협동 조합 공업 총 생산액은 1949년 수준을 56% 릉가하였으며 1956년 말 현재로 2배를 릉가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 바 이것은 물론 쏘련을 선두로 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원조에도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제도 자체의 우월성 때문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물의 형식은 그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면서도 동시에 그 내용의 변화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야 말로 사물과 현상들의 발전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와 함께 형식의 변화도 발생되는 것이다.

내용의 변화가 일정한 단계에 가서 그 형식의 변화를 가져 오는 원인은 발전 과정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간에 모순이 발생됨과 관련되여 있다. 웨.이. 레닌은 형식과 내용간의 문제를 특히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실례》로 취급하면서 《…내용의 형식과의 및 그 반대의 투쟁 형식의 리탈 내용의 변질》(《철학 노트》 947년 판 113페지)이라고 말하였다

형식과 내용간의 모순은 사물과 현상들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다. 모든 사물과 현상들은 부단히 운동, 변화 발전하는 바 어떤 사물이 운동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 자체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 례하면 생산 방식에 있어서 생산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나 생산은 부단히 진행된다. 생산이 부단히 진행된다는 사실은 동시에 생산 방식의 내용을 이루는 생산력의 부단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 방식의 형식으로서의 생산 관계는 일정한 기간 변화하지 않는다. 례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생된지 이미 오래였으며 그 동안 생산력에 있어서는 거대한 변동들이 있었지만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물과 현상들에 있어서 그 내용은 부단히 변화 발전하며 그 형식은 일정한 기간 변화하지 않는 데서부터 발전된 내용과 기존 형식과의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된다. 왜냐 하면 내용이 변화된 조건하에 있어서는 일찌기 내용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놀았던 낡은 형식도 이제는 점차 그 발전의 제동기로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과 내용간에 존재하는 모순은 어느 때나 그 형식이 내용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례하면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생산력의 선차적인 변화의 기초 우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모순은 부단히 발생하나 이 모순은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지도하에서 인민 대중들의 의식적 활동을 통하여 발전된 생산력 수준에 생산 관계를 적응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되여 간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결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근본적으로 생산력 발전의 질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쏘련이나 인민 민주주의 제국들에 있어서 생산력 발전의 속도들이 증시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완전히 적응되면

서 생산력 발전을 위한 무한한 여지를 열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간의 모순과 《불적응》 혹은 《갈등》을 동일시 하여서는 안된다. 형식과 내용의 《불적응》은 형식과 내용의 모순이 내용의 선차적인 발전의 기초 우에서 장성되면서 그 형식이 내용의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될 때에 발생한다.

례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발전의 초기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으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완전한 적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도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자본주의적 형태간에는 성격상의 적대적 모순이 존재하였으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은 계속 존재하였다.

그것은 자본가들의 개인적 리해 타산에서 오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일정한 제한성, 생산력의 구성 요소인 로동자들의 생산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취행의 상실 등등에 표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그 당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일정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의 존재는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발전의 초기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적응을 배제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불적응》과 《갈등》이 표현된 것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 였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태내에 있어서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은 점차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배태하고 있는 생산력 발전의 공간을 탕진하고 축소시켜 가면서 주기적인 공황의 습래, 실업'군의 발생 등등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심각한 《갈등》을 가져 오면서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지 않는 것으로 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이 기본적으로 적응되여 있는 경우에도 그 안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으며 동시에 내용과 형식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내용과 형식간의 완전한 《불적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의 형식과 내용간의 《불적응》은 그들 간의 모순이 심각화된 일정한 단계에서, 즉 사물의 일정한 형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발전을 위한 여지가 내용의 발전에 따라 축소 탕진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바 이 때에는 발전된 새로운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며 형식은 내용의 발전의 추동력으로부터 그 반대물인 질곡으로 전화된다.

이와 같이 하여 발전된 새로운 내용과 낡은 형식간에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은 낡은 형식을 발전된 새로운 내용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심각한 모순과 《갈등》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부화자인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해결되며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어서 존재하는 일정한 내용과 형식간의 모순은 그 모순이 장성하여 심각한 갈등에까지 이르기 전에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하에서 해결된다.

이와 같이 하여 사물의 형식과 내용간의 상호 관계의 합법칙성을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사물의 형식과 내용은 내용의 결정적인 역할의 기초 우에서 상호 작용하는 바 새로운 내용과 낡은 형식과의 모순은 낡은 형식의 새로운 형식에 의한 교체의 방법으로 해결된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 또는 사유의 령역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물과 현상들의 형식과 내용간의 호상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이다.

물론 사물의 내용의 발전에 따르는 낡은 형식의 새로운 형식에 의한 교체는 단꺼번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또는 점차적인 방도에 의할 수도 있다. 그것은 사물 자체의 본성과 그

교체가 이루어 지는 조건들에 의존한다. 례하면 생물계에 있어서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에로의 이행은 중간적인 단계를 거쳐서 변종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실현된다. 또한 생산 방식의 발전에 있어서,례하면 10월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교체는 일거에 부르조아지의 소유인 생산 수단에 대한 수탈을 통하여 실현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교체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례하면 오늘날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간적인 반(半) 사회주의적 형태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례하면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생산 관계의 변화는 단꺼번에 제3형태로 이행하는 방식과 1형태와 2형태와 같은 중간적 형태를 거쳐서 실현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국가 주권 형태의 교체에 있어서도,례하면 10월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는 부르조아 림시 정부를 일거에 파괴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새로운 정치적 조직 형식으로서 쏘베트 주권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프로레타리아 혁명 발전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정권을 잡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조아 국가 형식을 파괴하지 않고,즉 군대나 경찰과 같은 인민 억압 기관들은 파괴하고 의회, 보통 선거 제도와 같은 것은 계속 리용하면서 점차로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국가 조직 형태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그것이 낡은 계급 사회로부터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적인 단계에 속하는 만큼 낡은 사회에 있어서의 일정한 형식들이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에 복무할 수 있다. 례하면 화폐는 낡은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에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기능,즉 내용은 본질상 변화되여 있는 바 이미 화폐는 자본주의하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불불 로동을 점유하는 수단인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으며 상품 생산과 상품 류통에 대한 계산과 통제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또한 세금이나 임금과 같은 것도 낡은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여 있다. 례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세금은 본질상 국가 예산을 통하여 부르조아지가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착취하는 한 형태로 되고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국가 예산의 일부분으로 되면서 전 인민적 수요에 충당된다. 또한 제국주의하에 있어서는 임금은 로동력의 가격으로서 그것도 다른 상품의 가격과 달라서 가치 이하로 되는 것이 보통이며 착취자와 피착취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조건하에 있어서는 국가로서 대표되는 사회 전체와 개별적인 근로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사회적 생산물 중에서 근로자들이 그들의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서 차지하는 화폐 형태로 표현된 몫이다.

* *

형식과 내용의 이와 같은 객관적인 합법칙성을 우리들은 모든 사회 생활의 령역에 있어서 목적 의식적으로 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물과 현상들에 있어서 그 형식과 내용의 상호 관계는 우리들의 주관적인 희망에 의존하지 않는 이와 같은 객관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과정이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실현되는 만큼 사회 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내용에 대한 형식의 배합은, 혹은 자연 생장적으로, 혹은 목적 의식적으로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거쳐서 주어진다. 례하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 있어서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하에서 농민들의 투쟁을 통하여 농촌의 농업 생산력에 사회주의적 형식이 부여된 것이며 우리 당의 조직적 구조도 당원들의 총의에 기초하여 당 대회에서 규약을 채택하고 당 활동에 부여된 형식이다.

이 사실, 즉 사회 생활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내용에 형식이 주어 질 때 그것이 인간의 활동을 거쳐서 실현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각이한 형식이 주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이 주어 져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어느 때에 있어서도 내용과 형식의 상호 작용은 존재하며 내용에 적합하게 주어 진 형식은 내용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반대로 내용에 적응하지 않는 형식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내용의 가일층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례하면 예술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우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 사상적 내용과 예술적 기교와의 상호 관계를 정당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리론적 기초로 된다.형식주의자들은 예술에 있어서 예술적 기교에 대하여 일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예술을 현실 생활로부터 분리시키며 예술의 내용에서부터 선진적 사상을 거세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모든 내용 일반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사상적 내용은 예술 작품에 있어서 일차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그 사상적 내용에, 당성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술의 형식, 예술적 기교도 예술 작품의 운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노는 바 일단 예술의 사상적 내용이 결정된 다음에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 하면 예술의 사상적 내용은 예술적 형식의 도움 없이는 사람들에게 작용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작용의 심도는 예술적 기교의 우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고상한 사상적 내용과 예술적 기교를 결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우리 당의 이러한 요구는 문학 예술 일'군들과의 접견 석상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에 명백히 표현되여 있다. 《예술성으로 더욱 강하여 진 사상성——이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든지 유일하게 정당한 법주입니다》(《김 일성 선집》 제4권 32페지).

우리 당 활동의 전체 력사는 우리 당이 내용에 대한 형식의 의존성과 반작용에 표현되는 내용과 형식의 상호 제약의 객관적 법칙을 그 실천적 활동에서 솜씨 있게 리용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자기 활동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형식의 의존성과 형식의 반작용을 고려하여 내용의 발전에 광활한 여지를 주는 방향에서 모든 형식들을 내용의 발전에 적응시켜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농업 생산력 발전의 요구를 생산 관계의 변혁에 반영시킨 것이며 그 결과는 농업 생산의 급격한 앙양을 가져 오고 있다.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 이것은 8•15 해방후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 조선 인민이 창건한 새로운 사회—정치적 조직 형식이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 조선 인민의 투쟁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창건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의 원천은 그것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 발전의 요구를 완전하게 반영한 사회—정치적 조직 형태라는 데 있다. 그 위대한 생활력은 8•15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달성된 정치—경제적 및 문화적 제 성과에서,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에서, 전후 복구 건설의 빛나는 성과에서 남김 없이 증시되였다.

이 제도는 우리 나라 정치,경제, 문화 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진정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는 바 그것은 남반부의 파멸적인 상태와 비교할 때 명백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경각성 있게 수호하며 공고 발전시켜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국가 사업 질서, 당 생활 규범의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형식들에 대한 위반은 불가피적으로 그가 배태하고 있는 동원적,조직적 력량을 약화시킬 것이며 새형의 당의 창건자인 위대한 레닌이 강조한 바와 같이 형식의 연약성은 내용 발전에 있어서 장래의 중대한 전진의 가능성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당 생활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대중과의 련계 강화의 기본

조선 로동당 황해북도 위원회
부위원장 신 리 범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것은 우리 당의 본질, 당의 군중 로선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대중 지도의 기본 방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 대중이며 우리의 혁명 사업은 인민 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는 인민 대중의 사업이다. 이에 있어서 당은 인민 대중이 자기의 일정한 력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인민 대중의 정치적 수령이며 지도자이다. 당은 당 자체로서 인민 대중과 딴 그 어떤 리해 관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성심성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제기된 력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민을 조직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주관적으로 이러 저러한 임의의 과업을 인민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인민 대중 우에 올라 설 권리가 없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호령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으며 인민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당 사업의 기본 방법으로 한다.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것은 당이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리익과 요구에 알맞게 지도하는 기본 방법이다.

이것은 우선 력사의 창조자, 우리 혁명 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가장 잘 동원할 수 있게 하며 당이 자기의 지도에서 대중의 리익과 의사를 정확히 타산할 수 있게 하며 당 활동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러 저러한 오유와 결함을 제때에 방지 혹은 시정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당과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당원들과 당 지도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여 당의 모든 결정 실행에서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며 그들의 요구에 민첩히 대응함으로써 그의 실행을 보장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 및 당원들 속에서는 대중의 의견을 경시하는 주관주의, 그들의 절실한 요구에 제때에 대응치 않는 관료주의적 결함이 남아 있다. 이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며 당 결정 실행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당 앞에 제기된 거대하고 복잡한 혁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는 더욱 더 높은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이 요구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답을 주는 사업은 그것이 그 어떤 특별한 시기적 깜빠니야 사업이거나 혹은 추상적인 사업인 것이 아니라 우리 당과 정부 정책, 당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제 투쟁의 전 행정을 관통하는 사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의 모든 정책은 인민 속에서 나오며 그것이 인민 속에 침투되여 인민 대중 자체의 결정으로 되며 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당은 대중의 풍부한 지

혜와 경험을 통일 집중함으로써 정확한 정책과 정확한 령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는 당의 일관된 요구를 옳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당 상급의 결정, 지시 실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대중과 더불어 상론하며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들으며 대중의 지혜와 경험에 의거할 대신에 그를 무시하고 지도 일'군들의 주관적 견해와 혹은 당 상급의 결정 지시를 복사하여 내려 먹이고 있는 데서 표현된다.

우리 당 단체들에서는 당 상급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 회의 및 군중 회의들이 진행된다. 그러나 그 회의들에서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진정한 의견과 비판적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려 하지 않으며 대중의 진실한 발언까지 함부로 막음으로써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의견들이 억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서흥군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결산 선거 이후 전원 회의 및 상무 위원회들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소집되고 있으나 그 회의들에선 책임 간부들이 독판치며 위원들과 열성자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신중히 청취 또는 숙고함이 없이 덮어 놓고 《내용이 없다》느니 또는 《들어 볼 것이 없다》느니 하면서 형식상으로 몇 사람에게 토론 연단을 빌려 주거나 혹은 아무런 토론도 없이 위원장의 훈시적 연설로써 미리 준비했던 결정서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대중의 의견과 경험을 무시하고 채택된 결정은 모든 문제에서 항상 옳바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의 실현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자각성을 잘 발휘시킬 수 없다.

문제의 보다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며 당 열성자와 대중의 의견과 비판적 지적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문제 해결에 흉금을 털어 놓고 자기의 의견과 요구를 제기하도록 하며 그것을 정확히 총화하고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체적으로 토의한 결정 집행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대중 속에 침투하여 실정을 세밀히 조사 연구하며 대중과 더불어 상론하며 그들의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며 대중이 당 결정을 자기의 결정으로 인식 파악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 결정을 관료주의적으로 어데에서나 다 같은 방법으로 내려 먹이는 방법으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주관주의적 착오를 범하게 되며 대중과의 리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 황북도 당 산하 일부 당 단체들의 농업 협동화 운동 지도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력사 발전의 특수성과 농민들의 정치—사상적 준비 정도에 따르는 객관적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전체적 범위에서의 일반성만 내다 보고 그 지방 특성 및 농민들의 사상적 준비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몇몇 간부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협동 조합을 조직 및 통합하며 그의 형태를 규정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례하면 황주, 린산군내 일부 리'급 간부들은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그들의 의견을 신중히 연구함이 없이 농업 협동 조합 조직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을 통합해야 《지도하기 쉽다》는 주관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조합 호상간의 리해 관계와 조합원들의 의사도 듣지 않고 되는 대로 신중성 없이 통합하려고 하였다. 또한 협동 조합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 준비 정도와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조합은 사회주의 경리니까 이왕이면 제3형태로 하자!》는 격으로 조합의 형태를 되는 대로 규정하여 내려 먹이려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대중 지도에 있어서 이러한 관료주의적, 주관주의적 경향은 대중과 리탈하며 당 정책 실현에서 외곡을 초래케 하는 위험한 현상인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대중을 정확히 령도하려면 대중의 실재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대중의 요구에 더욱 민첩하여야 하며 대중의 경험과 대중의 의견에 대한 조사 연구를 떠나서는 어떠한 천재적 지도자도 옳바른 지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당 사업에서 대중과 의논하며 대중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우선 대중의 무진장한 지혜와 창조력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고자대한 관료주의적 병에 걸린 일부 동지들은 대중의 재능, 창조력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일'군들은 대중 속에서 새로운 창발적 제의가 나오면 그것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제는 기술자가 하는 일이요. 당신들은 일이나 하오》 하거나 혹은 《그것은 불가능하오》,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따지면서 억제하거나 형식적으로 접수하여 신중한 연구 없이 묵살하여 버린다. 례하면 만년 광산 지도 일'군들은 선광장 물 땅크 공사에서 250마력과 570마력의 폼쁘 2대를 한 곳에 설치하자는 로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독단적 주견대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결과 폼쁘는 서로 력량이 분산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므로 할 수 없이 막대한 로력과 자재와 자금을 랑비하면서 재 시공하였다. 오늘 우리의 선진적 로동자, 농민들은 자기들의 애국적 열성으로 많은 우수한 경험을 창조하며 창발적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에 말한 바와 같은 곳들에서는 대중의 풍부한 경험과 창조적 의견이 묵살되며 우리 사업의 전진을 굼뜨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항상 대중과 련계를 가지고 광범한 당 열성자들과 생산 선구자들에 의거하여 그들 속에서 새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평가하며 그것을 지지 발전시키며 일반화할 데 대하여 일상적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대중의 창조적 발의와 의견을 적극 지지 발전시킬 때에만 대중의 창조적 열성은 더욱 앙양될 수 있다.

물론 당이 당 결정 실행에 있어서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응하라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요구라 하여 옳거나 말거나 덮어 놓고 그에 추미하라는 것은 아니다.

군중 가운데는 핵심 분자가 있으며 그보다 각오 정도가 낮은 군중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수양과 정치 의식 정도에 따라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의견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밑으로부터의 의견과 여론이 제기되면 그것이 《어떤 곳에서》, 《어떤 층에서》,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가 또 《어떠한 긍정적 요소》가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 분석하지도 않고 정확치 못한 의견에 대해서도 《군중 여론이니 곤난하오》 하면서 당 결정 실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추미주의적 경향인 바 이는 당 사업에서 유해한 현상인 것이다. 당 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락후한 층의 목소리를 대중의 진정한 목소리와 혼돈하지 말아야 하며 핵심에 튼튼히 의거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정확히 료해하며 그에 의거하여 사업을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종합 분석하며 다시 대중과 상의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체계적이며 정확한 것으로 성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군중 가운데서 그릇된 의견이 나왔을 때에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이 듣고 그들을 인내성 있게 해설 설복하여 옳게 납득시키는 것이 당 단체와 지도 일'군들의 의무인 것이다.

당 정책 실행에서 대중의 요구와 의견에 민첩하며 그의 요구와 근본적 리익에 부합되게 사업을 조직할 때만이 오유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 대중과 련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결정 실행에 대한 검열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검열 사업은 대중 속에 침투하여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들으며 대중 생활을 연구 분석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 검열은 만일 당 결정이 잘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어데 있는가, 그 결정이 대중의 리익에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리익에 맞는 정당한 결정인 데 대중의 각오 정도가 그의 요구에 도달되지 못하였는가? 혹은 당 결정 실행에서 지도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 작풍에 의하여 초래된 것인가? 등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결함과 오유를 제때에 시정하여 당 결정의 정확한 실행을 보장함으로써 대중과 련계를 강화하도록 지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도 일'군들은 검열에서 당원 대중과 비당원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며 그들의 요구와 의견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간부들을 대상하고 책상 우에서 문'건과 통계나 따지고 그들의 일방적인 말에 의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은파군 당 위원회 어느 한 책임 일'군은 유정리 운점동 농업 협동 조합을 담당하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를 지도하였으나 주로 관리 위원장만 대상하여 그의 말만 듣고 조합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그 조합 관리 위원장은 혹심한 관료주의자로서 조합원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령과 호령을 일삼으며 지어 자기 말에 순종치 않으면 책벌을 람용하며 폭행까지 감행하여 조합원과 리탈되였으며 또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조합내 건전치 못한 자들은 조합원들 속에서 리간을 조성하며 조합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시키며 조합내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함은 검열 당시에 조합내 대중을 인입시켰다면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와 같이 대중의 요구와 의사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는 관료주의적 작풍은 검열에서 결함을 옳게 볼 수 없으며 당이 대중의 요구에 제때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검열은 그것이 당 결정 실행 행정에서 제기되는 곤난과 결함들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과 의논하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검열에서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또 결함만 들추어 내여 욕설이나 일삼는 관료적 방법은 진실한 실정을 판별할 수 없으며 하부 일'군들과 광범한 대중의 입을 틀어 막게 되는 것이다.

검열에서 우로부터의 검열을 밑으로부터의 검열과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광범한 대중의 요구에 민첩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에 존재하는 결함 혹은 오유의 본질을 정확히 찾아 낼 수 있으며 그를 제때에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에 있어서 당 및 정권 기관 혹은 우리 출판 기관 편집국들에 제기되는 대중의 신소들을 신중히 연구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반관료주의 투쟁의 결과 당내 민주주의가 고도로 앙양되였으며 당원 대중과 비당원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적극성이 제고됨에 따라 당원들과 비당원 대중은 당 및 국가 생활에서나 간부들의 사업 작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제기하며 부정적 현상들을 보고도 묵과하지 않으며 상부에 신소와 비판을 보내고 있다.

우리 당은 밑으로부터의 제의와 신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적극 지지 옹호하며 그를 통하여 자기의 정책 실행 정형을 검토하며 간부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밑으로부터의 제의와 신소를 귀담아 듣지 않으며 그를 연구 분석하여 제때에 정확 신속히 해결할 대신에 관료주의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일'군들은 대중의 제의와 신소가 제기되면 《간부를 중상한다》느니 《부당하다》느니 하면서 《간부를 불신임하는 자유주의 분자》 혹은 《불평 분자》라는 감투를 씌워 억누른다. 이와 같이 대중의 제의와 신소에 대한 직접적인 억압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일'군들은 당 회의와 군중 회의에서 비판과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전개할 것을 빈번히 호소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비판을 달갑게 접수하지 않고 있다.

대중의 신소——이는 인민 대중의 진정한 목소리의 반영이다. 물론 대중의 신소가 문제에 대한 리해 정도와 혹은 인식상 착오와 감정적

동기로부터 진실보다 과장 혹은 외곡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당 기관들과 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신소에서 본질을 찾아 낼 줄 알며 정확한 동기에서 출발된 비판적 지적이나 그와 반대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인내성 있게 귀담아 들으며 그중 합리적인 것은 대담하게 접수 실행하며 부정적인 것은 그것대로 고려에 넣고 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얼마 전에 장풍 토산군내 농민들로부터 인민 생활에서 하루라도 없어서 안될 《소금》이 소비 조합 상점에 품절되여 곤난하다는 여론과 신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었다.

도당 위원회는 이 문제를 도'급 상업 류통 기관에서 검토하고 해결할 것을 제기하였는 바 그들의 대답은 그 지방 주민들의 수요량의 소금을 계획대로 배정해 주었고 군에서 인수해 갔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였다. 그들은 책상 우에서 서류를 따져 보고는 대중의 요구를 분석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도에서 소금을 그 지방 주민들의 수요량대로 배정해 주었으며 군에서 인수해 간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 소비 조합 일'군들이 《매상고》에 눈이 어두워서 상인들과 개별적 농민들에게 도매를 해 버리였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중의 신소에 대하여 문서나 통계만 가지고 따지고 실정을 알아 보지 않고 그를 깔아 뭉갠다면 참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명백한 실례를 볼 수 있다.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현지에서 사람들과의 사업을 진행함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사무실에 앉아서 문'건 작성에만 얽매여서는 대중의 요구를 들을 수 없으며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됨이 없이는 대중 생활을 옳게 파악할 수 없으며 당 정책을 옳게 침투시킬 수 없으며 대중을 당 정책 실행에로 동원시킬 수 없다. 당 사업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당 단체들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될 수 있도록 대중 속에 많이 나가서 사업을 조직하며 광범한 당원 대중과 비당원 근로자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 군 당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문건 작성에 매달려 현지 지도에 거의 나가지 않거나 현지에 나간다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현상이 적지 않다. 또한 최근에 신계군 당 위원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당 위원장들을 월 15일 이상이나 군에 불러다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리'급 간부들이 절대 다수의 시간을 회의와 오고 가는 행로에서 허비하였다.

이러한 사무실적, 문서식 사업 작풍을 시정하고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 단체들의 중요한 투쟁 과업이다.

물론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준비 정도와 그 일'군이 현지에서 사람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지도 일'군들이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되고 인민 대중에 대한 옳바른 군중 관점과 태도를 가짐으로써만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옳게 받아 들일 수 있다. 자기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대중과 밀접히 련결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이며 또한 대중의 리익에 충실하며 대중에게 복무하며 대중 앞에서 책임지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믿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 당의 군중 관점이다.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당의 군중 로선을 견지하며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함이 없이는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

때문에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옳은 관점과 태도를 소유케 하며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간 지대에서 농업 협동 조합 조직 지도 경험

조선 로동당 함경남도 수동군 위원회
위원장 문 덕 홍

1. 농업 협동화 운동 초기의 군중 정서

수동군 당 위원회가 자기 관하 산간 지대 농민들 속에서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을 시작하던 초기에 많은 농민들은 그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다. 사실 농민들이 의문을 품을만 하였다.

지대적 조건이 우선 협동 조합을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작업할 만큼 유리하지 못하였다. 한개 행정 단위를 이루는 리라 할지라도 기나긴 산'골짜기를 따라 형성되였고 농호라 할지라도 그것은 협곡과 산비탈에 있는 경작지를 따라 2— 3리 씩 분산되여 독립 가옥을 이루었다.

이러한 불리한 지대적 조건하에서는 우선 분산된 농호들을 한 개의 경리 단위에 망라시켜 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한다는 문제는 곤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한 개 리에서 포전과 포전간의 거리가 먼 데는 근 50리도 되며 농호와 농호 사이가 먼 데는 30리도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합 조직과 운영에서의 곤난성은 더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지대 농민들 보다 이곳 산간 지대 농민들의 과거 경제적 토대는 빈약하였으며 그들의 영농 방법도 락후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숙전이라고는 거의 없고 대체로 화전 혹은 준 화전인 데다가 농구도 축력도 변변치 못하여 거의 원시적인 영농 방법으로 온 봄 파종하고 온 여름 김을 매도 밭을 제대로 가꿀 수 없었고 해마다 식량은 부족하였다。 해방전 이곳 농민들은 이러한 신세를 한탄하여 《석달 밭갈이에 온 여름 김을 매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화전 혹은 준화전 농사에 습관되여 온 이곳 농민들의 문화 정도도 낮았으며 그들은 비료의 실효에 대해서도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거의 백비하는 것이 보통이였다. 이러한 실정들이 확실히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 운영하며 또 그것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리한 점도 있는 반면에 협동 경리를 운영 발전시킴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었다. 그것은 분산된 개인 경리 농민들을 협동 경리에로 인입하기만 하면 알곡 증산을 위해서 척박한 토지를 규모 크게 개량하며 복구 보호할 수 있으며 농산 이외에도 수천 정보에 달하는 자연 방목지와 작잠림, 산뽕을 리용하여 축산과 잠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화목과 온석 생산을 비롯하여 멀구, 다래, 도토리, 약초 채취까지도 하여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그러한 풍부한 원천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였다.

거의 대부분이 화전이고 토지도 극히 척박함으로 알곡 생산만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난한 우리 군내의 실정에서는 다각 경리를 발전시킬 문제는 당시나 오늘에 있어서도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자연 사료 원천을 동원 리용하여 축산, 잠업을 발전시킨다는 문제는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 발전은 알곡 증산을 위해서 필요한 구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잠업과 기타 부업으로서 농민들의 현금 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과 잠업 기타 부업을 발전시키는 길은 알곡 증산을 위해서도 농민들의 현금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도 가장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옳은 길이였다.

그러나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을 시작하던 초기에 우리 군내 많은 농민들은 이러한 유리한 점들을 보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기에 산간 지대에서도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면 일도 더 잘 할 수 있고 수확도 더 거둘 수 있다고 해설하면 나 많은 농민들은 식구가 많으면 살림살이도 힘들어서 세간 내는 법인 데 항차 타집 식구까지 합쳐 척박한 토지로서 협동 조합을 하는 판에야 왜 일이 더 잘 될수 있으며 소출이 더 날 수 있겠는가고 반대하였으며 또 협동 조합에서는 로력만 잘 조직하면 여유 로력도 생겨서 부업도 할 수 있다고 해설하면 어떤 농민들은 석달 밭갈이에 온 여름철 매던 김도 그 사람이 그것을 맬러인 데 여유 로력은 무슨 여유 로력이 생겨서 부업을 한단 말인가고 믿지 않았다.

지어는 일부 농민들은 산'골짜기와 산비탈에 산재한 밭을 합쳐서 협동 조합을 조직하고 20리, 30리 길을 오르 내리고 하다나면 도리여 일할 시간조차 없겠다고 나무렸으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이 발전하는 것을 보아야만 자기는 조합에 가입하겠다 고 말하는 농민도 적게 있은 것은 아니였다.

물론 각성한 당원들과 일부 농민들은 산간 지대에서도 농업 협동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옳게 접수하였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수동군 당 위원회는 아무리 협동 경리가 우월하다 하여도 아직 사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농민들에게 지도 일'군의 주관적 욕망이나 사업상 의욕만으로써 농업 협동 조합 조직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군중들에게 확실히 리익을 주면서도 군중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 결과 대중과의 리탈을 가져오며 당의 군중 로선에 손상을 주는 그러한 해독을 우리는 이전에 종종 체험하였던 것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중들의 정서를 포착 연구하면서 농업 협동 조합 조직에로의 그들의 지향을 앙양시키며 달성한 성과로서 그들을 교양 설복하기 위하여 1953년 겨울 농한기에 전 군'적으로 우선 부업 협동 조합을 경험적으로 조직하였다.

2. 농업 협동 조합 건설을 위한 초기의 군중 공작 경험

많은 지방들에서 농업 협동 조합을 경험적으로 조직할 때 농민들의 각오 정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우리 군에서 동기 농한기를 리용하는 부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게 된 데는 일정한 목적과 지향이 있었다. 그것은 조합원들에게 부업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체험시켜 점차 농업 협동 경리에로 전환 발전할 지향을 가지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업 협동 경리를 통하여 당면한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에게까지도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보여 주자는 목적이 있었다.

물론 연구 없이 갑자기 조직한 부업 협동 조합들이 생산과 분배에서 만족하게만 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남들이 보잘것 없는 부업이라고 말하던 화목 생산, 원목 운재, 싸리 가공, 목탄 생산, 노점 결이, 심지어 산수 잡이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업 협동 경리에서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많은 농민들이 겨울철에 아무런 부업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부업 협동 조합원들은 적지 않은 수입을 얻어 식량도, 피복도 장만하였던 것이다. 이 사소한 성과는 결코 사소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체험한 부업 협동 조합원들은 년간 부업도 협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1954년 초에는 농업도 협동화하는 길에 들어 섰으며 다른 비조합원들도 혹은 부업 협동 조합 혹은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사소한 성과는 우리가 기대한 바와 같이 거대한 발전의 단서를 열어 놓았으며 1954년 말에는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대해서 반신 반의하던 일부 농민들까지도 농업 협동 조합에 인입되여 전 군 농호의 32%가 협동 경리에 망라되게 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갑자기 많은 농민들이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고 협동 조합이 량'적으로 급격하게 장성함에 따라 알곡 증산을 위해서도, 현금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도 축산과 잠업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었다. 여기에는 많은 곤난과 애로들이 있었다. 우선 가축을 구입할 자금의 부족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조합원들이 축산과 잠업 발전에 대하여 확신을 못가지고 동요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렇게 동요하는 조합원들을 설복할 수는 있었으나 당장 곤난한 생활 형편에서 가축을 구입하며 잠실과 잠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곤난이 있었다. 이 곤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당 위원회는 우선 조합원들이 소유한 몇마리 되지 않는 가축을 공동 사육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온갖 부업 원천을 다 동원 리용하여 계절 부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대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가져 왔던 것이다. 한분기 남짓한 동안의 계절 부업에서 축전 농업 협동 조합에서만 하여도 온석을 채취하여 역축 7두, 우차 8대, 쌀 14톤, 광목 270메터 구입하고도 조합 매호당 평균 34,000원, 1로력당 16,000원의 현금 분배가 차려 질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조합원들의 생활을 개선 안착시키면서 가축을 구입하며 잠업을 발전시킬 만한 여유를 가지게 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기술 실무적 대책과 방조를 예견하지 못하고 한갖 발전시켜 보겠다는 지도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으로부터 시작한 축산과 잠업이 농산에 비하여 순리롭게 진척되지 않았다. 실례로 성남 협동 조합 같은 데서는 공동 사육하던 돼지를 거의 60% 폐사시켰으며 축전 협동 조합 같은 데서는 공동 사육하던 누에를 근 30%나 폐사시키는 쓰라린 경험도 맛보았다.

이렇게 실패를 본 후에야 군당 위원회는 기술 실무적 방조를 받을 목적으로 도에 제기하여 축산과 잠업 기술 일'군의 파견을 보장받았으며 도영 목장과 잠업 실험장에 조합원들을 파견하여 견학 실습시키는 대책을 취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 잠업 전문 작업반도 조직하고 공동 사육 관리에 대한 엄격한 책임제를 확립하는 대책도 취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조합 건설을 위한 투쟁에는 이렇게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물론 지도 일'군들까지도 한때는 자신 만만하다가도 또 한때는 실망 기분을 품지 않은 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곡절을 겪는 행정에서 농민들을 실제를 통하여 설복 교양하면서 협동 경리의 발전에로 인내성있게 이끌고 나아갔다.

이것은 조합 건설 초기 당의 군중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면서 군중 공작에서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이며 교훈이다.

3.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하여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들이 그 우월성을 과시하고 급격히 량'적으로 장성함에 따라 군당 위원회는 조합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미의 문제로 인정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농업 협동 조합에 유능한 일'군을 파견하며 산'골짜기에 산재한 농호들로써 합리적으로 작업반을 조직하며 농촌에서 조합 핵심 진지를 강화하며 농산 외에 축산과 잠업을 발전시킬 확고한 전망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여 주는 문제들이였다.

군당 위원회는 간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중요한 직무를 담당한 당원들이라 할지라도 대담하게 그들을 농업 협동 조합에 파견할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당 위원회는 그 리에서 나온 간부를 그 리의 농업 협동 조합에 파견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군 농업부 일부 일'군들을 비롯하여 일부 리당 위원장, 리 인민 위원장 및 서기장 그리고 군내 유능한 일부 경제 일'군 등 30여 명을 농업 협동 조합에 파견하였다.

군당 위원회는 조합의 부기 계산을 방조하기 위하여 군내 기업소 경리 일'군들에게 개별적 조합을 책임적으로 지도케 하였으며 군'급,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개별적 조합들을 고정 담당시키고 지도케 하였다. 조합 간부 문제와 조합에 대한 지도 방조 문제를 이렇게 하여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농산, 축산, 잠업 등을 발전시키며 계절 부업도 잘 조직 운영하자면 작업반을 지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담하게 개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호가 분산된 조건하에서 한 작업반이 평균 38호이며 최고는 54호에 달하는 작업반 반장들에게 이전과 같이 매일 과제를 주어 작업케 한다는 문제는 포전이나 농호가 가지는 거리상 특수성만으로서도 불합리하며 기동적인 작업이나 창발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업반에 5일 과제를 주고 작업 반장이 매일 과제를 보통 10호 내외로 되고 있는 분조에 주도록 하면서 작업반에 일정한 권한도 부여하고 큰 작업반 반장을 부분적으로는 유급 일'군으로 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 결함도 있었으며 따라서 연구 검토할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작업반 조직은 우리의 실정에서는 적절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합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의 핵심 진지를 강화하는 문제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였다. 초기에 군당 위원회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을 치렬한 계급 투쟁으로 심각히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받아 들이면 그것이 성과라고 무원칙하게 생각한 데로부터 사실 일부 농민들을 지나친 권고로서 조합에 인입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 1955년만 하여도 누가 조합의 핵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왕왕 조합을 탈퇴하는 농민들까지도 있었다.

물론 오늘도 조직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였지만 사상적으로는 튼튼히 가입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합에서의 핵심 진지의 결여는 조합원들 호상간의 단결뿐만 아니라 조합의 조직 경제적 발전에도 큰 장애를 주었다. 특히 불순 분자들이 조합에 잠입하여 요언을 퍼뜨리며 표면상으로 조합의 핵심인체 하면서 성실한 조합원들을 박해하거나 빈농민들의 생활상 일시적 곤난을 리용하여 착취하려고 시도한 일도 있었다.

군당 위원회는 이러한 부정적 제 현상을 폭로 비판하고 가장 근면하고 성실한 조합원들과 제대 군인들로써 조합 핵심 진지를 대담하게 개편 강화하였다. 조합의 핵심 진지를 강화한 결과 오늘 조합원들의 호상 단결과 협조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조합의 조직 경제적 발전을 사상 조직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군당 위원회는 이 밖에도 일부 조합들에서 당면 빈농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데 대해서 보다도 지나치게 조합의 공동 축적에만 몰두하여 조합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현상과도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또 무원칙하게 조합의 규모를 확대하려 하는 등 조합 건설에서 일부 당 단체들이 범한 좌경적 오유와 혹은 우경적 오유와도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군당 위원회는 이와 같이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적 강화를 위하여 당면하게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공고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에게 산간 지대에서도 토지를 쟁취하며 또 토지를 복구 보호하여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며 자연 사료 원천을 보호하며 또 새로운 사료 기지를 확장 건설하여 축산, 잠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전망을 주기 위하여 조합별, 리별로 다양하게 경리를 발전시킬 전망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농촌 주민들 속에 철저히 침투시키기 위하여 당 단체 총회들에서는 물론 리민 총회, 조합원 총회, 사회 단체 회의들에서 참으로 신중하게 수차에 걸쳐 토의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군중 공작에서 대중의 생생한 창발적 제기와 지혜들을 집결할 수 있었으며 산간 지대에서도 능히 조합 발전을 위하여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신념과 결의를 굳게 할 수 있었다.

척박한 토지를 다루면서도 개인농 시대에는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던 곳에 작년만 하여도 협동 조합원들은 연 2천 5백메터에 달하는 제방 및 축담 공사를 실시하여 토지를 개량하고 복구하였으며 척박한 토지 600 여 정보를 옥토로 전환시켰다.

축산과 잠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귀중한 사료 원천들인 작잠림과 산뽕 그리고 자연 방목지들의 류실을 방지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1만 2천 여 메터에 달하는 토사 방지림도 조성하였다. 너무도 척박하고 황폐하여 알곡을 생산할 수 없는 밭들에는 새로운 방목지를 창설하였으며 749반보에는 새로운 상전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지난 해에는 우리 군내 산간 농업 협동 조합들의 물질적 토대의 축성에서는 일정한 전변을 달성하였으며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토지를 복구 보호하며 개량하기 위한 전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전 군내 경지 면적의 근 70%에 옥수수를 파종하였던 결과 알곡 생산은 국가 계획을 130% 초과할 것을 계획하였던 대로 기본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축산에 있어서도 사료 기지를 확장 구축하였으며 기술적 대책도 취하였던 결과 국가 계획을 소는 101%, 돼지는 252%, 양은 537% 각각 초과할 것을 계획하였던 대로 기본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작잠 및 양잠에 있어서나 기타 계절 부업에 의한 현금 수입 계획에 있어서도 조합원 매호당 평균 2만원을 계획한 대로 기본적으로 실행하였다.

알곡 생산이 현저히 증대된 결과 과거 개인 소농 경리 때에는 식량의 절대량이 근 50% 부족하던 우리 군내 형편에서 오늘은 식량 문제도 거의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으며 농산 이외에 축산과 잠업을 발전시킬 만큼 사료 기지 뿐만 아니라 대 소 54 개의 목장을 가지게 되였으며 적지않은 공동 잠실도 가지게 되였다.

이와 같이 협동 경리의 우월성은 오늘 산간 지대의 면모를 전변시키고 있는 바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까지 호상 단합하며 협력하려는 좋은 지향을 품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체험한 조합원들은 로동에 대한 새로운 자각적 태도로 진출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 군내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례년에 비하여 주작물 파종을 23일간이나 단축하여 완료하였으며 농작물에 대한 비배 관리도 례년에 비하여 2—3회 더 하였다. 비조합원들은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자극을 받으면서 자진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리하여 작년도에는 벌써 전 군 농호의 97%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던 것이다.

*   *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군당 위원회는 농업 협동 조합들을 가일층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하며 인민 경제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농촌 앞에 제기된 기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곡과 공예 작물을 증산하며 축산과 잠업을 계속 발전시킬 것인 바 농촌 앞에 제기된 새로운 과업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새해에 다음과 같은 과업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우리의 남은 과업에서 2—3년 내에 실현하여야 할 과업은 알곡 증산을 위하여 옥수수를 비롯한 다수확 작물을 보다 대대적으로 파종하며 또 일부 지역들에서 대마, 아마, 연초 등이 특별히 잘 되는 것을 고려하여 새해에는 이러한 지역들에 대마, 아마, 연초 등 공예 작물을 집중적으로 대담하게 재배하며 또 작년도에 축력을 기본적으로 해결한 조건하에서 1957년도에는 기본 역축을 완전히 해결하여 파종과 제초, 추수 등에서 인력을 축력으로 교체하며 매개 협동 조합들에서 축산과 잠업 발전을 위한 사료 기지를 보다 튼튼히 건설하는 데 있다.

특히 알곡 증산을 위하여 우리 군내 기후 풍토에 적응하며 단위당 수확고가 높은 새 종자를 대담하게 도입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알곡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알곡이 자급 자족되게 하며 나아가서는 알곡에서 여유를 가지게 함으로써 1957년에는 빈농민들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물론 우리는 다각 경리의 발전을 위해서 그의 원천을 계속 탐구 개발할 것이며 알곡 증산을 위한 토지 복구 개량 사업도 예견하고 있다.

자기 앞에 제기된 상술한 제 과업을 정치적으로 옳게 지도 보장하기 위하여 군당 위원회는 조합내 당 단체를 강화하며 당원들과 조합원들의 사회주의 의식을 각성 제고시키기 위한 계급 교양 사업과 농촌 경리 관리 운영에 대한 기술—실무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계속 추진시킬 것이다.

독자들의 편지

우리 공장 실정에 적응한 내부 독립 채산제

내부 독립 채산제는 기업소 경제 활동에 대한 엄격한 계산과 통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로력, 자재 및 화폐 자금의 정확한 리용과 생산 기술 및 로력 조직의 부단한 개선, 내부 자원의 적극적인 동원 리용에 대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며 내부 축적의 증대를 보장하는 중요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모든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서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방법인 독립 채산제를 기업소 단위로는 물론 그를 쩨흐, 브리가다 및 개별적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심화 발전시킬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지도와 방조하에 우리 나라의 일부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서는 전후 시기에 부분적으로나마 내부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고 그를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기업 관리 운영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부 독립 채산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얻은 우수한 경험들은 널리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계 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 채산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들과 자기 실정에 알맞게 적용된 특수한 방법들은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희천 정밀 기계 공장이 자기 실정에 적응한 내부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과 앞으로 내부 채산제를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공장에서는 수백종에 달하는 제품들과 부속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다종 다양하며 그에 따르는 부기 계산 통계도 비교적 복잡한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우리가 지난 기간에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원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며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며 내부 축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소 독립 채산제를 공장 내부 채산제에로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더욱 개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매개 쩨흐들에서 계획화를 현저히 개선하며 기술과 생산 공정을 개선하며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며 매개 로동자들을 자재 및 자금의 합리적 리용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 추동함으로써 생산 계획 수행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공장의 각 쩨흐들에는 내부 독립 채산제에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조건들이 구비되지 못하였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내부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우리는 쩨흐 독립 채산제에로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종전에 쩨흐비, 사업비 등 금액상으로만 주던 것을 물량상으로 주고 그를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로임 폰드 및 로력을 기대당 도급 정량에 근거하여 기술 경제적으로 측정하여 주며 생산 계획을 금액상, 시간상으로 줌으로써 각 쩨흐들에서 이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쩨흐 예산제를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절약 또는 내부 예비 동원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에 기초하여 원단위 소비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동시에 기자재 공급 체계를 개선 강화하였다.

그리고 내부 채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인 내부 독립 채산제의 과업 및 방법을 전체 일'군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설 침투시키는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즉 내부 독립 채산제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문제들과 부기 계산 통계 등 실무적 처리 절차를 일'군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기업소의 시설, 설비, 기구, 자재 및 자금의 상태와 그의 운영 내용 및 절약 원천 등을 내부 독립 채산제와 결부하여 해설하여 줌으로써 쩨흐 독립 채산제 실시를 위한 일'군들의 사상적, 실무적 소양을 배양하는 데 많은 힘을 경주하였다. 그리하여 쩨흐 채산제 실시에 관한 규정과 그의 지표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줌으로써 매개 일'군들이 내부 독립 채산제를 실시할 경우에 자기들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료, 동력, 운수 등 보조 생산 쩨흐로부터 제공 받는 비용과 공구, 기구, 지구 등 보조 자재에 대한 계획 원가를 재정하며 각종 재료의 평균 루진적 소비 기준과 설비 능력 등을 정확히 규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공정 단위가 복잡하고 그에 따르는 사무가 잡다한 우리 공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쩨흐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계산 통계 및 분석에 필요한 시초 문건들을 위시하여 공정별, 품종별로 되는 부기 계산 체계를 확립하였다.

내부 독립 채산제 실시를 위한 이상과 같은 준비 사업을 거쳐 1956년 4월부터 우리 공장의 가공, 단조, 주물 열처리 등 각 쩨흐들에서 내부 독립 채산제가 실시되였다.

그러나 각 쩨흐들에서의 부기 계산 일'군들의 부족과 그들의 실무 능력이 낮은 데로부터 내부 독립 채산제가 가지는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었다. 각 쩨흐들에서는 내부 독립 채산제에 상응한 부기 계산 통계 사업의 보장을 위하여 해당한 일'군들의 증원을 요구하게 되였다. 그런데 부기 계산 일'군들을 증원하는 것은 내부 독립 채산제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우선 기본 생산 쩨흐들에 한해서만 부기 인원을 배치하고 통계원, 정량원, 검사원들은 쩨흐내에서 이를 양성하는 방향에서 실무 강습을 조직하였다. 특히 당 단체들의 지도 방조하에 각 쩨흐의 부기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그들의 실지 사업 행정에서 제기되는 부기 계산 방법들과 경험들을 호상 교환하기 위한 집체적 강습을 조직 진행하였다.

결과에 우리 공장 각 쩨흐들에는 내부 독립 채산제를 정확히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보장되였으며 일'군들의 실무 능력이 현저히 제고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내부 독립 채산제는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쩨흐 책임자들은 내부 채산제 단위의 직접적인 지도자로서 지배인 명령에 의한 생산, 로임 자재 계획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자립성을 가지고 계획 과제 수행을 위하여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였다.

기업소 관리측에서는 그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보장하면서 내부 독립 채산제 단위 호상간의 원료, 자재 등의 공급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며 쩨흐 호상간의 용익(用益)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내부 독립 채산제 단위 호상간의 용익과 손실을 서로 구분하고 이를 해당 쩨흐에서 공제 첨가하는 확인제를 실시하게 되였는 바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생산 행정에서 야기되는 오작 손실의 책임 소재를 구명하며 공장 내부의 생산 발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계획 원가와 실제 원가를 각 쩨흐별로 호상 대조, 분석 통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원가를 계획적으로 저하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쩨흐 채산제의 실시는 일'군들에게 생산 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로력, 물자, 화폐 자금의 절약을 자극함으로써 기업소의 전반적 기업 관리 운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례로 단조 직장 전 기선 동무는 지난 8월 한달에만도 소재 절단에서 기술적 규격을 엄수함으로써 스프링 반도 볼슈 400개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소재를 절약하였으며 라 백학 브리가다에서는 소재 추대 작업을 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소재를 절약하였다. 그리고 박 순호, 최 윤기 동무들은 떼, 뻬사 작크조를 재작함에 있어서 종전에 환봉으로 하던 것을 공정을 일부 개선하여 그를 각형으로 단조하기에 성공함으로써 636, 69키로의 소재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내부 독립 채산제를 실시한 후 기준량이 부정확하거나 재료의 규격을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 사실들을 알아내게 되였으며 신품종에 있어서도 단시일내에 기준량을 재정할 수 있게 되였다.

쩨흐 독립 채산제의 실시는 계획 과제 완수를 위한 쩨흐 일'군들의 자기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쩨흐 채산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공장에서는 종전에 10—15일만에 로임을 계산하던 것을 매일별로 계산하여 매개 로동자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그들에게 그날 작업한 결과를 알려주게 되였다.

결과에 종전에는 로동자들이 작업 기준량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어데 있으며 또한 심한 경우에는 10—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자기의 작업 성과를 표현하는 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자

기의 로임을 당일로 알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 로동자가 자기의 작업 기준량을 못하였다면 그것이 곧 로임 계산에 표현되게 됨으로 로동자들은 전날에 작업 정량을 수행하지 못한 결함을 다음 날에는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게끔 되였다.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이 이와 같이 제고된 조건하에서 우리는 매개 로동자들에게 자기들의 작업 성과를 기록케 하며 또 그들의 작업 동태를 일목 료연하게 장악하기 위하여 시간당 생산 계획, 기계 가동 시간, 휴전 시간, 휴전 리유, 절약 과제 수행 정형 등을 표시하는 《나의 로동 실사 카트》제를 실시함으로써 매 기대당, 매개 로동자 별로 작업 정형을 기록케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은 이를 통하여 자기의 작업 성과가 직접적으로 로임에 반영되며 자기를 포함한 브리가다·제호의 물질적 리해의 원천은 계획 과제를 질적, 량적으로 완수하였을 때 형성되는 기업소의 리윤에 의한 지배인 기금과 증산 경쟁 운동에 의한 상금과 원료, 연료, 동력을 절약하고 제품의 실수률을 제고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여 해당 부문에 맡겨진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상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리고 제호의 생산 활동에서 원재료의 물량 계산을 계획 가격과 실적화를 대비함으로써 원가 저하의 정형을 수시로 알아내게 되였으며 오작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계산과 미성품에 대한 계산을 이전에는 평가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미성품을 평가하지 않고도 그를 계산할 수 있게까지 되였다.

우리 공장의 내부 독립 채산제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제품의 질과 량에 대한 계획 수행을 보장하며 부기 계산 및 통계 방식의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고 있다.

제호 채산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며 내부 축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호 일'군들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최소 한도의 지출로써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는 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이 더욱 앙양되고 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제호 일'군들의 관심은 제품의 량적 장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제품의 질 제고에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호 독립 채산제의 실시는 이와 같이 로동자들은 물론 제호 지도 일'군들의 계획 수행을 위한 경제 활동과 기업 관리 운영 사업 개선에 대하여 많은 자극을 주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업소 지도 일'군들의 지도 수준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기업소의 전반적 경제 활동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내부 질서와 제도를 강화하고 개인 책임 회피와 경리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을 근절케 하는 좋은 수단의 하나로 되였다.

내부 독립 채산제가 실시된 후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을 증대시키며 기업 관리 운영에서의 손실을 절약으로써 보충하기 위하여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였으며 로동자들은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함으로써만 자기들의 수입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였다.

제호 채산제는 이와 같이 우리 공장의 기업 관리 운영에서 관리 일'군들의 책임성과 자주성을 배양하며 경리 일'군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제호의 계획화는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는 바 각 제호의 계획은 생산물에 소요되는 지출과 소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생산의 장성과 제품의 원가 저하를 위한 과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립되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호들에서는 공구, 지구 기타 자재의 확보를 예견하지 않은 계획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게 까지 되였다. 그러한 실정에 비추어 기자재 공급 일'군들은 생산에 착수하기 1개월전에 공구, 지구 기타 기자재의 발란스를 내고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에 착수하기 10일 전에 공급 보장하도록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원가 저하 계획에 상응하여 기업소에서 절약을 위한 투쟁이 일상적 과업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제호 독립 채산제의 실시는 이상과 같이 우리 공장의 전반적 계획 사업에 보충적인 자극을 주었으며 계획 수립에 대중을 인입하는 데 방조를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장의 제호 독립 채산제는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더욱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장의 제호 독립 채산제는 우리 기업소의 전반적 독립 채산제와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동시에 자주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제호 채산제는 아직도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쳐야 할 결점들과 부족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공장의 계획 사업이 미약한 데 중요 원인이 있다. 년간 계획에 기초한 정확한 계획은 우리 공장의 경제 활동의 목표이며 일'군들을 이 목적 달성에로 인도하는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장의 보조 자재 계획 사업은 많은 경우에 생산에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 생산 제호들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계획 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보조 제호들에서는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내부 독립 채산제의 의의와 역할은 많이 감소되고 있다.

우리 공장 계획부에서 각 제호에 시달한 계획과 제호의 작업 실적을 일별로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난달 실적과 이달 실적을 대비 분석하여야만 개인별 작업 정량을 정확히 알아 낼 수 있으며 내부 채산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발견함으로써 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강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 사업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아직도 이러한 정도의 사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공구, 지구 등 보조 자재의 생산이 생산에 선행되지 못한 데로부터 그달에 소비한 보조 자재의 소비량을 기본 생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못하는 그것이다. 적어도 공구, 지구의 생산이 1개월간 생산보다 선행되여야만 그달에 생산된 생산물의 원가에 보조 자재의 소비량을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정확한 실적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제호 채산제에서는 이러한 것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생산 부문에서도 생산물의 계획 원가와 실적을 제때에 대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제호 채산제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화 분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하고 있다.

제호 채산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결함은 공정원 및 부기 계산 일'군들의 사업 수준과 역할이 제고되지 못한 데로부터 원단위 소비 규정을 엄수하지 않으며 창고에서 청출된 자재가 해당 생산물에 사용되지 않고 종종 다른 생산물 생산에로 이전되는 그것이다. 이것은 자재의 랑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기 계산의 복잡성을 초래함으로써 제호의 경제 활동을 계통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더우기 각 제호들에서는 자기 경제 활동에서 지출된 자재, 연료, 동력 등 일체 생산 비용을 각 품종별로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보조 자재들의 계산을 부정확하게 함으로써 제호 내부 채산제의 부기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결함과 부족점들을 퇴치 시정하고 우리가 이미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계획과 실적을 대비함으로써 원자재의 물량 계산, 오작품 계산, 미성품 계산을 정확히 하는 한편 생산, 로임, 원가 계획의 수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한다면 우리 공장의 내부 독립 채산제는 더욱 개선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공장의 전반적 계획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각 제호들에서 공정별로 세분화된 계획 원'가를 적시에 시달하여 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야만 각 제호들에서 품종별, 금액상으로 표시한 재품 생산고의 지표, 로력 및 로임 폰드의 계획 지표, 다른 제호의 용익에 대한 계획 지표, 설비 리용에 관한 비용과 기업소의 일반비와의 구분으로서의 제호비의 계획 지표, 설비 리용 시간과 작업 시간의 기준 지표 등 제호의 계획화를 보장함으로써 개별적 생산물에 대한 교대별, 공정별, 개인별 생산 계획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공장의 내부 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제호에서의 정확한 계획화와 아울러 그의 수행을 위한 제호 일'군들의 실제 활동을 정확히 기록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제호들에서 직장장을 비롯한 공정원, 정량원, 계산원, 부기원, 검사원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제호의 경제 활동 정형을 정확히 계산하여 어느 고리에서 리익이 나고 어느 고리에서 손실을 가져 오고 있는가를 일상적으로 밝혀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호 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은 공구, 지구 등 보조 자재의 생산을 생산에 선행시키도록 하는 문제이다.

우리 공장에서는 공구, 지구 등 보조 자재의 생산이 기본 생산과 병행되는 데서 때로는 일부 생산 공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돌격식 작업과 생산에서의 파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제호 내부 채산제의 강화 발전을 장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의 생산 조직의 불합리한 결과에 초래되는 현상이다.

생산 조직에서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퇴치 시정하여야만 공구, 지구의 수명을 기술 경제적으로 구명하고 공구 소모비를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시일내에 생산 조직을 합리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신 품종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생산 준비를 갖춘 다음 실지 생산에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계 조업률 저하와 불필요한 로동 시간의 투하를 방지할 수 없으며

각 職호들의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 발전시킬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우선 기술 관리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함으로써 기술적 준비를 갖추는 한편 공구, 지구 생산 부문에 월별 계획 대신에 분기별로 생산 계획을 주고 그에 기초하여 소재를 생산에 1개월간 선행시키기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업소와 職호간, 職호 호상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職호 호상간의 용익 제공에 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공장의 職호 독립 채산제는 職호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할 대신에 확인제로서 이를 대행하였다. 물론 이것은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제만으로써는 職호 호상간의 용익(用益) 제공에 대한 문제 기타 생산적 련계 강화에 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 공장 職호 채산제에서의 확인제는 개별 계약 제도와 비교할 때 기업소간의 용익 제공에 대한 문제와 손실을 끼치게 되였을 경우에 그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너무도 추상적으로 되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職호 호상간에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발로하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 발전을 위한 비판의 한 형태로서 내부 독립 채산제의 의의를 옳게 발양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공장의 職호 채산제를 참으로 각 職호간의 생산 발전을 위한 무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 량 지표, 인수도 기일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니는 개별 계약제에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공장 내부 독립 채산제 단위들에서는 이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 성숙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자재 공급 및 보관 관리 사업의 개선 강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재의 적시적이며 정확한 공급은 각 職호들의 생산 계획 수행을·보장하는 중요 조건으로 될 뿐만 아니라 기업소의 전반적 경제 활동의 성과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준다.

만일 생산 계획에 의하여 소요되는 자재를 원만히 공급 보장하지 못한다면 월, 분기, 년간을 통하여 품종별로 생산 계획을 수행할 수 없으며 시기적으로 소요되는 제품을 상대방의 기업소에 공급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비경제적 지출 위약금 지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의 경제 계획 수행을 방해하며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재의 공급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자재 취급 절차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원자재는 물론 보조 자재,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물량 표시에 의한 계획 지표에 의하여 정확히 공급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를 공급함에 있어서 물자 수급 계획서에 예견되지 않은 자재의 출고는 공정부 원단위 취급 부서와의 련계하에 일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그를 사정하고 계획부에서 검토한 후 업무, 부기, 지배인의 결재를 받고 출고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작 손실에 의한 자재 출고와 월말 職호들에서의 잔여 자재에 대한 취급 절차의 엄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지구의 관리 조직과 아울러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職호 독립 채산제를 브리가다 채산제까지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브리가다에서의 독립 채산제의 도입은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로동자 자신들의 제의와 브리가다 전체 성원들의 동의에 의하여 기술자들의 실제적인 참가하에 실현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브리가다 독립 채산제는 생산적 지출과 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브리가다 단위로 계산 보장함으로써 모든 지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브리가다 사업을 강화 발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기본 생산 職호들에서는 이미 브리가다에 생산 계획, 로임 계획, 기술 지표 등 계획 과제를 주고 그에 근거하여 경제 활동을 진행케 하고 있다. 이것은 브리가다 독립 채산제에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부분적으로 브리가다 독립 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경험을 쌓은 다음 전반적 브리가다 채산제에로 이행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내부 독립 채산제에 대한 일반적 방법을 우리 공장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며 그에 대한 선진 경험들을 창조적으로 섭취 도입하기에 노력한다면 우리 공장의 내부 독립 채산제는 더욱 심화 발전하게 될 것이다.

희천 정밀 기계 공장
부지배인 김 동 언

서적 해제 및 평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력사적 제 조건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몇 가지 명제들에 대하여》(《인민》 1956년 11월호)에 대한 몇가지 의견

리 석 채

오늘 우리 전체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령도하에 자기 앞에 제기된 간고하고도 복잡한 혁명적 과업——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 식민지였다는 사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량단되였고 우리가 아직 전국적으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과도기, 우리의 혁명 발전은 각별한 복잡성과 심각한 특수성을 띠게 되였다. 우리 혁명의 이와 같은 복잡성과 특수성들에 대한 연구는 거대한 리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 과학일'군들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를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원칙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분석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 발표된 송 예정 동무의 론문에서 우리는 일정한 견해상 차이——어떤 문제들에 대하여는 상당히 심각한——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견해상의 차이가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들이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을 심오하게 연구함이 부족하였고, 우리 당의 문헌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심오하게 연구함이 부족하였고,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은 리론적 수준에서 리해함이 부족하였고, 우리 나라의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함이 부족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고 유일하게 정당한 리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부족점들을 보충하는 방향에서 모두가 더욱 허심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며 호상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송 예정 동무가 제기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단편적인 의견을 서술하려고 한다.

1,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국가 주권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제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맑스—레닌주의적 리론, 관점, 방법에 튼튼히 립각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맑스—레닌주의는 자연 및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관한 과학이기 때문이다.

송 예정 동지는 《인민》 11호(1956년)에 발표한 자기의 론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력사적 제 조건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몇가지 명제들에 대하여》에서 모든 리론과 명제들은 력사적 규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명제도 초력사적, 초공간적으로 주어진 것이 될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 력사적 발전의 제 문제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어느 개별적 명제들 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명제들을 그들이 작성되던 때의 그 모양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혹은 그가 일정한 변이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인민》 11호 107페지 방점은 필자)라고 하였다. 동시에 송 예정 동지는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명제들을 이와 같은 립장에서 검토하자는 호소가 정치적으로 부당한가?》하고 자

문한 다음 《그렇지 않다》고 자답하였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송 예정 동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선 리론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옳지 않다. 더구나 송 예정 동지가 이러한 《검토》 사업을 《우리 당의 령도하에》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영생 불멸의 학설이며, 백전 백승의 학설이며, 우리 당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제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였으며 그 투쟁의 원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기본 원칙들을 교시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이 기본 원칙들, 기본 명제들은 어디까지나 항상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 기본 명제들이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상이한, 특수한 조건에서 상이한 특수성을 띠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 기본 명제들이 그 적용에 있어서 《변이》를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성은 그를 풍부하게 보충하는 특수성 가운데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관통한다. 특수성은 일반적 법칙을 배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체적, 력사적 조건들을 무시하거나 홀시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이러 저러한 기본 원리, 기본 명제들을 한 개의 고립적인 공식으로 만들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구체적, 력사적 조건, 특수성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나머지에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 명제들을 그 구체적, 력사적 조건, 특수성과 분리시키거나, 거부하거나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 명제들을 약화시키거나 비속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는 교리가 아니며 죽은 독단이 아니며 산 행동의 지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의 일반화의 기초 우에서 창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들, 기본 원칙들을 《검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나라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검토》와 창조적 적용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들을 《검토》하려 할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약화시키고, 비속화하고, 외곡하려는 온갖 시도들과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옹호하여야 할 것이다.

*　　　　　*

자본주의에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이는 력사적, 혁명적 전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령역에 있어서 거대한 혁명적 변혁이 수행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인민의 사상 의식에 있어서도 거대한 전변이 수행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혁명적 변혁의 철저한 수행은 다른 어떠한 독재의 주권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의 독재 주권만이 그의 전위 부대인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당의 지도하에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와의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가로 놓여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하나의 정치적 과도기가 상응하는 바 이 정치적 과도기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론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동일한 시기, 동일한 력사적 조건, 동일한 계급적 력량 관계, 동일한 제도, 풍습 및 전통의 조건하에서 수행되지 않으며 또 수행될 수도 없는 만큼 매개 나라의 로동 계급이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로동 계급의 국가 주권의 형태에 있어서나, 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구체적 방도와 속도에 있어서나 동일하지 않으며 또 동일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이러 저러한 독자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는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이를 천재적으로 예견하였고 아주 강조하였다.

맑스는 이미 1872년 암스테르담의 군중 집회에서 정권 쟁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꼭 같은 수단으로 이 목적이 달성 된다고는 결코 단언하지 않았다. 우리는 개별적인 나라들의 제도, 풍습 및 전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맑스, 엥겔스 전집 제1판 제13권, 제2부 669페지).

레닌은 일찌기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적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매개 민족은 이러 저러한 형태의 민주주의로써, 이러 저러한 형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써, 사회 생활 각 부면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러 저러한 템포로써 각자의 독자성을 나타 낼 것이다》(전집 제23권 58페지)라고 하였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레닌의 이 천재적인 명제가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형태로서 오늘 쏘베트적 형태와 함께 인민 민주주의 형태가 있는 바 이 형태는 여러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발생하였으며 매개 나라들의 구체적인 력사적,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특수성에 부합되게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이 《변이》를 당하였거나 이 기본 원칙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또 매개 민족이 아무리 자기의 독자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일반적 법칙성과 운동 방향과 일반적 원칙을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물론 그 정치적 형태에 있어서 매우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이에 있어서 본질은 불가피적으로 하나이니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이다》(전집 제25권, 385페지).

레닌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들 및 국가들 간에 민족적 및 국가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그런데 이 차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실현된 후에도 매우 오래 동안 지속될 것이다——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적 로동 운동의 국제적 전술의 통일은 다양성의 제거나 민족적 차이의 소멸(현 시기에 있어서 이것은 무의미한 공담이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기본 원칙들 《쏘베트 주권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옳게 변태시키며 그것을 민족적 및 민족—국가적 차이에 옳게 적응시키는 것과 같은 이 원칙들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전집 31권 72페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이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데 대한 사회의 성숙한 경제적 요구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이며 결정적 조건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중요한 공간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레닌이 활동하던 그 시기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력사적 환경에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 났다.

그러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이 명제가 오늘의 력사적 조건하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는가?

이 문제는 결국 오늘의 력사적 조건하에서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정확하고 확고한 인식은 비단 과도기 우리 나라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리해함에 있어서 직접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다 일반적으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문제는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의 필연성을 반영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의 론문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모든 바리안트에 적용하는 것은 교조적이고 부당하며 이 명제는 오늘의 력사적 조건하에서는 이미 무조건적으로 그 모양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인민》 11호 108페지).

송 예정 동지는 그 론거로서 첫째로는 이 명제 그 자체로서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를 념두에 두고 작성된 것인 데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있어서는 주권은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 될리 없다는 것과 (동상 108—109페지)둘째로는 국제적 발전에서와

국내적 발전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혁명의 평화적, 국회적 방법의 현실성을 띠고 나서게 된 현 력사적 시기에 이르러서 이 명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대하여서도 이미 무조건적으로 그 모양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을(동 상서 108페지)들었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사상과 리론의 기본 원칙은 특히 오늘 세계에서 부르죠아 독재의 강력한 반동적 관료 기구가 존재하며 발달된 군벌이 있으며 자본가들에게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는 로동 계급과 기타 피착취 대중이 있으며 국제 반동 세력이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갖은 책동과 발악을 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의 과도기임에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적용 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는 우선 **첫째로** 폭력——무장 봉기, 국내 전쟁, 수탈, 진압 등——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며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것만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리해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송 예정 동지가 자기 론문에서 부르죠아지에 대한 동맹 정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평화적 개조의 정책들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점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인민》 11호, 122페지 참조).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다만 착취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일 뿐인 것이 아니며 심지어 주로 폭력 행사인 것도 아니다》(전집 29권 386페지)라고 하였으며 또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낡은 사회의 세력과 전통을 반대하는 류혈적 및 비류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인 완강한 투쟁이다》(전집 31권 27페지)라고 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한다. 흐루쑈브 동지가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이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인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로동 계급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자들의 반항 정도에, 착취 계급 자체의 태도 여하에 달린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민주주의와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최고의 민주주의이며 새 형의 민주주의다.

둘째로 프로레타리아트의 부르죠아지에 대한 관계, 권력 행사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리해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다만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의 근절만을 자기의 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사'적 소유를 근절할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한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다만 자본가 계급만 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을 페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로동 계급이 정권을 쟁취한 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어려운 과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째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와의 질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에 있어서는 독재의 기능의 담당자가 두 계급, 즉 로동 계급과 농민이라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있어서는 독재의 기능의 담당자가 한 계급, 즉 로동 계급이다.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에 있어서는 로동 계급과 농민간에는 그 리해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다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있어서는 리해 관계의 유일이 있을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의 종국적 목적과 농민의 소사유적 경향은 일정한 모순——이는 물론 불상용적 모순이 아니다——관계에 처하게 된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있어서는 로동 계급이 자기의 종국적 목적에로 농민을 이끌고 간다.

송 예정 동지가 자기 론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정치적 령도》는 곧 언제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못한다. 이 주권은 우선 그 나라에서의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못하며 따라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소부르죠아적 사상 의식을 없애지 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근저를, 따라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근저를 근절할 과업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과 같이 로동 계급의 력량이 강대한 조건하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 주권이 실시하는 이런 저러한 변혁들이 아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 변혁이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길을 열어 주는 변혁이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여 주는 변혁이지 그 자체로서는 사회주의적 변혁이 아니다.

민주주의적인 제반 변혁들이 완수되면 이 주권은 불피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주권으로 전변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과도적인 일시적 임무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네째로 사회주의에로의 혁명 발전의 평화적 방법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없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는 문제와 결코 동일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교체는 무계급 사회에 의한 계급 사회의 교체인 바 이는 혁명적 비약이다. 그것은 보다 더 첨예하거나 혹은 덜 첨예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혁명은 언제나 혁명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국가들에 있어서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혁명 발전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없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고 그릇되게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의회주의》와 오늘 우리들이 개별적 나라들에서 국회적 방법을 리용하여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과는 다만 력사적 제 조건에 있어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제2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은 개량주의자들이였으며 수정주의자들이였다. 개량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종전에나, 지금에나 자본주의의 옹호자이다. 그들은 혁명을 거부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거부한다.

제2국제당、지도자들을 반대하는 레닌의 투쟁의 전체 력사는 그가 어떻게 온갖 공격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사상을 철저히 수호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개별적 나라들에서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말할 때 그것은 결코 혁명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계급들의 충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없이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나는 특히 송 예정 동지가 마치 맑스가 187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을 제외한 듯이 그릇되게 리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에서 《…1872년에 맑스가 낡은 부르죠아적 국가 기관의 철저한 파쇄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대륙에 국한시켰으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인민》 11호 109페지)고 하였다.

1870년대에 맑스가 구라파에서의 모든 진정한 인민 혁명의 전제 조건은 《관료—군사적 국가 기구를 파괴》하는 데 있다고 간주하였으며 이에 있어서 영국과 그리고 미국은 례외로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례외란 것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로동 계급이 당시 국회 내에서의 다수의 쟁취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이 례외로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결코 아니다.**

레닌은 1917년에 독점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세하에서 영국과 미국에서의 경찰 관료 기관의 장성으로 말미암아 맑스가 말한 이 례외의 설정은 해소되였다고 썼다.

그러면 송 예정 동지가 자기 론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과연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밟아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주권은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 될리 없으며 이 나라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서는 않되겠는가? (《인민》 11호 110페지 참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한다.

이 나라들에서도 역시 사회주의 건설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없이는 불가능하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불가피적이다.

우리는 우선 자본주의적 요소가 전연 없거나 거의 없는 락후한 나라가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국가의 지원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념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는 물론 그 나라의 혁명적 당, 그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로동 계급, 근로 대중 자체가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나라는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기술 경제적 지원하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이 나라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 나라에는 부르죠아지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로동 계급은 응당 존재하며 점차 장성될 것이며 그는 비록 수'적으로는 적지만 정치적 령도자로서 사회

주의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아 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나라에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전연 없거나 거의나 없는 만큼 로동 계급의 자본 계급에 대한 관계, 권력 행사만은 거의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이 나라의 주권은 응당 외래 독점 자본의 침략을 억제하며,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점차로 계속 확대 공고화하며, 인민 경제의 계획적 지도를 실시하며, 국내의 소상품 경제를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하게 인도하여 그를 점차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 나라 인민들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조직, 동원 고무 추동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외의 적들의 온갖 기도를 진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혁명적 대책들은 가혹한 투쟁을 통하여 수행되는 바 이는 단순히 로동 계급의 정치적 령도가 아니라 오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주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에서 《몽고 인민 공화국은 오늘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처하여 있으며 그의 주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아닌 바 그것은 거기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도 없으며 부르죠아도 없었고 오늘도 그와 같은 계급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긴 몽고에서도 새로운 로동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몽고의 인민 주권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동 상서—119, 120페지).

그런데 《새로운 로동 계급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몽고의 인민 주권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란 이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 새로운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하에서 일체의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을 박탈 당하고 자기의 로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여 자본가들에게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던 그러한 프로레타리아트와는 구별되는 로동 계급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 송 예정 동지가 이 새로운 로동 계급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할 수 없거나 부르죠아지가 없으니 이 새 로동 계급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주권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일 것이다.

쏘련의 물질적, 기술적 원조가 몽고 인민 혁명당 및 몽고 인민 주권의 옳바른 지도하에 몽고의 산업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로동 계급이 장성하고 있는 데 1947년에 이미 몽고의 로동자, 사무원의 수는 6만명이였다.

몽고 인민 공화국의 공업은 부단히 장성되고 있는 바 공업 생산량은 1940년부터 1953년에 이르는 기간에 270%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영 공업 생산은 290%나 장성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몽고에는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 탄광, 공장들이 건설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오늘 몽고 인민 공화국의 로동 계급은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고 있다. 공업 기업소들에는 사회주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 혁신자들 및 사회주의 경쟁의 발기자들의 대렬이 증가되여 가고 있다.

지난 제11차 유엔 총회에서 더욱 명백히 표현된 바와 같이 미국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무엇 때문에 몽고 인민 공화국을 그렇게 발악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몽고 인민 공화국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기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다음 송 예정 동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연 혁명의 평화적, 국회적 방법이 현실성을 띠고 나서게 된 현 력사적 시기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없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오늘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력량이 전 세계에서 한량 없이 장성하였으며 자본주의가 훨씬 약해진 조건하에서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은 근로 농민과의 동맹하에 인민의 압도적 다수를 자기의 주위에 단합시켜 반동적, 반인민적 세력을 격파하고 국회내에서 확고한 다수를 획득하여 이를 부르죠아 민주주의 기관으로부터 인민들의 진정한 의사의 도구로 전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나라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없이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송 예정 동지가 주장한 바와 같이 물론 국회가 인민의 의사의 대표자로는 되였지만 아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그 나라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때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아닌 그 국회가 송 예정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과연 어떠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고유한 기능으로 되여 있는 제 기능 중 적어도 그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직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아닌 그 국회가 이 시기에 이런 저러한 사회적 변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혁이 다 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직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 변혁의 근본적, 직접적 목적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주권이 수행하는 변혁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변혁은 사회주의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변혁이며 사회주의에로 더 용이하게 이행할 조건을 지어 주는 변혁이다.

만일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건설에로 들어 선다면 이 주권은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라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주권은 반드시 거대한 사회주의적인 혁명적 변혁들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이 혁명적 변혁들은 폭력적 방법이거나 평화적 방법이거나, 또 더 첨예하거나 덜 첨예하거나를 막론하고 심각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될 것인 바 이러한 혁명적 변혁들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없이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송 예정 동지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에 관한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를 사회주의에로의 모든 바리안트에 적용하는 것은 교조적이고 부당하며 이 명제는 오늘의 력사적 조건하에서는 이미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견해는 아주 그릇된 견해이다.

오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불가피성에 관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이 기본 명제는 결코 낡아지지 않았으며 맑스—레닌주의의 다른 모든 기본 명제들,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2, 우리 나라 과도기의 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를 말할 때 그것은 보통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정상적인 로정이다. 그런데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국가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들이 인민 혁명을 승리한 후 이미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원하에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이 조성되였다.

레닌은 공산주의 인터나쇼날 제2차 대회에서 락후한 나라 민족들이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 발전 단계가 락후한 민족들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전집 제31권 219페지)라고 하였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명백한 실례를 몽고 인민 공화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류형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산업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의 류형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옳바른 해명은 중요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정당하게 인식하여야 우리 나라 과도기의 특성들 중 일련의 중요한 특성들을 옳게 리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흘러 나오는 우리 당의 정책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에서 우리 나라의 과도기는 현재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인민》 1956년 제11호 113페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최 동화 동지도 이미 《경제 연구》 제2호에 발표한 자기의 론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비자본주의적 로정에 관하여》에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과도기는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동지들이 우리 나라의 과도기가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는 론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송 예정 동지의 론거는 8,15 해방의 시점으로부터 과도기의 시작에 이르는 기간을 볼 때 자본주의 우클라드의 비중이 극히 미약하였다는 것, 해방전 우리 나라가 일제의 독점적 식민지였다는 데로부터 우리 공업이 자본주의의 독자적 발전을 밟는 나라의 공업에 비하여 그의 발생에 있어서나, 그에서 실시되는 착취의 내용에 있어서나, 인민 경제의 전체의 발전에 남기는 그의 영향에 있어서나, 극히 중요하게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해방전 조선 공업에서 민족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 최 동화 동지의 론거는 일제하 조선 공업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은 되였지만 대규모의 기계 제조 공업이 결여되였다는 것,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생산적 기초로 되기에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도 미약한 것이였으며

극히 편파적, 기형적인 락후한 것이였다는 것, 일제하 조선 농업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낮았으며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 관계에 기초한 반봉건 착취 관계가 지배적이였다는 것 등이다.

나는 이 두 동지의 주장이 부당하며 해방전 우리 나라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과도기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류형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에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에도 여러 가지 바리안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인민》 1956년 11호 120페지 상단)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는 송 예정 동지가 자기 론문에서 말한 《전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로부터 자본주의를 전연, 혹은 거의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바리안트》(동상 112~113페지)와 최 동화 동지가 자기 론문에서 말한 《락후하였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국가가 인민 혁명에서 승리한 후 인민 정권하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산업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사회주의에로 전진》하는 바리안트를 념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다고 해서 그 나라의 과도기가 반드시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밟는 과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첫째로 반봉건적 사회란 벌써 그 나라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일정한 정도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되였음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로 식민지라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에 자본주의적 관계가 전연 혹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제국주의 시기,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기의 식민지들에서 일정한 정도로 근대적 산업이 발전되며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류형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밟는 과도의 류형인가를 해명하기 위하여는 우선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나라의 과도기와 과거에는 반봉건 식민지 사회였으나 일정한 정도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의 과도의 류형에 속하는 나라의 과도기간에는 어떠한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거의나 혹은 전연 없으며 봉건적 착취 관계가 지배적이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 조건이 거의나 혹은 전연 조성되여 있지 않다.

둘째로 산업 부르죠아지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거의 없다.

세째로 인민 혁명 승리 후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서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 기간에 봉건적 착취 관계가 청산되며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조건이 조성되고 로동 계급이 발생하고 장성하기 시작한다.

네째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인민 경제에서 압도적, 향도적 지위를 차지 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 때에 이미 로동 계급은 비록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근로자들의 선두에 서서 나아간다)소상품 경제가 지배적이다.

다섯째로 적어도 공업에서는 식민지적 편파성의 문제가 거의나 혹은 전연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반봉건 식민지 나라였으나 자본주의적 관계가 일정한 정도로 발전되여 있어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의 류형에 속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첫째로 농촌에서는 봉건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나 공업에 있어서는 이미 자본주의적 관계가 인민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놀 만큼 발전되여 있다. 농촌의 봉건적 관계에 있어서나 공업의 자본주의의적 관계에 있어서나 식민지적 착취 관계가 가중되여 있으며 인민 경제에는 식민지적 편파성이 혹심하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 조건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성되여 있다.

둘째로 민족 부르죠아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하며 로동 계급은 상대적으로 그 력량이 강하다.

세째로 인민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 서기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아주 짧다. 이 기간에 봉건적 착취 관계, 신민지적 착취 관계가 청산되며 동시에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네째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선 첫 시기로부터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향도적,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다섯째로 인민 경제——자본주의가 침투한 부문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에 깊이 뿌리 박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두 바리안트의 과도기의 본질적인 차이로부터 그 나라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당이 실시하는 정책들이 다르며 그 나라의 로동 계급, 근로자들이 실현하여야 할 과업들이 다르게 된다.

우리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흘러 나오는 특성과 비자본주의적 로정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보기로 하자.

첫째로 과연 우리 나라는 전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으로부터 산업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전연, 혹은 거의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거의 없었던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한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해방전에 우리 나라의 사회 총 생산액 중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좀 못되였다.

그러나 송 예정 동지가 자기의 견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보다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훨씬 미약하다》(동 상 113페지)고 한 것은 억설이다. 물론 절대량을 본다면 중국이 더 많다. 그러나 인민 경제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중국은 불과 17%정도였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발전 로정이냐 비자본주의적 발전 로정이냐를 문제로 삼을 때는 절대적 량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일제하 조선의 사회 총 생산물 중에서 공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못된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과도기가 곧 비자본주의적 로정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그 나라의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에 있는 바 이는 반드시 공업 생산의 비중이 그 나라 총 생산액 중에서 절반이 되지 못하더라도, 또 인민 경제에서 공업이 자립적인 공업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도적 지위는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에서 해방 직후의 조선 사회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로동 계급의 존재 (동 상서 111페지 방점 필자)를 들었다.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로동 계급은 해방 직후 어데서 생겨났는가?

이 강력한 로동 계급은 일제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리 조선 로동 계급은 이미 1920년대 중엽에 형성되였다. 엥겔스는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 근대적 공업 및 농업의 대규모의 발전만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존립에 항구적 성격을 부여하였으며, 그들을 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특수한 리해 관계와 특수한 력사적 사명을 가진 특수한 계급으로서 결성시켰다》(에프·엥겔스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로동 운동》 카·맑스, 에프·엥겔스 전집 제16권 제1부 287페지 로문판).

《조선 로동 계급은 그가 계급으로서 형성된 시초부터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서서 싸웠으며 특히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영광스러운 지도자로서 출현하였습니다》(김 일성).

1941년에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자의 총 수(공장, 건설, 운수 부문)는 81만 3천명이였다.

둘째로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후 우리는 쏘련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 밑에서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옳바른 지도하에 아주 짧은 기간에 북반부에서 제반 민주 개혁들을 가장 철저히 수행하고 사회주의에로 점차 이행하게 되였다. 이는 해방전 우리 나라에는 이미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이 상당히 조성되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째로 우리의 과도기의 특성의 하나는 과도기의 첫 시기부터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우리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의 여러 곳에서 해방후 과도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경제의 특성으로서 자본주의적 요소의 미약성을 강조하였다(《인민》 11호 111페지, 113페지, 116페지).

송 예정 동지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로 해방후 과도기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인민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그렇게도 미약하였다면 과도기 첫 시기부터 우리 인민 경제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어데서 생기여 났는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산업, 철도, 운수, 체신, 은행 등을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므로서 조성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과도기가 결코 비자본주의적 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네째로 우리의 과도기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는 민족 부르죠아지가 극히 약하다는 그것이다.

이 특성은 우리 나라가 과거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다는 것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특성이지 결코 비자본주의적 로정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적 관계가 거의, 혹은 전연 없는 그 나라에서는 도대체 민족 부르죠아지의 취약성 운운 문제가 제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리가 비자본주의적 로정이냐 자본주의적 발전의 로정이냐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한에 있어서는 민족 자본의 대 소가 그렇게 크게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결국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생산이 어느 정도로 사회화되였는가, 즉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 조건이(또한 동시에 부르죠아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얼마나 조성되였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 자본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어느 정도 자유롭고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계급적 호상 관계, 생산의 전면적 사회화 등 기타 그 나라의 인민 경제에 대하여 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생산을 사회화한다는 이점에 한해서는 민족 자본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에 의한 것이거나 본질적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다섯째로 우리 과도기의 특성의 하나는 우리 인민 경제에 깊이 뿌리 박은 식민지적 편파성이다.

이 특성도 역시 우리 나라가 과거 일제의 독점적 식민지였다는 데로부터 흘러 나온 특성이지 비자본주의적 로정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특성은 아니라고 나는 인정한다. 왜냐 하면 산업 자본주의가 거의 혹은 전연 없는 그곳에 적어도 공업에서는 편파성, 기형성을 운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동화 동지가 자기의 론문에서 《비자본주의적 발전 로정의 문제는 바로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는 문제와 실천적으로 곧바로 련결되여 있다》(《경제 연구》 제2호 92페지)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민 경제에서 혹심한 식민지적 편파성은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것이지 비자본주의적 로정 그 자체가 남겨 놓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당은 일제 통치의 결과로 우리 인민 경제에 깊이 뿌리 박은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로 우리는 기계 제조 공업이 결여되였다는 것과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전 우리 나라의 공업에 있어서 기계 제조 공업이 혹심하게 결여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계 제조 공업의 결여와 대기계적 생산의 결여와는 동일하지 않다. 해방전 우리 공업에서 기계 제조 공업은 심히 결여되였지만 그러나 그 공업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대기계적 생산에 기초하였다. 기계 제조 공업의 결여가 물론 생산의 전면적 사회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지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사회화되였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 조건이 상당히 조성되였다.

일곱째로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 조건과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와를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방전 우리 나라 경제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 조건은 상당한 정도로 조성되였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의 물질적—생산적 기초는 조성되지 못하였었다.

해방전 기형적인 식민지 공업은 우리 나라 자체내에서 사회주의의 물질적—생산적 기초로 되는 기술 수단을 재생산하는 데 거의 무력하였거나 매우 미약하였다 하더라도 대기계적 생산 그 자체는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 조건으로 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상의 모든 점으로 보아 나는 우리 나라의 과도기를 비자본주의적 로정을 밟는 과도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우리 나라의 과도기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류형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3. 우리 나라 인민 주권의 계급적 본질과 그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일정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에 발생하는 모순의 성격은 일정한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며 이 혁명의 성격은 그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는 주권의 계급적 본질을 규정한다. 주권의 계급적 성격에 의하여 혁명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권의 계급적 본질은 물론 그 주권의 계급 구성과 불가분리적인 련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주권이 어느 계급에 속하였는가 할 때 그것은 그 주권이 주로 어느 계급의 리해를 위하여, 어느 계급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주권의 계급적 본질이 변화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또 언제나 그 주권의 계급 구성의 외형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권의 계급적 내용, 그 주권이 수행하는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에서 우리 나라 인민 주권의 성격은 그의 성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는 바 우리 나라 인민 주권은 인민 민주주의 독재인 데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그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몇 개의 혁명적 계급들의 련합적 독재이라고 주장하였다(《인민》 11호 119페지).

송 예정 동지는 그 론거로서 첫째로, 우리 나라 혁명의 주되는 성격, 그의 당면 최대 과업이 기본적으로 불변한 것과(동상)둘째로, 《조선도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로정을 거쳐 사회주의에로 이전하고 있다》(동상 120페지)는 것을 들었다.

나는 오늘 우리 인민 주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로정을 밟은 나라에 있어서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나라의 과도기는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로정이 아니라는 데 대하여는 이미 우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혁명의 특성, 우리 인민 주권의 계급적 본질을 정당하게 리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의 호상 관계를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이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첫째로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분리적이라는 것,

둘째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필연적 요구로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의 수행과 아무러한 모순이 없으며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남반부 인민들, 특히 로동자, 농민과 광범한 소자산 계급에게 커다란 추동력으로 될 것이며 심지어 남반부의 일부 민족 자본가들과의 통일 전선의 결성을 방조하는 힘으로 될 것》이라는 것.

세째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국 통일의 현실적, 물질적 담보이며 결정적 력량이라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째로는 오늘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전체로서의 혁명 과업이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이라고 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다섯째로 북반부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적 모든 변혁들이 다만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의 테두리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권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전체 조선 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전체 조선 인민의 주권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량단되였고 남반부가 완전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주권이 오늘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주되는 기능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기능,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부 동지들이 우리 주권이 북반부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부차적인 모멘트에 불과하다(《민주 조선》 1956년 12월 28일 호 3면)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권이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을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지 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오히려 북반부의 민주 기지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주동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우리 주권이 오늘 프로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않는가 하는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 우리의 기본 임무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의 수행과 관계 없는 분리된 투쟁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곧 우리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이다.

물론 조선 민족은 하나이며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기본 임무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은 전체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과업이며 전체 조선 인민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결코 사회 경제적 변혁의 과업이 남반부 지역에나 북반부 지역에나 다 같이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반부에서는 이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남반부에서는 아직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 때문이며 우리가 남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우선 수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전국에 걸쳐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남북 조선 인민의 애국적 력량을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여야 하며 그 주구 리 승만 도당 반동 세력을 타도하고 우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이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이며 결정적 력량으로 되는 것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다. 북반부에서의 사

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곧 남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의 수행을 위한 투쟁이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과 남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는 분리할 수 없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나 남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나 모두 미제와 리 승만 도당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이며 이 투쟁의 종국적 목적은 우리 나라를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며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을 자유롭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자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복잡한 객관적 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이라고 하여 기계적으로 우리 주권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송 예정 동지는 자기 론문에서 《우리 주권이 수행하는 기능은, 우선 첫째로 반제, 반봉건적 혁명에 있어서의 반혁명 력량을 진압하며 그들로부터 조선 혁명을 수호하는 것이다》(동 상서 122페지)라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견해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혁명에 해로운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 인민 주권은 다만 반제, 반봉건적 혁명에 있어서의 반혁명 력량만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는 반혁명 력량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진압한다.

우리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수호 없이는 조선 혁명을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여 공공연하게 막대한 금액을 국가의 예산으로부터 지출하고 있는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 제국주의가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이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들을 파탄시키려고 온갖 음흉한 책동과 수단을 발악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한시도 경각성을 무디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송 예정 동지는 《우리 주권의 기능은 또한 조선 인민에게 반제, 반봉건적 사상과 나아가서는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을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유리시키며 조선 혁명의 당면 최대 과업의 수행과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유도하는 것이다》(동 상서 122페지 방점 필자)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 주권이 사회주의 건설에 우리 인민들을 고무 추동하고 조직 동원하는 기능이 완전히 도외시되여 있다.

우리 인민 주권은 남 북반부 인민들의 전체 애국적 력량을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혁명 투쟁에로 궐기시키며 북반부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고무 추동하며 조직 동원한다.

그 다음 송 예정 동지는 우리 인민 주권의 기능은 또한 《북조선 인민 경제의 민주주의적 개조와 그 기초 우에서의 계획적 발전을 조직하였고 오늘에 와서는 자기의 특수한 정책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조직하는 것이다》(동상 방점 필자)라고 하였다.

우리 인민 주권은 우리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조직 지도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평화적으로 개조하고 있다.

나는 특히 송 예정 동지가 부르죠아지에 대한 동맹 정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사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평화적 개조의 정책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부르죠아지에 대한 동맹 정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평화적 개조의 정책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 부르죠아지와 로동 계급 사이에도 그렇게 첨예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내부적, 적대적 모순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동맹은 어디까지나 투쟁을 내포한 동맹이며 이 투쟁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이 내부적 모순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평화적 개조가 아무러한 모순과 투쟁이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리고 부르죠아지에 대하여 평화적 개조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로 물론 조선 혁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불상용적인 모순은 전체 조선 인민과 미 제국주의 및 그의 주구인 리승만 반동 세력간의 모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반부에서 과도기가 시작되였다 할지라도 전체로서 혁명은 반제, 반봉건이며 혁명의 이와 같은 성격과 그에 해당하는 요구는 항상 강하게 전면에(동상 115페지)나서기 때문에 북반부에서는 《누가 누구를》하는 것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거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적대적 모순이 있을 수 없다거나 그것이 주되는 모순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주되는 모순은 역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모순이며 이는 적대적 모순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주권은 자기의 옳바른 정책으로 이 모순을 평화적 방법으로 점차로 해결하고 있다.

만일에 우리 인민 주권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의 주관적 의도는 여하간 그것은 불피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해를 주는,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기본 임무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의 수행에 해를 주는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이며 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미제의 침략 정책으로 인하여 국토가 량단되여 있으며 우리가 아직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전국적으로 완수하지 못하였고 미제가 남반부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조건하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것 만큼 이것이 이러 저러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민 주권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반부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반 변혁들이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인 상공업자들에 대한 평화적 개조의 정책을 우리의 기본 임무가 반제, 반봉건 혁명 수행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 *

우리 혁명의 복잡한 특수성과 관련하여 적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의 정당하고도 명확한 리론적 해명은 오직 우리가 더욱 진지한 태도로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우리 당 문헌,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이를 지침으로 우리 나라의 객관적 현실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 관점, 방법에 튼튼히 립각하므로써만 가능하며 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오 표

호 수	페 지	행	정	오
12	44	하단 12	비근로자들의	근로자들의
12	68	상단 8	117	107

좌 담 회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편집국으로부터

본 편집국은 일부 독자들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데 이를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견지에서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

편집국은 일부 독자들이 제기한 이 문제의 해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평양시내 각 대학 및 과학원 등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음에 그 토론 요지를 게재한다.

편집국에서는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작용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를 리해함에 있어서 우선 첫째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란 개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먼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란 어떤 것이며 그의 호상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제목을 설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데 이를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과 관련하여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편집국은 이상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독자들에게 토론자들의 견해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 또 설정된 문제 해명에서 일치한 견해의 중복을 피하면서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토론자들에게 문제의 어떤 한 측면에 대하여 주로 강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나씩 떼여 본다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토론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다 말하지 못한 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편집국의 이상과 같은 의도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의견 차이가 있는 토론자들의 견해들을 대비 종합하면서 문제를 고찰한다면 제기된 문제를 리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대하여

정 일 용

생산력의 성격에 생산 관계가 반드시 적응되게 된다는 것은 사회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에 대한 정확한 리해가 없이는 인류 력사 발전에 대한 과학적 리해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 혁명에 대한 정확한 리해, 특수적으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를 위한 프로레타리아 당의 정확한 정책에 대한 리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생산력의 성격에 생산 관계가 반드시 적응되게 된다는 이 사회 력사적 합법칙성을 리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선 생산력에 대한 문제의 해석에 국한하여 나의 토론을 전개하여 보기로 한다.

생산력이란 인간이 자기의 생활을 위하여 로동 도구를 리용하여 로동 대상에, 넓은 의미에서 자연에 작용할 때에 이루어 지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의 사회—력사적 범주이다. 따라서 로동 도구의 발전 정도, 인간의 로동 기능, 그 숙련 정도, 이것이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의 상태를 규정하며 생산력의 발전 정도를 규정한다.

그러면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란 어떻게 리해되여야 할 것인가?

생산력의 성격은 인간이 로동 도구를 리용하여 자연에 관계하는 데 있어 어떻게 관계하여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측면에 의하여 표현된다. 생산력 발전의 일정한 정도는 매개 시기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수준을 표현하며 이 생산력의 수준의 일정한 상태는 생산력의 성격을 규정한다. 생산력의 일정한 수준은 사회의 분업에 표현되며 분업의 상태는 생산력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의 상태는 소유 형태를 규정하며 이 소유 형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란 동일물의 각 측면인 것이며 이 각 측면은 생산 관계의 질적 측면과 그 질적 측면 내부에 있어서의 변화 관계를 규정하여 준다.

생산력의 발전은 이것을 한개의 량적 발전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것은 생산 관계가 생산의 질적 측면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한개의 량적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생산력의 변화 발전을 일정한 질적 표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질적 구분은 생산력의 구성 요인들의 상태의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또 그래서는 안되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의 방식에 의하여 구분되여야 한다.

생산력의 성격은 그것이 사회 분업의 상태에 표현되며 그것은 소유 형태를 규정한다는 것은 생산력의 성격이 사회 생산의 각 양식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변화 발전, 생산력의 성격의 변화 발전을 더 일반화하여 고찰할 때 우리는 산업 혁명전 시기와 산업 혁명 이후 시기, 즉 로동 도구의 자동적 체계로서의 기계의 발생전 시기와 후 시기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산업 혁명전 시기는 생산력이 자연적 인간의 제한을 벗어 나지 못하였던 시기이며 따라서 이 시기의 분업에는 이렇건 저렇건 자연적 성격이 부여되여 있다. 그러나 산업 혁명 후 생산력이 자연적 인간의 제한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을 때 분업의 자연적 성격의 마지막 잔재까지가 청산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과정은 완전히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생산력은 사회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회적 생산의 기계화, 따라서 사회적 생산의 모든 부문의 한 사회적 과정으로의 통합과 생산자의 모든 협애한 분업의 잔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맑스가 말한 인류의 전사(前史)가 끝난다는 그 물질적 조건을 리해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라는 문제를 리해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모든 사회적 개념, 범주를 리해하는 데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도식적인 리해가 철저히 배격되여야 할 것이다. 생산력의 성격은 그 수준에 표현되며 그의 일정한 수준은 성격을 규정한다. 따라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란 생산 발전의 일정한 계단들에서 생산력의 작용 과정에서 표현되는 각 측면들인 바 여기에는 어떠한 상호 배제하는 엄격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기계적인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또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여 문제의 정확한 리해를 가져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구분은 그것을 기계적, 도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회 생산의 발전, 사회 력사의 발전, 사회 혁명의 발전 과정의 정확한 리해를 위하여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생산력 발전이라는 동일물의 각 측면을 표현하는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박 영 근

생산력의 수준은 그의 발전 정도 즉 로동 도구와 그를 다루는 인간의 로동력의 발전 정도를 의미하는 바 생산력의 일정한 수준은 사회의 자연에 대한 정복 정도를 표시하여 준다.

생산력의 성격은 일정한 발전 정도에 있는 로동 도구와 그를 다루는 인간의 로동력과의 결합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산력의 성격을 생산력의 수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생산력의 성격 그 자체가 생산력 발전 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로동 도구와 그를 다루는 인간의 로동력과의 결합의 상태라는 것은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의 견지에서 본 로동 도구와 인간과의 결합의 방식과는 물론 구별되는 문제다. 인간이 생산 수단의 소유자로서 로동 도구와 결합되는가 또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그것을 박탈당한 처지에서 결합되는가 하는 문제는 곧 생산 관계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 된다. 그러나 로동 도구와 인간 로동력과의 결합을 생산 관계의 측면에서만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자연에 대한 관계로서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견지에서 볼 때 이 결합의 상태는 곧 생산력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 될 것이다.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로동 행정이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으며 또는 개별적으로는 안되고 사회적으로만 수행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로동 도구를 다루는 립장이 달라 진다. 즉 개별적으로 로동 행정을 수

행하면서 한개의 또는 여러개의 로동 도구를 개별적으로 다루는가, 혹은 로동 행정을 사회적으로 수행하면서 전 로동 행정에 참가하는 전체 로동 도구의 일부를 다루는가, 이런 의미에서 로동 도구를 사회적으로 다루는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생산력은 개별적 성격을 띠거나 혹은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 가령 원시 공동체 체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석창이나 궁시와 같은 극히 낮은 수준의 로동 도구를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로동 행정을 수행하였다. 생산력의 이와 같은 성격에 상응하여 원시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공동 로동, 평등 분배가 생산 관계의 기본 특징을 이루었다. 즉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원시인들에게는 공동 로동이 필요하게 되였으며 공동 로동은 생산 수단 및 생산물의 사회적 공동 소유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복잡한 기계 체계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생산이 광범한 사회적 분업에 의거할 뿐 아니라 한 공장 내에서도 수 많은 로동자들의 수 많은 생산 공정에의 참가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여기에서는 한개의 제품, 례하면 한대의 자동차를 어떤 개별적 로동자가 만든 것이라고 말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로동자들은 로동 행정에 사회적으로 참가하여 복잡한 기계 체계의 부속물로서 전 기계 체계의 일부를 다루게 된다. 생산력은 고도로 사회적 성격을 띤다. 이와 같은 생산력의 성격은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모순 충돌하게 되며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 광활한 활로를 열어 주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로동 도구 발달사상 새 단계를 이룬 기계 생산을 계기로 생산력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는 바 기계 생산 이전 시기에 있어서의 생산력은 개별적 성격을 띠였다면 그 이후 시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 체제들에서는 로동 행정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이에서 생산자들은 개별적 로동 도구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로동자들은 전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며 매개 로동자가 다루는 로동 도구는 전 기계 체계의 일부에 지나지 안는다.

생산력의 성격은 기계적 생산 이전과 이후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매 사회 구성에 따라서 또한 서로 달리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산력의 성격의 구체적 특성은 변화하며 그에 상응하는 생산 관계를 객관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생산력이 같은 개별적 성격을 띠였다 하더라도 생산력 수준이 개인 경리를 가능케 하고 잉여 생산물을 조성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원시 공동체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화했으며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가 변화된 생산력 성격에 적응하는 생산 관계로 나타나게 되였던 것이다.

결국 생산력의 성격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발달한 어떤 로동 도구를 로동 행정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물론 생산력의 성격을 생산 관계와 무관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통일체 속에서 호상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성격을 그 자체로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봉 흡

생산력의 성격은 주로 그 구성 요소의 하나인 생산 도구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

생산 도구의 성격은 주로 생산 도구가 인간에 의하여 생산에 도입되는 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 도구가 개별적 인간의 로동으로 생산에 도입될 때(도끼, 낫, 호미 등)는 사적 성격을 띠며 인간들의 집체적 로동을 통하여 생산에 도입될 때(기계 및 그의 체계)는 사회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생산력에는 사적 및 사회적 성격이 존재한다.

생산력의 수준이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지배의 정도이다. 따라서 생산력의 수준은 생산 도구의 자연 지배를 위한 완성 정도와 이에 상응하는 과학 기술 및 로동의 숙련 정도 등에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생산력의 성격은 그의 질적 측면을 표현한다면 수준은 그의 량적 측면을 표현한다. 따라서 량자는 동일한 생산력의 각이한 두 측면을 표현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그를 서로 불리시키거나 혼동할 수 없다.

생산력은 생산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지 못한다. 량자는 사회적 생산 양식의 각이한 측면을 표현하며 그것은 언제나 량자의 통일로서만 존재한다. 량자의 차이는 전자가 만일 주로 자연과의 관계를 대표하면서 그 내용을 구성한다면 후자는 주로 인간과의 관계를 대표하면서 형식을 구성하는 데 있다. 이것은 량자의 통일에서 전자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의 전 력사를 통하여 생산력의 성격은 두 번 변화하였다. 첫 변화는 원시 공동체 내에서 석기가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루워졌다. 석기는 비록 그것을 개별적 인간이 다룰 수는 있었으나 사'적 성격은 띠지 않았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생산을 개인별로 진행할 가능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였다. 석기의 극도로 낮은 생산력은 사람들에게 자연 및 맹수들과 단독적으로 투쟁할 가능성을 주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다만 집단적 사용에 의하여서만이 인간에게 생활 필수품을 주었다. 때문에 원시 공동체에서는 집단적 로동에 기초한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에 적응하여 소유의 공동 형식 즉 사회적 소유 관계—생산 관계가 수립되였던 것이다. 맑스는 《이 협동적 및 집단적 생산의 원시적 형은 모든 생산 수단의 사회화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 개인의 무력의 결과이다》(맑스 엥겔스 아르히브 로문판 1권 172페지) 라고 하였다.

원시 공동체적 생산 관계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한다. 그러나 원시 공동체내에서는 생산 도구가 그 원시성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을 놀고 결정적 역할은 인간의 집단의 힘이 놀던 그 시기까지만 소유의 사회적 형태가 생산력, 생산 도구의 사회적 성격에 적응하였던 것이다. 철기의 출현으로 생산 도구가 발전되여 그가 개인적 로동에 의하여 생산에 도입되는 것이 생산성을 더 높이게 된 그때에 가서는 소유의 사회적 성격은 생산력의 사'적 성격과 모순되게 되였으며 생산 관계의 교체를 요구하게 되였다. 다시 말하면, 생산 도구의 사'적 성격—생산력의 사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생산 관계, 소유의 사'적 형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원시 공동체적 생산 관계는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에 의하여 교체되였다.

그러면 생산 관계, 소유의 사'적 형태에는 노예 소유자적 형태 외에 봉건적, 자본주의적 형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왜 원시 공동체적 생산 관계는 보통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에 의하여 교체되는가?

그것은 생산력의 수준으로 설명된다. 원시 공동체의 붕괴기에 발전하고 있던 생산력의 아직도 낮은 수준은 직접적 생산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생산물을 노예적인 최저 수준에까지 저하시키는 조건하에서만 일정한 잉여 생산물을 짜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로 밖에 달리는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예 소유 사회에 있어서 부단히 발전하고 있던 생산력의 보다 높은 수준은 일정한 시기에 가서 소유의 노예 소유자적 사'적 형태와 모순되게 되였다. 왜냐 하면 노예 소유 사회의 소유의 사'적 형태는 그 사회 전원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노예 소유자, 즉 그 사회의 일부 성원의 사'적 소유에만 기초하고 직접적 생산자인 노예에게는 아무런 소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예 소유 사회 내부에서 부단히 발전하고 있던 생산력은 그의 사'적 성격을 보존한채 그의 보다 높은 발전 수준에 의하여 직접 생산자들이 일정한 사'적 소유를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은 새로운 생산 도구의 발전(철보섭, 물레 등의 출현)으로 인한 잉여 생산품의 증대에 의하여 촉진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는 봉건적 생산 관계에 의하여 교체되였다.

봉건적 생산 양식은 직접 생산자인 농노들에게 자기의 경리, 자기의 생산 도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토지를 제외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리하여 봉건 사회의 소유의 사'적 형태는 노예 소유자적 사회에 비하여 사회의 보다 많은 성원들의 사'적 소유에 기초함으로써 사'적 성격을 가진 생산력의 보다 높은 발전 수준에 적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봉건적인 생산 관계, 소유의 사'적 형태도 앞으로의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소유의 사'적 형태로 바꾸어 졌던 것이다. 봉건 사회에서는 농업과 아울러 점차 수공업이 발전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마누팍뚜라와 기계적 생산이 등장하며 산업 자본가가 출현한다. 기계적 생산은 새로운 로동의 경험 숙련을 요구하며 자유 시장(전국적, 세계적)을 요구하며 자연 경제를 붕괴시킨다. 여기서 농노적 신분 예속 관계와 봉건적 분산성은 새로운 생산력의 수준과 모순되며 나아가서는 그 성격과도 모순되게 된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적, 기계적 생산에 기초한 생산력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노예 소유 사회와 봉건 사회에서는 생산력의 질, 즉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적인 것으로 남아 있고 량, 즉 그의 수준만이 높아지며 후자는 결국 낡은 생산 관계를 교체시킴에 있어서 전면에 나선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력은 사회적 생산력이며 기계의 단계에 기초하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하에서는 다만 기계적 생산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한 기계의 생산을 적용함으로서 생산의 기술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킨다. 이리하여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전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 도구가 《개인적 적용을 전제로한 개별적 인간들의 로동 도구》이였다면 자본주의하에 있어서는 생산 도구가 《다만 대중적 집단들이 협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생산 수단으로 전화》(《맑스, 엥겔스 전집》 로문판 2권 128페지 참고)되였다. 다시 말하면 생산력은 사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 성격으로 전환되였는 바 이것은 인류력사에서 생산력 성격의 두번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력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소유의 사'적 형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소유의 사회적 형태, 즉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의 교체를 요구하며 조만간 교체되고야 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교체됨으로써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은 소유의 사회적 성격과 완전히 적응하게 된다.

안 광 즙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은 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들은 모두 생산력의 일정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만 그것이 표현하는 측면을 달리 할 뿐이라고 본다.

일부 토론자들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면서 생산력의 성격은 생산력의 수준과는 달리 해당한 생산 관계 내지는 사회 체제와 분리시켜서는 리해할 수 없으며 그와의 련계 밑에서 리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호상 제약하며 호상 영향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생산력의 성격이 생산 관계와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을 옳게 리해하자는 것이며 이 법칙은 생산력의 성격 대 생산 관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산 발전에 있어서 생산력이 능동적이며 혁명적인 요소로 된다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생산력의 성격이 생산 관계에 대하여 규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만일 생산력의 성격이란 개념 가운데 생산 관계의 측면까지 포함시켜서 리해한다면 이 법칙은 그의 기본'적인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동의 반복적인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생산의 발전은 항상 생산력의 발전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 도구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다음에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여 인간의 생산 관계도 변동된다. 이 법칙을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맑스는 동일한 내용의 법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생산력의 성격이라는 말 대신에 단순히 생산력이라는 말을 썼다. 맑스는 이 법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인간은 새로운 생산력을 가지게 되자 자기의 생산 방식도 변경하며 생산 방식이 자기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이 변동함에 따라 모든 자기의 사회적 관계도 변경시킨다. 인력(人力) 방아는 령주를 위수로 하는 사회를 낳게 하며 증기 제분기는 산업 자본가의 사회를 낳게 한다》(《맑스, 엥겔스 전집》로문판 제5권 364페지). 여기에 있어서 인력 방아와 증기 제분기는 각각 생산력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한다는 것은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에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해된다.

그러면 생산력의 성격과 생산력의 수준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생산력의 수준이라고 할 때에는 생산력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대비적으로, 따라서 생산력의 발전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로동 생산 능률의 지표에 의하여 표현될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의 성격은 소여 시기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상태를 규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생산력의 성격이란 개념 중에는 생산 도구의 상태(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생산 도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숙련, 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로동 조직(협업에 의한 생산, 분업에 의한 생산 등) 등의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그것이 임금 로동에 의한 생산인가, 착취로부터 해방된 로동자들에 의한 생산인가 등의 문제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생산력 성격과 수준과의 이와 같은 차이는 다만 그 말의 표현상의 차이인 것이지 결국은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인간의 자연에 대한 작용만이 문제로 되며 인간의 생산 제 관계, 사회 제도 등과 같은 요인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은 그것이 표현하는 측면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생산력의 일정한 상태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으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은 로동 도구의 발전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작용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구별하여 례컨대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협동 조합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성격에는 적응하는 것이지만 생산력의 수준에는 적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리해한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 병인

생산력의 성격이라는 것은 생산력의 단순한 량'적 발전의 일정한 지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력의 발전의 일정한 수준이 사회의 새로운 생산 관계를 요구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생산력의 발전의 력사적 제 단계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질'적 면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력의 성격은 또한 두 가지 측면에 표현된다. 하나는 생산력의 구성 부분인 객관적 측면 즉 생산 도구의 형태에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생산력의 주체적 구성 부분인 로동력 즉 인간들에 의한 생산 도구 사용의 형식에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도구를 개개인이 단독적으로 사용하는가, 혹은 집단적 조직으로써만 사용하는가에 나타난다. 이 면은 생산 도구의 형태에 적응하여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의 성격은 생산 행정에서 생산 도구와 로동력이 결합하는 형식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합의 형식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변하며 그것은 그에 적응하는 생산 관계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산력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생산 도구의 발전에 의하여 일어난다. 호미, 괭이, 보섭, 절구 등 수공업적 도구는 개인들이 단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며 기계는 분업적 조직에 기초한 집단적 로동을 필요로 한다. 전자는 독립적 소생산자들을 사회적 생산의 기초로 하는 봉건적 생산 관계를 낳았으며 후자는 공장 생산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가져 왔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의 생산력의 더 이상의 발전은 독립적 대기업을 만들어 내였는 바 수천 수만의 로동력의 접결 및 조직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는 대 공장 생산은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을 명확히 들어낸다. 이 사회적 성격은 생산 도구의 고도의 발전에 기초한 로동의 거대한 집단적 조직에서 표현되고 있다. 생산력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생산 도구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및 생산물의 사'적 자본주의적 점유와 모순 충돌된다. 이 충돌은 공황과 항구적 실업으로 표면에 나타난다. 여기서 생산 관계의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작용으로 사회주의 혁명은 필연적인 불가피한 것으로 일정에 오른다.

이상에서 볼 때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력의 성격의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례하면 수공업적 도구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로동 도구 및 로동 조직의 부분적 개선에 의하여 생산물의 일정한 증산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또는 동일한 량의 생산물 생산에서 로동의 일정한 절약에 의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량적 발전은 생산력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생산 관계의 어떠한 변혁을 초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공업적 도구에서 기계로의 이행은 생산물의 량'적 증가 및 로동의 절약을 가져 올 뿐 아니라 생산력의 성격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며 생산 방법에 변화를 일으킨다.

생산력의 수준이라고 할 때에는 생산력의 일반적 발전을 재이는 지표로 된다. 첫째로 량'적 발전을 재이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여의 생산 방식에서 산출량, 로동의 생산성, 제 생산 분야에서의 기계화의 비률 및 정도, 나라의 인구 1인당의 생산량 등으로 생산력의 수준을 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사회주의 사회인 쏘련에서 몇해를 기간으로 생산력의 성격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개의 5개년 계획의 시작과 종결 사이에서의 생산력의 수준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력사 발전의 전 행정에서 볼 때 생산력의 수준의 차이는 또한 력사적 단계들에서의 생산력의 성격에 의하여 생산 방식의 발전 단계 여하에 표현된다. 왜냐 하면 생산 관계의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필수적 적응의 법칙에 의한 사회의 경제 구성체들의 교체는 생산력 발전의 량'적 수준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에서 자본주의에서의 생산력의 수준은 봉건 사회에서의 생산력의 수준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로 학목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은 개념상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력의 성격이란 주로 로동 도구와 로동 행정의 사회화를 표현하는 바 그것은 로동 도구가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운용되며 생산이 단독적으로 진행되는가 또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 공동적 로동에 의하여 로동 도구가 운용되며 생산이 사회적 련결 형태로서 진행되는가에 따라 생산력의 개별적 성격 또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력의 수준이란 생산 도구의 발전 정도, 사람들의 생산 경험 및 로동 기능, 로동 생산성의 발전 정도를 표현하는 바 이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정도로서 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또 동일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의 호상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이며 생산력 발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사회 생산력의 발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에서 가장 능동적인 역할을 노는 로동 도구이며, 생산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로동 도구와 로동력과의 관계이며 그의 호상 작용인 바 그것은 주로 로동의 사회화로서 표현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생산력의 성격은 다만 생산력 발전 수준에만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관계와 밀접히 련결되고 있으며 또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은 동일시할 수 없으며 또 분리해서 생각할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 량자들은 모두 생산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것이다.

리 석 심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론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선 생산력을 생산 관계와 구별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력은 생산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생산 관계는 생산에서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사회적 생산의 상이한 두 측면을 이루는 것이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에 밀접한 호상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개념상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력의 성격을 론하면서 그것에 생산 관계에 속하는 요소들을 포함시키려는 주장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한다면 생산력의 성격은 생산 방식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되며 그렇게 된다면 생산력의 성격에 의하여 생산 관계가 규정된다는 말이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토론들 중 약간의 의견 차이들은 있었지만 나는 일련의 점들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견해들이 표명되였다고 생각한다. 즉 우선 생산력의 성격이라는 것은 주로 생산력의 상태의 질적인 측면을 말하며 생산력의 수준이란 인간의 자연 정복 정도를 말한다는 견해가 대체로 공통적이였다고 본다. 그리고 생산력의 성격은 로동 도구가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 지는가 또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회적인 로동에 의하여 움직여 지는가 하는 데 따라 개인적인 성격 또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견해가 많았는 바 나는 이러한 견해가 생산력의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 발전하는 로동 도구의 결정적 의의로부터 출발하는 옳은 견해라고 생각한다.

생산력의 성격을 리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회적 생산에서의 분업, 협업, 사람들의 이러 저러한 생산, 로동상 결합 방식 등도 결국 로동 도구의 성격에 의존하는 것 만큼 나는 로동 도구와 로동력을 통일적으로 고찰하면서 생산력의 성격을 우선 로동 도구가 개인적 리용에 적합한가 또는 집단적, 사회적 리용에 적합한가 하는 데서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기계적 생산의 확립 이전과 이후 사이에 생산력의 성격에서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에 나도 찬동한다. 기계적 생산이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을 확립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이것은 생산력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리해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력사적 실례로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산력의 성격의 력사적인 변화 과정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연구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생산력의 성격을 리해하는 데 있어서 로동 과정에서의 사람들의 협력 방식, 맑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바 《생산 과정의 사회적 결합(《자본론》 로문판 1권 46페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서 본 로력 조직 등의 의의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교적 소규모적인 로동 도구에 기초하여 협동화된 농촌 경리에서 생산이 적지 않게 증대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산력의 수준은 주로 로동 도구의 발전 정도, 인간의 기능 및 숙련의 정도 등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은 대체로 로동 생산 능률에 의하여 표시된다는 견해가 많았는 바 나도 이 의견에 기본상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력의 수준과 생산력의 성격간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서는 나는 일정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생산력의 성격과 생산력의 수준간의 련관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부 토론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이 량자를 너무 분리시켜 보려는 견해에 대하여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생산력의 성격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로동 도구의 발전에 의존하며 생산력의 성격과 그에 대응하는 생산 관계의 변화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므로 생산력의 성격은 력사상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두번 변화하고 동일한 생산력의 성격의 테두리 안에서 생산력의 수준만이 량'적으로 변하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지나치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생산력의 낮은 발전 수준이 공동적인 로동 과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 데 대하여서는 의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또 례컨대 노예 사회로부터 봉건 사회에로의 이행이 생산력 발전 수준의 제고 또 그에 따르는 잉여 생산물의 증대와 관련된 것이 명백한 이상 생산력의 성격을 생산력의 수준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가 생산력의 수준과 성격을 구별하는 것은 극히 상대적인 의미에서이며 토론에서의 지적된 바와 같이 맑스주의 고전들에서 생산력의 발생전, 생산력의 발전 단계 등으로 일반적으로 통합시켜 말한 것의 두 측면을 구별해 보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량자를 오히려 생산력의 상태와 같은 한마디 말로 통합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으며 적어도 량자를 부단히 통일에서 동일한 생산력 상태의 측면들로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라고 말할 때 이 생산력의 성격이라는 개념 속에는 생산력의 수준이라는 개념이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레닌은 생산력의 성격에서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을 설명하면서 례컨대 다음과 같이 썼다; 생산 관계는 《언제든지 소여 시기에 사람들의 경제력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률의 발전 단계에 적응한다》(전집 1권 로문판 120페지).

생산력의 성격이라는 용어는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생산력의 수준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견지로 보아도 생산력의 성격에서 생산력의 수준을 너무 떼여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정확하게 리해하기 위하여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일단 구별하여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들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뗄 수 없는 통일에서 고찰함으로써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라는 사회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이 법칙을 더 정확하게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데 이것을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호상 관계의 견지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 영 근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의 기계화 정도가 비교적 낮은 데도 불구하고 급속한 속도로,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대 농기계들이 농촌에 적지 않게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나라 과도기, 사회주의 건설에서 표현되고 있는 특수성의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성의 제 요인을 분석함이 없이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정도가 농촌 경리 전반적 분야에서 볼 때에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우리 나라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 요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 데 생산 관계의 개조는 앞서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리해한다면 그것은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 관계와 생산력과의 관계를 농촌 경리의 기계화 수준과의 관계로 국한시키는 데서 오는 착오로 될 것이다.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 관계의 생산력과의 관계를 공업과의 련계하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력과의 관계로 고찰할 때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급속한 전개는 생산력 성격의 객관적 요구에 기초한 완전히 합법칙적인 행정이다.

소농 경리에서 생산 관계의 생산력과의 호상 관계는 농촌 내부의 생산력과의 관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업과의 련계하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력과의 호상 관계로 나타 난다. 그것은 소농 경리에서의 생산력 발전의 계기가 무엇보다도 외부적 요인 즉 주로 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부여되기 때문이며 농촌 경리는 공업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의 소농 경리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그의 생산 관계의 소사유자적 성격으로부터 극히 분산적이며 고립적이며 보수적이다. 이로부터 소농 경리적 생산 관계는 사회주의적 공업이 달성한 제 성과 및 농학—기술상 성과의 원만한 도입, 농촌 경리 내부에서의 로동력의 해방을 저애함으로써 농촌 경리에서 생산력의 장성을 장애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농 경리는 확대 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데서 사회주의적 공업의 발전에도 장애를 주게 된다.

소농 경리적 생산 관계의 생산력과의 관계는 이상과 같이 사회 전반의 생산력과의 관계로 나타나며 소농 경리적 생산 관계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질곡은 전후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관련하여 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였다.

소농 경리적 생산 관계와 생산력과의 모순, 분산적 소농 경리와 사회주의적 대규모 공업과의 모순은 적대적인 모순은 아니다. 그러나 소농 경리적 생산 관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전후 시기에 우리 공업의 전례 없는 급속한 복구 발전은 농촌 경리와 공업의 균형적인 급속한 복구 발전을 요구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은 생산력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소농 경리적 생산 관계를 급속히 개조할 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이렇듯 소농 경리의 생산 관계를 사회 전반의 생산력과의 호상 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급속한 전개는 생산력 성격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객관적 필연성으로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농촌 경리의 기계화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점에서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발현되고 있다.

이 특수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발현의 특수성을 규정짓는 제 요인이 문제로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화된 대규모 협동 경리로서의 우월성들이 아직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조건하에서 농민들이 협동 경리를 단기간내에 자기의 것으로 받아 들이게 한 요인들이 문제로 된다. 때문에 문제의 해명을 위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호상 작용과 아울러 이 요인들이 유기적 련계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여야 한다.

문제의 이같은 설정은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이 농촌 경리의 급속한 개조를 요구한다고 해서 곧 그것만으로는 그의 급속한 개조가 실현될 수 없는 거기에 기인한다.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의 객관적 요구와 그의 현실적 실현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은 농촌 경리의 집단화를 요구하나 그러나 그의 실현, 즉 소농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그의 소유자적 성격으로부터 자원적 원칙하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일련의 전제 조건들이 조성되여야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 수준 문제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바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직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전후 시기에 우리 기계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원조에 의하여 농촌에의 현대적인 농기계와 농기구들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 관계의 개조는 이것을 용이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비교적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농촌 경리의 기계화 수준이 아직 낮은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의 급속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실현을 가능케 한 제 요인은 무엇인가? 또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이 협동 조합을 단기간내에 자기의 것으로 받아 들이게 한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은 우선 우리 당이 자기의 농촌 정책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기초하여 자기의 능동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옳바른 지도를 보장해 온 거기에 있다.

생산 관계의 개조는 그것만으로 벌써 농촌에서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 협동 경리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정도가 아직 낮은 데로부터 전반적 분야에서 그의 우월성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개별적 협동 조합들은 농민들 앞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하에 우리 나라의 농업 협동 경리는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 및 로력의 합리적 리용과 선진 영농 방법의 광범한 도입, 경영의 다각화 등 경리의 합리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규모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바 이것은 농업의 기계화 정도가 낮고 관리 일'군들의 경험이 어린 조건하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데로부터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 경리는 규모가 적은 것으로 특징지어 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매 협동 조합들의 발전을 순조롭게 하였으며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의 우월성들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 고유한 사회—경제적 제 조건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급속한 전개를 가져 오게 하였는 바 해방후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그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제반 전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당의 옳바른 농촌 정책에 의하여 축적된 제 성과, 전쟁 피해로 농촌에서 로력과 축력 및 농기구들이 부족되고 농민들의 경제적 토대가 약화된 데서, 또 그 속에서 농민들이 협동 로동의 유리성을 체험하게 된 데서 농민들의 협동 경리에 대한 의존성과 신뢰가 증대된 데로부터 초래되였으며 쏘련을 비롯한 우방 국가 인민들의 막대한 물질—기술적 원조와 그들의 선진적 경험의 광범한 섭취 리용 등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제 조건을 타산하여 당과 정부는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 대책을 취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소농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상과 같은 제 요인들에 의하여 농촌의 기계화 정도가 비교적 낮은 조건하에서도 급속한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바 이것은 생산력 성격에 생산 관계가 급속히 적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생산 관계의 급속한 개조는 그만큼 급속히 생산력 발전에 활로를 열어 주며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인적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생산력 성격이 생산 관계의 급속한 개조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의 현실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 욕망에서 협동화 운동을 추진시킨다면 거기에서는 불피코 좌경적 오유를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정도가 비교적 낮은 데서 협동화 운동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제 요인들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 관계의 개조의 속도가 생산력 발전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 관계의 개조의 속도와 생산력의 발전 속도와를 대비하는 문제는 문제의 설정 자체가 곤난한 것이다.

만일 문제를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정도는 낮은 데 생산 관계의 개조는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든가 또는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비해서 농업의 생산력 수준은 낮은 데 생산 관계의 개조는 보다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든가 이렇게 설정한다면 그것은 리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 관계의 급속한 개조가 생산력 성격의 객관적 요구로서 제기되지 안는 데서 또는 그 요구에 상응하는 정도를 지나서 앞서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짓는다면 이것은 소농 경리에서의 생산 관계의 생산력과의 관계를 농촌 내부의 생산력과의 관계로 국한시키는 그릇된 문제 설정으로부터 오는 착오이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결론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또 생산력 성격에 적응하는 정도를 지나서 생산 관계의 개조를 급속히 전개할 때에는 그와 같은 개조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의 농촌 경리에 대한 개조 정책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생산력과의 관계를 사회주의적 공업의 발전과 관련시켜 사회 전반의 생산력과의 호상 관계로 볼 때 오늘 농촌 경리의 급속한 개조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제기되며 일련의 주 객관적 제 조건의 성숙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완전히 합법칙적인 것이다

정 일 용

나는 이 문제의 옳은 리해를 위하여 나라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의 문제를 총체적 상호 련관에서 관찰하여야 하며 부분 부분을 고립시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생산 관계가 적응되는 과정이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은 이 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 관계가 나라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대단히 뒤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당이 제때에 이 문제를 포착하여 능숙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 관계가 나라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대단히 뒤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리해하여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와 반대가 아닌가? 우리 농촌의 생산력은 대단히 락후되여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류의하여야 할 것은 농업 생산 관계가 나라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나라의 총체적 생산력과의 상호 련관에서 보아야지 농업의 생산력만을 따로 떼어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라이라는 말로 또한 국제적 련결에서도 보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농업과 공업 발전의 상이한 수준과 상이한 템포는 특히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이 량자간에 불균형이 나타나게 하였으며 이 량자간에 일정한 모순을 발로시켰다. 도시에는 사회주의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으며 이 발전되는 사회주의 공업에 의한 나라의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은 농촌의 소상품 경리——나라의 발전된 생산력을 받아 들일 극히 협애한 가능성밖에 가지지 못한 생산 관계와 충돌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업에 의한 나라의 생산력의 발전과 농촌의 소농민적 농업——생산 관계와의 모순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즉 많은 소농민의 령락, 파산 및 임금 로동자로의 전환과 자본주의적 대 농업의 길로 나아 간다. 이것은 나라의 발전된 생산력과 농촌의 락후한 생산 관계와의 모순 해결의 자본주의적 로정이며 농업 발전의 자본주의적 로정이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농업 발전의 자본주의적 로정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로동 계급의 당은 나라에 사회주의적 공업이 창설 발전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공업과 소상품 생산적 농업과의 사이의 모순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또 하여서는 안된다. 로동 계급의 당은 이러한 자연 발생적 과정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모순을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이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튼튼한 동맹과 특히 근로 농민들의 자원적인 지지에 기초하여 농업 협동화를 통하여 소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대규모 공업에로 전환시키는 방책은 나라의 선진적 생산력과 락후한 소농민적 생산 관계간의 모순을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인 것이다.

소농민 경리의 협동화에 의한 사회주의적 대 경리의 창설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조성하며 이로써 이미 나라에서 달성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농업 생산 관계를 적응시킴으로써 앞으로의 생산력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놓는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과정이며 그 급속한 속도는 우리 농업 생산 관계가 나라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대단히 뒤떨어졌던 결과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우리 당의 농업 협동화 정책의 정당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전반적 련관에서 고찰하지 않고 농업만을 고립시켜서 생각할 때는 문제의 정확한 리해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농촌 내부의 생산력만을 고립시켜 관찰할 때에는 우리 농업 생산 도구는 일반적으로는 아직 수공업적 도구의 계단에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공업적 도구를 리용하는 농민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란 개인 경리에 적합한 것이지 집단 경리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순전히 생산의 형태에 대하여 말한다면 혹 공장제 수공업도 수공업적 도구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장제 수공업은 한나라의 모든 생산 부문을 지배하는 지배적 생산의 형태로 될 수 없었으며 또한 수공업은 공장제 수공업의 필연적 보충을 이룬 것이다.

농촌의 생산력만을 고립시켜 생각할 때 우리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생산 관계가 생산력을 앞서 나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력의 성격에 생산 관계가 적응된다는 사회 생산의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의 리해의 면에서 볼 때 옳지 못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비록 농촌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농촌만을 고립시켜 볼 때 농촌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비하여 일정한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존재될 수 있는 리유는 바로 사회주의적 도시의 존재에 있는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그 정도는 농촌의 생산력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집단화라는 사회주의 경리 조직의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그 경리의 규모, 내부 분업, 로동 조직, 생산물의 분배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존 농촌 생산력의 상태와 수준을 반영한다. 또한 따라서 생산 관계의 제 측면은 농촌에서의 금후 생산력의 발전을 따라 변경 발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시키면서 동시에 협동 조합의 조직적 및 경제적 강화를 위한 제 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이러한 해석은 생산의 협동화의 결과 그 자체만으로도 다만 과거의 분산된 소농민이 대표하고 있던 생산력의 단순한 산술적 총화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홀시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의 협동화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력의 현저한 발전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협업과 분업에서 오는 생산력의 증진이며 생산 과정의 사회화에서 오는 생산력의 증진인 것이다.

또한 생산 규모의 사회주의적 확대의 결과로 오는 생산력의 증진은 앞으로 더욱 이 생산의 사회적 조직 형태로서의 농업 협동 조합이 기계화의 기초가 없이도 상당한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생산의 협동화는 모든 사회 경제 구성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생산의 협동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소생산의 협동화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레닌이 《협동조합론》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에 기초한 협동 조합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그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법상의 문제가 리해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의 협동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개조 방법 그 자체가 농촌의 생산력에서 오는 제약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나는 우리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된다는 사회 생산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의 실현으로 관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라의 생산력이라는 총괄적 관련에서 보아야 하며 농촌만을 고립적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농촌의 현 생산력은 우리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형식과 방법을 규정하며 앞으로의 우리 당과 국가의 농촌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 상 학

나는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8, 15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실시된 사회—경제적 변혁이 사회 발전 법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진행되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46년에 실시된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단순히 조선 인민의 주관적 념원에 의하여 실시된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일제 통치하 조선 공업은 그의 락후성과 편파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배적 부분이 대기계 생산에 기초하여 있었으며 그 생산력은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생산력의 성격은 이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것과의 호상 련결 속에서 전후 시기 최근 년간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대 변혁——농촌 경리의 협동화의 발전을 볼 때 물론 이 변혁은 당과 정부의 옳바른 지도와 근로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대 변혁이 결코 우리들의 주관적 념원에만 의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즉 이 변혁의 기저에는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 관통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동지들은 현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은 아직 기본적으로 축력과 소농기구에 의거하고 있으며 대기계 생산은 매우 미약한 데 이와 같은 생산력의 《성격》으로써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소여 사회의 생산력의 성격을 규정할 때 그를 단순히 인민 경제의 어떠한 부문에만 국한하여 고립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의 성격을 규정할 때 현존의 농촌 경리의 생산력 상태만에 국한하여 보아서는 안되며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인 공업 부문에서의 생산력 상태와의 호상 관련 밑에서 통일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조성이 생산력의 성격에 합치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에 관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내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 및 기술적인 협조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호상 관계에는,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작용과 그의 구체적 발현 형태에는 일정한 특이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히 류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특이성은 무엇이며 그의 특이성을 산생케 하는 조건들은 무엇이겠는가. 이 조건들은 우선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력사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반봉건적, 식민지적 상태하에서의 락후한 생산력 수준과 경제 구조의 식민지적

편파성,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 련계의 미약성 등은 8, 15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혁 과정에서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작용과 그의 구체적 발현 형태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8, 15 해방 이후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민주 개혁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첫 시기로부터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쎅또르의 압도적 지배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공업 부문에서 그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비하여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보다 광범히 조성케 되였는 바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그 이후 특히 공업 부문의 생산력 발전을 포함하여 전체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을 위하여 결정적 조건으로 되였다.

8, 15 이후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공업은 매우 급속한 속도로써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 공업에서의 공업 생산 구조상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공업 생산력 발전 수준의 락후성을 근절되지 못하였으며 그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천 과정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즉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승리가 거의 전적으로 확립되여 있는 조건에서도 공업화의 첫 시기에 공업화의 과업의 일부분으로서 공업화의 기초 축성의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하게 토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북반부 과도기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하여 보다 중요한 특이성은 농촌 경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지만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생산 관계의 개조 수준과 기술적 개건(생산력의 발전 상태의 중요 지표로 되는)의 수준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기술적 개건의 기간이 생산 관계의 개조의 기간에 비하여 긴 기간에 걸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이미 중국의 농촌 경리 협동화의 특성과 관련하여 모 택동 주석께서 명확히 정식화하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측면의 특성은 우리 나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와 같은 중요한 공통적 특수성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난 《근로자》 8호에 게재된 김 시중 동지의 론문 중에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생산력의 발전 속도보다 생산 관계의 개조 속도가 빠르다고 서술되여 있는 바 그것이 이러한 내용에서 서술되였다면 내용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론문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 관계의 개조에서 그 량자의 속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리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치 않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술적 개건에 비하여 짧은 기간내에 수행되며 그리하여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 본다면 전자는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앞서서 진행되게 되는 리유는 무엇으로써 설명되겠는가. 이에 관하여 이미 다른 동지들이 토론한 바 있지만 여기에 보충하여 한가지 말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나라나 중국에서는 구라파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과거에 농촌 경리는 령세화되여 있었으며 빈농의 높은 비중과 부농의 상대적 미약성이 현저하였다는 사실과 깊이 관련되여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협동화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술적 개건보다 상대적으로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조는 생산력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광범하게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이 비록 그가 아직은 기본적으로 대기계 생산에 이행하지 못한 조건에서라도 큰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다.

이 우월성은 새로운 협동적 로동 조직, 대 소규모의 관개 사업, 농경지의 확장, 선진적 영농 방법의 광범한 도입, 경제의 계획화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로동 생산 능률과 단위당 수확고가 제고되고 있다.

오늘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을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튼튼히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알맞게 구체적으로 조직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행정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리해하면서도 또 한편 여기에 내재되여 있는 일정한 난점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려면, 특히는 인민 경제의 발전에 부합하게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 발전을 가일층 전진시키려면 결국 기술적 개건 문제에 대하여 계속 부단한 고려를 돌려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오늘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에서 사회 경제적 개조의 측면을 기술적 개건의 측면보다 일정하게 앞서 진행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중요한 우월성을 거두도록 하면서도 농촌 경리에서 현대적 농기계 생산에 상응하는 선진적 기술의 도입에 심심한 고려를 돌리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수'자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리해될 수 있다.

1956년도에 우리 나라 농업에서 총 기경 작업 중 기계 작업에 의하여 실시된 비중은 이미 22%에 달하며 1953년도에 비하여 1956년도 농기계 임경소의 수는 3, 2배로, 뜨락또르의 대수는 4, 3배로 장성하였다. 물론 전쟁 기간 종래 농가에서 사용하던 농기구의 손실도 많았고 오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기구가 모두 선진적 농기구만은 아니지만 1956년도 국내 생산의 농기구 공급량은 1949년에 비하여 실로 20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년간 농촌 경리의 전기화 수준도 매우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바 례컨대 농촌의 관개 양수 동력은 8, 15 이전의 19 000 마력으로부터 1950년에는 33 000 마력, 1956년 5월에는 108 000마력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개건의 과업 해결은 오늘 적지 않은 범위에서 형제적 제 나라들의 경제적 및 기술적 방조와 협조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우리 나라의 국가 공업화의 성과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들을 결론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째로, 오늘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지금 일시적으로 기술적 개건이 사회 경제적 개조보다 일정하게 뒤떨어져 있는 조건에서도 협동 조합 경리의 우월성은 현저한 바 당면한 과업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생산 발전의 예비를 더 한층 리용하도록 적극 노력함에 있다는 것.

세째로,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건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 수준과 조건에 상응하면서 앞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된다는 것.

네째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공업에 대한 농촌 경리로부터의 생산——소비적 공급의 원만한 보장은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되는 동시에 앞으로 국가 공업화의 촉진은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건을 촉진시키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할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와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는 농업 자체의 발전에 관한 문제로 될 뿐만 아니라 공업 발전과 농업 발전과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에 관한 문제로 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 고리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리 석 심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다른 부면들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 관계의 적응으로서 설명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에서 생산력이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먼저 변화 발전한다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적인 명제로부터 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의 성격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그것이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요구하고 있는가? 물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만 개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락후한 로동 도구, 역축 등 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공업이 농촌에 공급하는 생산적 봉사(임경소의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 등) 선진적 농기계들 및 화학비료 등도 포함하여 리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은 공업 부문에서의 생산력과 상대적으로 구별되면서도 그것과의 련계, 통일에서 고찰되여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은 사회주의적인 집단적 경리로 넘어 갈 때 더욱 많은 생산을 주며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

력의 성격에 적합한 것이며 농촌 경리의 생산력을 해방하고 그것을 급속히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규정한 후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왜 구라파의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 보다 급속히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연구들에 의하여 더욱 명확하게 해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토지 소유 관계, 계급 구성, 토지 개혁의 철저성, 로농 동맹의 공고성, 당과 정부에 의한 농업 협동화 준비 사업들의 성과적인 진행 등의 요인들이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이미 여러 동지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의 요구로 되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왜 급속하게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특수한 요인들로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특수한 요인들로부터 설명되는 것이지 생산력의 성격 수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어떤 사회에서의 생산 관계의 개조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생산 관계의 개조는 소여 나라의 경제 발전의 특수성들과 계급 제 관계, 사회의 상부 구조에 속하는 요인들의 특수성 등의 종합적인 작용하에 혁명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지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수십, 수백년간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을 구속하여도 생산 관계의 개조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은 새로운 생산 관계 수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생산 관계의 개조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 생산력의 성격이 생산 관계의 개조를 위하여 가지는 의의를 일면적으로 강조한다면 소위 《생산력설》의 오유, 즉 생산력의 수준에 의하여 생산 관계의 개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듯이 주장하는 그릇된 견해에 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일부 토론에서 오늘날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생산력 수준이 그 나라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들을 고려 밖에 둘 때에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하여 성숙되였으나 식민지들을 고려에 넣으면 마치 그렇지 않은듯이 말한 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생산력의 수준과 생산 관계의 개조를 일면적으로 결부시키는 데로부터 나오는 견해인 것이다.

또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의 성격, 수준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공업이 농업에 주는 생산적 방조를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뜨락또르 기경 면적의 크기같은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업이 농업에 주는 기술적 방조가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경리의 급속한 개조의 원인으로 되는듯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의 농업 기계들의 적용은 현재도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급속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에서의 생산력의 성격이 새로운 생산 관계의 수립을 요구하는 조건하에서 작용하는 일련의 특수한 요인들의 강력한 작용으로부터 설명되여야 할 것이다.

리 석 채

이 문제에 대하여 일부 동지들은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에서는 생산력 발전 수준을 뛰어 넘어서 협동화가 실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일부 동지들은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에서는 생산 관계의 발전 템포가 생산력의 발전 템포보다 앞서고 있는듯이 리해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 것 만큼 정확히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선 우리가 농업 생산력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를 공업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에 적용되는 기계, 도구 등은 공업에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농업 생산력은 주로 공업에 의존한다.

나라의 공업화는 많은 사람들의 로동을 련합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규모적 농기계의 생산을 촉진하며 새 기술을 소유한 간부들을 양성해 냄으로써 새로운 농업 생산력을 조성한다.

소규모 생산에 적응하는 소농민 경리의 생산 관계는 대규모 생산을 요구하는 새로운 농업 생산력에 적응하지 못하며 그것은 농촌 경리 생산력 제고의 가능성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력 발전에도 장애로 된다. 이 모순은 오직 소규모적인 농민 경리를 협동화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은 우리 농촌의 소규모적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 법칙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농촌 경리를 협동화하는 길에 들어 섰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의 협동화는 결코 생산력 발전 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앞으로 뛰여 넘어 조직된 것은 아니다.

객관적 경제 법칙의 요구를 타산하지 않으며 그에 의거하지 않은 경제 정책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는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하에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농업 협동화 정책의 정당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대하여 우선 그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 법칙의 리용은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계급적 리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기타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생산이 거대하게 사회화되여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은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폐절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반동 세력의 저해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생산력이 조성되여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 그에 적응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계급적 력량 관계, 새로운 생산 관계의 담당자의 각성 정도, 그 나라의 력사 발전의 특수성 등에 의하여 이 요구가 빨리 실현되기도 하며 굼뜨게 실현되기도 한다.

특히 농촌 경리를 협동화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자원적 원칙에 립각하여야 하는 것 만큼 농민들의 각성 여하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촌 경리의 협동화의 속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에 넣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나는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째로, 8,15 해방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 토지 개혁이 철저히 수행되고 그후 조국 해방 전쟁 과정에서 우리 나라 농촌에는 농업 협동화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의 비중과 력량이 극히 미약하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우리 농민들의 대부분이 과거 봉건적 토지 관계에 얽매여 일제와 지주의 혹심한 착취를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은 토지와 쌀과 해방을 위하여 일제와 지주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고귀한 혁명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농민들은 해방후 10년간의 위대한 새 생활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비상히 각성되였다.

세째로, 우리 나라 농촌에서 옛날부터 내려 오던 《소겨리반》, 《품앗이반》 등 공동 로동의 형태들이 전쟁 기간에 로력과 축력이 부족된 조건하에서 더욱 발전 보급되였으며 특히 지난 시기에 경험적으로 조직한 협동 조합들이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였는 바 이것이 농민들을 협동화의 길로 고무 추동하였다.

네째로, 우리 당은 항상 자기의 정확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체 인민들에게 당이 하는 일은 틀림 없다는 깊은 신뢰와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당은 선진적 쏘련의 경험을 본받아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지도와 방조를 옳게 준 데 있다.

이러한 견지로부터 나는 우리 농촌에서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 발전 수준 보다 앞섰다든가 또는 생산 관계의 발전 템포가 생산력의 발전 템포보다 빠르다고 하는 견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생산 관계의 발전——그것은 오직 생산력 발전에 반드시 적응되여 수행되는 객관적 요구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수준에 뒤떨어져서 그와 모순 충돌될 때에는 생산력 발전을 저해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생산 관계의 발전을 인공적으로 촉진시키려 하며 생산력 발전 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앞으로 뛰여 넘어 가려는 온갖 기도는 역시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며 인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오늘 우리 농업 협동 조합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력의 발전에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가 결

코 생산력 발전 수준을 뛰어 넘어서 진행되거나 생산력 발전 템포보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김 한 주

나는 이 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의 성격과 그의 가일층 발전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산력에 대한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을 말 할 때에 여기에서 규정적인 것은 나라의 총체적인 생산력, 특히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으로 되는 공업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이와 같이 통일적으로 보지 않고, 가령 우리 나라에서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관련시킴이 없이 다만 농업——이제까지 기본적으로 낡은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하여 소상품적 생산 관계에 상응한 그러한 생산력의 성격으로써 특징 지어지는——만을 개별적으로, 고립적으로 떼여 본다면 이것은 전연 옳지 못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있을 수 있는 견해와 표현들, 즉 첫째,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은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부합되지 않게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

둘째,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은 농업 생산력 자체의 성격과 농업 생산 관계간의 모순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되였고 기계적으로 강조하는 것.

세째,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는 지금까지의 농업 생산력 자체의 성격에 적합한 것이라고만 강조하는 등의 견해와 표현들은 모두 오유거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견해와 표현들은 무슨 까닭에 모두 오유거나 부정확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즉

첫째 견해는 우리 나라의 총체적 생산력, 특히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으로 되는 공업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견해는 우리 나라 농업이 전연 자본주의화—기계화되지 못하였던 조건과 관련하여 농업 생산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상품적 생산 관계에 적응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째 견해는 농업의 협동화는 어디까지나 그에 적응한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요구한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농업 협동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어떤 호상 관계——모순의 기초 우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하여 간단히 말한다면 그것은——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업 생산력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그리고 또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막대한 원조에 의거하여 전후 시기에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방향에서 급속히 복구 발전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지도적 지위는 더욱 확고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상품 량곡과 농산물 원료에 대한 그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의 농업 생산력은 소규모 개인농 경리 형태의 불가피한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전후 시기의 복구 발전 속도는 매우 뒤떨어 졌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 공업과 농업간에는 일정한 불일치가 조성되게 되였는 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진적인 공업 생산력과 락후한 농업 생산 관계간의 모순의 산물이였다. 그러나 이 모순은 공업 자체의 지도적 역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모순이였으며 또한 근로 농민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자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모순인 것이다. 정상적인 단순 재생산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인농 경리 형태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또 현대적 농기계 및 관개 시설 등의 효과적 리용과 토지 자체의 합리적 리용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소규모 개인농 경리 형태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은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이미 광범한 근로 농민들 속에 깊이 침투되였다.

이상에 지적한 모순과 조건들은 바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 협동화 운동의 필연성과 그 운동 행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것은 그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업은 아직도 이러 저러한 편파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의 전반적 발전 수준이 높지 못하다고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의 협동화와 아울러——더 정확하게는 공업의 우위적 발전의 임무가 중요하게 제기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정은 앞으로 다시 언급하겠지마는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 행정 자체에도 한가지 중요한 특징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 협동화 운동의 급속한 템포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는 데 우선 그 원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리 석심, 리 석채 동무들의 토론에서 기본적으로 해명되였다고 본다. 일부 토론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선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 관계가 나라의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대단히 뒤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그점에 귀착시키고 있는 데 이것은 사실상 급속한 협동화 템포에 대한 요구성으로는 될지라도 그의 현실성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높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에 적응한 생산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생산 관계의 개조 속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결정적 요인으로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템포가, 생산력의 발전 정도가 더 높은 일련의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농업 협동화 템포를 훨씬 릉가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농업 협동화의 템포는 물론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도 의존하지마는 그것이 심각한 혁명적 변혁을 의미하는 것 만큼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그 나라 농민들이 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상태, 국내 및 농촌에서의 계급적 력량 관계, 농민들의 정치 사상적 각성 정도, 당 및 국가적 지도 등 제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급속한 템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간단히 말한다면 이것은 공업 발전의 급속한 속도와 그 가일층의 발전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는 합법칙적인 것이다.

다음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련관에서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 과정을 고찰할 때 거기에서는 경제 형태의 개조가 기술적 개조에 앞서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김 상학 동무와 여러 동무들이 옳게 지적하였다고 본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이와 같은 기술적 개조의 상대적 락후성은 우리 나라 공업 생산력의 현재 발전 수준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것은 정 일용 동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리 형태의 개조 자체에도 이러 저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비단 우리 나라에 한한 것이 아니라 농업이 자본주의화되지 못하였던 그러한 나라들의 협동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되는 것이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마는 과거의 쏘련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다(다 아는 바와 같이 쏘련에서 집단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것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이였으며 농업의 기계화를 대체로 완성한 것은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이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술적 개조에 앞서 경제 형태의 개조를 먼저 실시할 필요성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개인 농민들의 역축과 농기구 등의 단순한 집합에 의거하는 그러한 초보적 협동 조합들도 개인농 경리에 비하여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이 기초 우에서만 농업의 기계화가 점차 준비되며 또 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농업의 기술적 개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조선에서는 아직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어떻게 협동 조합을 조직 하겠는가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쏘련과 달라서 농호당 배당되는 토지가 적기 때문에 로력 조직만 잘 한다면 기계화를 하지 않아도 능히 협동 조합을 조직 운영해 나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계화는 좋은 일이요, 또 꼭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다만 협동 조합을 조직하는 즉시로 기계화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나라 조건에서는 협동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린방——중국에서의 농업의 협동화는 1956년 6월 현재 벌써 91.7%에 달하고 있으나 그의 기술적 개조는 대체로 앞으로 20년 내지 25년의 기간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체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완성되나 그의 기술적 개조는 이보다 더욱 장기간에 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나라의 토지—자연 조건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조건에서 뜨락또르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경지 면적의 절반 미만이며 또 콤바인으로 수확할 수 있는 토지는 그보다 더욱 적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토지——자연 조건에 적합한 각종 농기계들을 창안 제작하여 광범히 보급시키는 문제는 농기계 임경소망의 확장과 아울러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경제 형태 뿐만 아니라 기술적 개조를 통하여 완성된다. 선진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장기간 락후한 기술에 립각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정부는 이 방향에서 제반 농촌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몇가지 리론적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혁명은 매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고 있다. 우리 혁명이 처한 복잡성과 간고성, 장기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당면의 최대의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궐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를 정확하게 체득하는 것은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당의 제반 문헌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에서 전면적으로 천명되였으며 특히 우리 당 제3차 대회에서의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서 다시 한번 심오한 체계적인 해명을 받았다. 당의 제반 문헌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에는 우리 혁명의 복잡한 주객관적 조건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주어져 있으며 우리 당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적용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현 단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과 그의 전망을 명시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 문헌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은 우리의 모든 리론적 사고, 실천적 활동에서의 지침이다.

우리 혁명의 제반 특수성과 부단히 발전하는 조선 인민의 혁명적 실천은 해명을 요구하는 많은 리론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의 리론적 해명은 결국 조선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연구와 력사 발전에서의 주관적 요소들의 역할을 신중히 연구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다방면적인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따라서 경제, 법학, 력사, 철학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의 진지한 연구와 그들 간의 공동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시기에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해당 부문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련의 과학 토론회들에서는 과학적 탐구의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명되고 있으며 의견 상이가 통일되는 방향에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지난 12월 21—23일에 걸쳐 과학원 력사 연구소에서 진행된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토론회에서도 많은 사회 과학자들의 참가하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고 해명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들에 있어서 의견 차이들도 존재하였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민 민주주의 혁명 일반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들

토론회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발전 단계에 관한 문제가 론의되였다.

대부분의 론자들은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자기 발전에서 반드시 두개 단계(민주주의 혁명 단계와 사회주의 혁명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혹자들은 이 두 단계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특히 조선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는 두 단계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두 단계라는 용어의 리해가 상이한 데서 오는 혼란도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씨야 로동 계급은 두개의 상이한 단계에 속하는 혁명, 즉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다. 이 두 혁명은 모두 무장 투쟁의 방법에 의하여 현존 주권을 청산하는 것으로 수행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시작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쏘련 군대가 지어 주는 유리한 정세하에서 처음부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정권이 수립되여 가지고 두 개의 혁명 과업, 즉 일반 민주주의적 과업(반파쑈, 반제, 반봉건적 과업)과 사회주의적 과업이 시초부터 서로 유기적으로 엉켜져서 수행되였기 때문에 혁명의 두 단계를 엄밀하게 갈라 놓기 곤난한 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도 로동 계급이 혁명 발전의 견지로 보아 상이한 단계에 속하는 과업, 즉 일반 민주주의적 과업과 사회주의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며 또 일반 민주주의적 과업이 사회주의적 과업 해결보다 선행하는 만큼 혁명 발전의 두 단계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두 단계의 내용은 각국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따라 각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남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혁명 발전 단계를 기계적으로 조선이나 중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1947년과 1948년에 기본적으로 제1단계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 선포까지 1억 여상의 인구를 포괄하는 광범한 지역들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주권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제1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조선에서도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이 아직 반제, 반봉건적 과업인 것만큼 전체성으로 보아 아직 제1단계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혁명의 단계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 건설의 단계를 구별하여야 된다는 토론들은 정당하다. 좁은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말할 때에는 주권의 문제를 념두에 두고 말하기 때문에 혁명의 단계는 우선 주권의 성격에 의하여, 즉 어떤 주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 건설의 단계는 그의 사회 경제적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조선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일반적으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기에 일어나는 인민 혁명인 바 그것은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 승리 후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권을 장악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새 시기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 5,4 운동 이후의 신 민주주의 혁명 또는 조선에서 1930년대 이후 광범히 조직 전개된 조국 해방 투쟁은 모두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띠였다. 그러나 조선에 있어서는 8,15 해방부터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결정적인 승리의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2,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성격에 관한 문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해방전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 경제 구성태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여야 할 문제이다. 왜냐 하면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것은 사회 경제 구성태적 내용을 표시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방전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한 개의 독립적인 경제 형태로서 토대를 형성하였는가는 매우 의문시된다. 왜냐 하면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였으며 농촌에서는 반봉건적 관계가 지배적

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전 조선 사회를 반드시 어떤 사회 경제 구성태, 즉 자본주의냐 봉건 사회냐에 일방적으로 귀착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고찰하여 가지고 해방전 조선 사회를 어떤 한개의 사회 경제 구성태에 귀착시키면 우리 혁명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또는 비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라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속단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이보다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방전 조선 사회의 제반 모순,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모순, 각 계급들과 계층들 호상간의 제 모순 등을 국내적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범위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적지 않은 론자들이 해방전 조선 사회가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구성태에 속하는 사회라고 주장한 반면에 대부분의 론자들은 해방전 조선 사회가 전형적인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으며 따라서 민족 자본의 발전이 불과 전체 산업의 5%에 불과한 정도로 극히 미약하였으며 이와 반면에 로동 계급의 력량이 강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는 바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 해방전 조선의 소부르조아 세력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정당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3, 혁명의 발전 단계와 관련된 문제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토론회에서는 두 개의 대립된 견해가 존재하였다.

혹자들은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는 전혀 판이한 조건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 단계도 일단 북반부와 남반부를 분리해서 고찰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그 호상 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론자들은 우리 혁명이 전체성으로 보아 아직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북반부에서는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정권의 성격도 처음부터 로동 계급의 독재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론자들은 그들의 론거에 호상 약간한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론거로 하고 있다.

첫째, 해방전 조선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였으며 따라서 북반부에서의 우리 혁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혁명이며 1946년 2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수립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시작되며 이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로동 계급 독재의 정권이라는 것.

둘째, 산업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과업이였다는 것. 사회주의 혁명의 특징은 먼저 로동 계급 독재의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를 창설하는 것이 일반 법칙이기 때문에 산업 국유화를 실시한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로동 계급 독재의 정권이라는 것.

세째, 조선에서는 민족 자본의 발전이 매우 미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로동 계급의 력량이 강대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쏘베트 군대가 진주한 조건하에서 북반부에서는 로동 계급과 부르조아간에 정권을 위한 투쟁이 1946년 2월까지 끝났으며 정권은 완전히 로동 계급의 수중에 들어 오게 되였으며 로동 계급의 정당은 어떤 당과도 국가적 령도를 나누지 않았으며 따라서 1946년 2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로동 계급 독재의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장하는 론자들은 대체로 정권의 성격을 그 기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계급적 구성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론거들은 많은 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해방전 조선 사회가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구성태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 연구를 요하는 문제이다. 또 가령 해방전 조선 사회가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구성태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시초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례하면 체코슬로바키야는 자본주의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나라였으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시초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처음 단계에서는 반파쑈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된 산업 국유화는 일반 민주주의적 성격과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과업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적 과업의 일부는 민주주의적 과업의 테두리내에서도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우리 북반부에서의 민주 개혁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주의적 과업의 일부를 내포하는, 따라서 사회주의적 개혁과 직접 련관되며 사회주의적 과업과 서로 교차되여 진행된 민주 개혁이였지 사회주의적 개혁은 아니였다. 이와 같은 과업은 반드시 로동 계급의 독재 정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례하면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로동 계급의 독재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산업의 국유화가 실시되였다. 이 나라들에서도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의 령도밑에 반동들과 외래 제국주의 자본을 수탈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였으며 로동 계급의 독재를 확립하게 되였다.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정권은 지금까지의 모든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레닌은 로농 독재 정권을 가장 진보적인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정권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파리 콤무나 형의 정권이라고 말하였다.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우리 나라의 인민 정권이 《일본 국가와 일본 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여 있던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 기관들을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할 수 있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으로 조선 로동 계급의 력량이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르조아 력량보다 강하다고 해서, 즉 로동 계급의 령도가 강하고 그가 우세한 력량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곧 로동 계급의 독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레닌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당시의 혁명적 림시 정부는 반드시 로동 계급과 농민을 그의 계급적 기초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 멘쉐위크들이, 만약 사회 민주당이 이 정부에 참가한다면 로동 계급의 정당인 사회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을 수 없으며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사회주의적 변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될것이 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로동 계급은 림시 혁명 정부에서 자기의 최대 강령이 아니라 최저 강령을 실시할 것이며 결국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레닌 전집》 8권 264—274 참조).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에서는 정권의 성격은 그 정권에 참가하고 있는 계급들의 호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또는 그 정권이 노는 기능, 과업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사물의 본질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기능을 홀시하는 경향은 관념론에 떨어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상부 구조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경제적 토대와 호상 련관 밑에서 보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권은 상부 구조에 속하며 그의 계급적 본질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계급은 직접 사회의 물질적 제 관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여 있다. 그러므로 계급의 본질은 그가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는 생산 관계에서 규정되여야 하며 정권의 본질은 그의 계급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본질은 오직 그가 노는 기능의 계급적 성격, 즉 그 계급들이 정권에 의거하여 수행하려는 객관적 과업에 의하여 결정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권의 성격을 그 계급들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분리하려는 온갖 기도는 반드시 주관주의에 빠지게 된다.

로동 계급의 독재의 군대인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조선의 로동 계급은 그가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하에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었으며 로동 계급의 독재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능성은 아직 현실성은 아니다. 현실적 객관적 과업이 로동 계급의 독재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은 독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에 광범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을 집결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립각한 인민 정권으로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 정권의 기본 임무는 우선 북반부에서 민주주의적 혁명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이 정권의 지도하에 민주 개혁이 철저히 실시되였는 바 그 결과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이전에 로동 계급은 결코 사회주의 건설 과업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반증하기 위하여 일부 론자들은 흔히 중국이 1949년의 중화 인민 공화국 선포로부터 로동 계급의 독재가 실시되였는 데 민주 개혁은 1952년까지 계속되였다는 것을 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나라와는 사정이 달랐다.

중국에서는 1949년까지 벌써 1억 이상의 인구를 포괄하는 지역들에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가 수립되고 민주 개혁이 실시되였으며 1949년에 와서는 장 개석 도당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때에 아직 광범한 지역들에서 민주 개혁이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로동 계급은 벌써 정치적 분야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이때부터 1억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광범한 지역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되게 되였으며 비록 더 넓은 지역에서 민주 개혁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그 정권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 혁명이 우리 혁명과 구별되는 점은 첫째로 중국은 과거에 반식민지 나라였으며 중국 로동계급은 공산당의 지도 밑에 장기간 국내 반동 정권인 장 개석 정권과의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였으며 강력한 무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로 인구의 1억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벌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시작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세째로 중국은 1949년에 정권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되였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1946년 2월에 아직 아무데서도 민주 개혁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적 개혁은 일정에 오르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조선의 로동 계급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와 같이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전성기가 3, 4년씩 요구된 것이 아니라 불과 1년간에 진행되였던 것이다.

1946년 2월의 정권과 1947년 2월의 정권 사이에 그의 계급적 구성에 큰 변동이 없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로동 계급은 질적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로농 동맹도 질적으로 강화되였다. 중국이 1949년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고 따라서 로동 계급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조선에서는 1946년이 아니라 1947년에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다.

4, 인민 정권의 계급적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인민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혹자는 마치 우리 혁명의 주되는 성격, 그의 당면 최대 과업이 기본적으로 불변한 것과 같이 우리 나라 인민 주권은 인민 민주주의 독재인 바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그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몇 개의 혁명적 계급들의 련합 독재라고 주장하며 나아가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없이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론자는 로동 계급과 사회주의와의 혈연적 련계를 망각한 데 그 오유가 있는 듯하다. 로동 계급 없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례로서 몽고 인민 공화국을 들고 있는 데 이것은 물론 부당한 것이다. 몽고에서도 공장과 제조소는 발전되여 왔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도 장성되여 왔고 그의 령도하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령도 없이는 건설할 수 없다. 레닌이 로동 계급의 당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조아 및 소부르조아지하고도 계급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레닌의 이러한 교시를 망각하는 론자들은, 현재는 소부르조아지와는 물론 민족자본가(즉 중 소부르조아)들과도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 계급과 동맹하게 되는 것 만큼 벌써 레닌의 교시는 정세가 변화된 오늘 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적 환경의 변화는 결코 내'적 모순의 성격을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가령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적대적 모순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존재하는한 존재하며 그 생산 관계를 청산함이 없이는 그 적대적 모순이 청산되지 않는다.

생산 관계에서의 내부 모순이 적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적대적 모순이 표현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들은 생산 관계와 결부된 내'적 모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 모순도 허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로동 계급은 지주들과도 적대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물론 외래 제국주의자들과도 적대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모순들은 호상 련관되고 호상 제약되면서 계급들의 정치적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지만 그것은 어떤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모순 뿐만 아니라 외부 모순도 다 반영한다. 가령 우리 나라에서 민족 부르조아지와 로동 계급 사이에는 첨예화되지 않은 내부적 적대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 예속 부르조아와 지주들을 반대하는 데서 공통적 리해 관계를 가지며 이것은 극소수의 민족 부르조아와 로동 계급이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적대적 모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동맹자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동맹은 어디까지나 투쟁을 내포하고 있는 동맹이며 이 투쟁이 종결되기 위하여서는 그 내부 모순이 해결되여야 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생산자들과 수공업자들과 로동 계급 사이에는 착취와 피착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모순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사회에서 서로 동일하지 않은 립장에서 각각 자기의 목적을 추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용적 모순, 즉 비적대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 비적대적 모순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투쟁이 필요하다. 다만 이 투쟁은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는 그 성격 및 방법이 다르다. 만약에 로동 계급이 경제적 면에서 민족 부르조아지에 대하여 리용, 재한, 개조의 정책을 쓴다면 소부르조아에 대하여서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서 로동 계급과의 튼튼한 동맹만이 그들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그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한다.

로동 계급의 독재에 관한 레닌의 교시는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 교시는 레닌의 생존 당시와는 다른 오늘의 조건하에서 그 투쟁 형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들 간의 동맹은 항상 적대적 또는 비적대적인 투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비적대적인 투쟁은 로동 계급 내부에서도 존재하며 당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아무리 공통적 리해 관계를 가진 계급들 간이라 할지라도 비적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계급들 간의 투쟁은 요구된다. 여기에서 바로 로동 계급의 강력한 령도가 요구

되는 것이며 맑스―레닌주의 당은 항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며 그가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튼튼히 기초하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로동 계급의 령도와 독재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는 반드시 요구되지만 로동 계급의 독재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도 역시 부당한 것이다.

헤게모니야는 독재의 맹아이다. 헤게모니야는 헤게모니야를 다투는 계급들과의 투쟁에서 표현된다. 헤게모니야는 아직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을 직접적 임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의 독재는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야를 내포하고 있으며 더 나가서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야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서도 필요하며 로농 독재에서도 필요하지만 로동 계급의 독재는 오직 사회주의 혁명에서만 요구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독재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이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상부 구조이다.

레닌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독재는 각국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따라 매우 풍부한 다양성을 띠게 된다. 레닌은 일찌기 로동 계급의 독재는 결코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과 강제를 주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권을 통하여 모든 근로 계급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그들을 령도하며 새로운 로동 규률을 창설하기 위하여 근로 인민들을 교양하며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자본주의적 낡은 관습과 전통과의 투쟁을 조직 지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레닌의 령도하에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할 때보다 오늘날 각국의 로동 계급들은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제국주의는 점점 더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로동 계급에게 유리하게 변화된 국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명제를 내놓았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발전의 산 모범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은 결코 계급 투쟁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로동 계급의 독재를 부정하거나 생산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 오지 않고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국주의가 인민들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으므로 인민들이 제국주의 정권을 평화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만 반제국주의적 정권만으로써는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와 로동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 즉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와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와 사회주의적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계급 투쟁의 형태는 지금보다도 더 다양할 수 있으며 더욱 평화적 방법과 민주주의적 형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로동 계급 이외의 그 어떤 계급도 독자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는 것만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지도하는 정권은 본질상 로동 계급의 독재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온갖 원쑤들은 로동 계급의 생명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 반동들과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본질을 모호하게 하려 하며 쏘련을 선두로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대하여 악의에 찬 허위와 중상을 떠벌이면서 발악하고 있는 의도는 알만한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프로레타리아 독재 없이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주관적 의도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엄중한 리론적 오유라고 볼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수정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학적 리론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는 물론 모든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되며 혁명적 실천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 관한 과학적 인식의 발전에 따라 그의 구체적 명제들은 일부 수정되며 보충되며 그 내용이 더욱 풍부화된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재 명제를 반드시 그의 력사적 사실과 결부하여 그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리론과 명제들은 력사적으로 규정되여 있다. 어떠한 명제도 초력사적, 초공간적으로 주어진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잡지《인민》 1956년11호 104페지)라고 주장하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부인하려는 경향은 리론이 가지는 일반성과 진리의 보편적 성격을 보지 못하는 옳지 못한 태도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가장 일반적 명제들은 절대적 진리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진리의 객관성을 부인하게 될 것이며 사물의 보편적 련계 관계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절대적 진리의 명제는 점차적으로 증대되여 가며 동시에 상대적 진리의 내용도 더욱 풍부화되여 간다. 리론의 력사적 규정성을 운운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까지 부인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적 견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5, 조선 혁명의 기본 과업과 민주 기지에 대한 문제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조선 혁명은 전국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지만 공화국 남반부는 계속 미제의 식민지로 남아 있다.

혁명이 전국적 범위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우리 당의 지도하에 조선 인민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의 기지, 즉 민주 기지를 창건하는 과업을 선차적으로 내세우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혁명의 기지가 축성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민주 기지에서 수행되는 혁명의 발전과 우리 혁명 전체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변혁들을 혁명의 전체적 과업과 분리시켜 고찰할 수 없다. 민주 기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력사적 변혁들은 다만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인 반제, 반봉건적 민주 과업의 테두리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 북반부에서의 사회 발전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따라서 북반부에서의 사회 경제적 변화의 단계를 그대로, 즉 남반부와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가 어디까지나 아직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북반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변화가 혁명의 기본 임무 수행의 결정적, 물질적 력량으로 되며 앞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된 후에도 남반부를 포함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된다는 것이 조선 혁명의 기본적 단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그것이다.

조선 인민은 하나이며 조선 혁명도 하나이다. 조선 인민이 하나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선 사람들이 통일되면 좋겠다는 념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며 력사적으로 통일되여 있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조선 혁명이 해결하여야 할 기본 임무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조선 혁명에서 기본 모순은 조선 인민과 미제와 그의 주구인 리 승만 도당을 위시한 국내 반동 세력들과의 모순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결코 남반부만을 점령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조선을 강점하여 예

속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북반부에서 청산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과 지주, 반동 분자들은 리 승만 도당들 편에 가담하여 국내 반동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와 리 승만 반동 세력과 남북 조선 인민들 간의 모순은 가장 기본적인 불상용적 모순이며 이 모순의 해결 없이는 조선 인민의 완전한 승리는 생각할 수 없다.

일부 론자들 가운데서 우리 혁명이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이라는 것이 다만 남반부에서만 그러한 과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미제를 구축하고 리 승만 도당들을 타도하는 과업은 전체 조선 인민의 과업이지 결코 남반부 인민들만의 과업이 아니다. 물론 남반부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할 과업이 지역상 남반부만에 국한된 과업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후 남반부 지역에서 나서는 이와 같은 민주 개혁의 과업은 남반부에 국한된 과업으로 되며 조선 혁명 전체의 일부분으로만 된다. 그러나 이 사정과 전체 조선 인민이 미제와 리 승만을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과 투쟁하고 있는 것은 남반부 인민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반부 인민이, 즉 민주 기지의 인민들의 강력한 력량이 이 투쟁에 동원되고 있다. 조선 인민을 지도하는 조선 로동당과 전체 조선 인민의 중앙 정부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기타 남북 조선의 전체 정당, 사회 단체들과 남반부의 가장 우수한 혁명적 세력들이 민주 기지에 집결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투쟁은 곧 조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 남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 개혁의 실시를 위한 투쟁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모두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타도하는 정치적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종속된다.

혁명에서 주되는 문제가 정권에 관한 문제인 것 만큼 정권을 위한 투쟁의 발전에 의하여 조선 혁명의 발전 단계를 규정하여야 하며 사회 경제적 변화, 즉 건설의 단계와 구별하여야 한다. 혁명의 단계는 남북 조선을 절대로 구분하여 볼 수 없다. 여기에서 혁명의 주체는 조선 인민이며 그의 적은 미제와 리 승만 반동 도당들이다. 그러나 건설의 단계는 민주 기지만을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론의될 수 있다. 즉 북반부에서의 과도기의 특수성, 계급 투쟁의 특수성,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리용 제한 개조의 특수성, 소상품 경제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특수성 등의 문제들이 그러한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적지 않은 건설적이며 과학적인 토론이 전개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히 많이 토론된 혁명의 단계에 대하여서만 지적하려고 한다.

우리 혁명이 그 기본 임무로 보아 아직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계단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미 우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 인민이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아무런 발전과 승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인민은 해방후 오늘날까지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8, 15 해방 직후 남북 조선 인민들은 인민 정권 창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남북 조선 방방곡곡에 인민 위원회들이 창설되였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미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수립된 인민 위원회들이 해산되였다. 북조선에서는 1946년 2월 우리 당의 지도 밑에 북조선에서의 중앙 정권 기관인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수립은 조선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장구한 기간 반제, 반봉건적 혁명 투쟁을 수행하여 오던 것이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일단 승리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때부터 조선 인민은 이 정권에 의거하면서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위한 민주 기지를 창건하며 앞으로의 통일적 중앙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북반부에서 민주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혁명을 가일층 전진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이 정권의 계급적 내용을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을 집결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립각한 인민 정권으로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한 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과거의 모든 착취 계급들의 독재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인민 독재의 정권이였으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며 로농 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독재였다.

1946년 2월에 수립된 인민 정권은 1917년 로씨야 혁명에서의 로농 독재 정권과 전연 동일하지는 않았다. 1946년 2월의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은 그 계급적 구성으로 보아 우선 로동 계급의 령도가 강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이외의 더욱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였으며 그가 수행하는 과업도 단순히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과업의 범위를 넘는, 즉 일부 사회주의적 혁명 과업도 수행하는 정권이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령도하며 로동자, 농민의 동맹이 기초로 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과업을 수행할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는 점에서 1917년의 로씨야의 로농 독재 정권과 본질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의 형태들과 계급적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인민 정권에는 그 시초의 수년간 부르죠아지들의 세력이 상당히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서는 민주 개혁을 실시하며 계속 로동 계급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거쳐서 1947, 48년경에 가서야 로동 계급의 독재가 확립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시초부터 로동 계급의 령도권이 강하였으며 정권 내부에서나 경제에서나 민족 부르죠아지의 지위는 강대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인민 정권 수립으로부터 (1944—45) 로동 계급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데는 3—4년의 기간이 (1947—48년까지) 요구되였으며 이 기간에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전성이 실현되였으며 정권 내부에서의 부르죠아적 세력의 종국적 구축과 로동 계급의 령도의 강화, 로농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 전선의 강화가 진행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1946년 2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정권 내부에서의 계급적 구성에는 현저한 변화가 없었으며 이 기간에 제반 민주 개혁과 선거 투쟁 등을 통하여 로농 동맹의 강화, 로동 계급을 위시한 근로 인민 대중의 의식 수준의 제고, 봉건적 및 일본 제국주의적 세력의 근본적 청산,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물질적 토대의 창설 등이 수행되였으며 이 기간에 민주주의적 혁명 과업의 완수와 사회주의적 개조에로의 전성이 실현되게 되였다.

1946년 2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일어 나게 되였다. 이 기간에 북반부에서는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이 완수되고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조선 혁명의 완수를 위한 민주 기지가 창설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사회는 과도기적 사회이다. 따라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이 수행된 첫날부터 과도기에 들어 섰다고 봄으로써 1946년말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론자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운동은 반드시 경제와 정치의 호상 작용에서 관찰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 과도기에 있어서 정치의 선차성을 보아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민주 개혁이 가져 온 심각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토지 개혁의 결과 농촌에서 봉건적 생산 관계가 청산되였으며 근로 농민이 토지의 주인으로 된 것과 산업 국유화의 결과에 일제와 친일파들의 경제적 지반이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인민 경제에서 국영 부문이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탄생하였다.

이것은 즉 로동자와 농민이 생산 수단의 주

인공으로 되였으며 따라서 경제에서 그들이 주인으로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 민주주의 정권이 자기의 물질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물질적 제 관계에 상응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가 변화를 가져 오게 되였는 바 로동 법령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주의적 법령들이 실시된 결과에 일체 사회 생활에서는 낡은 사회 관계가 근본적으로 제거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사회 관계가 확립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일어 난 이와 같은 심각한 변화의 결과 첫째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둘째로 민주 기지의 창건, 세째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준비를 위한 물질적 조건의 조성, 네째로 이러한 변화는 첨예한 계급 투쟁을 통하여 실시되였으며 이 결과 로동자, 농민의 계급적 각성과 의식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전체 근로 인민의 정치적 통일이 강화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결국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 경제적 심각한 변화와 함께 계급들 간의 호상 관계에도 질적 변화를 가져 오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1946년 말부터 47년초에 걸친 선거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새로운 발전을 보장할 정권의 수립을 가져 오게 하였다. 이것이 북조선 인민 회의와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창설이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일층 강화 발전된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 기관으로서 첫째로 조선 전국에서 우리의 혁명적 제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가강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며, 둘째로는 북조선에서의 민주 개혁의 제 성과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과업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으로서 민주 개혁은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준비를 위한 물질적 조건의 조성, 즉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물질적 조건의 조성으로는 되였지만 그것이 실지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준비, 즉 과도기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상부 구조인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창설로부터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개시와 우리 혁명 전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혁명의 전체적 성격은 그 정치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 또는 남반부에서의 민주 개혁 실시의 과업들은 혁명의 사회 경제적 과업의 측면을 말한다.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 과업도 남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 혁명 과업 수행과 마찬가지로 조선 혁명의 일부분이며 그의 부분적 과업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제2 계단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 남반부에서는 아직 제1 계단의 민주주의 혁명 과업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 혁명의 정치적 과업은 1947년의 북조선 인민 위원회 창설로서 나라의 절반 땅에서 인민 정권이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제2 계단, 즉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적으로는 아직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이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혁명의 기본 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였다. 미제와 그의 주구인 리 승만 반동 세력을 구축하는 정치적 과업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시키며 남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는 결정적 지장을 주지만 이미 혁명이 승리된 북반부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건설의 발전에 대하여서는 결정적 지장으로는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민주 기지를 강화한다는 것과 민주 기지에서 혁명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과는 서로 배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 기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또는 북반부의 사회 경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으며 계속 주고 있다. 3년간의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은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건설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민의 창조물을 파괴하였으며 애국적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련에서도 조선 인민은 승리하였으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총궐기하고 있다.

1947년 이후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가장 큰 정치적 투쟁의 과업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괴뢰 정부 수립 반대 투쟁과 조선 인민의 중앙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에서 조선 인민은 민주 기지에 의거하면서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혁혁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들의 련석 회의에는 56개의 민주주의적 및 애국적 제 정당, 사회 단체에서 545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는 바 그 중에는 남조선의 중간층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부 우익 세력까지도 있었다. 이것은 벌써 북반부 인민들 뿐만 아니라 남반부의 애국적 인민들까지 실질적으로는 조선 인민의 유일한 령도자인 조선 로동당과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지도 밑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주는 것이였다. 이것은 벌써 미 제국주의자들의 탄압과 간섭이 없었다면 조선 인민은 완전히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 전국적으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로 각성되였으며 단결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였다. 여기에서 조선 인민은 미제에 의한 조국의 인공적 분렬을 반대하며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혁명적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전체 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조선의 최고 립법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를 선거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며 전 조선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하게 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이 조선 혁명에서 가지는 의의는 첫째로 남북 조선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였으며 미제 강점하의 남반부에서도 77, 52%의 유권자들이 이 선거에 참가하였다는 것은 조선 혁명이 그 때까지 주로 혁명의 기지를 축성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이때에 와서는 벌써 조선 인민이 민주 기지에 튼튼히 의거하여 미제와 그의 주구들과 독립적으로 투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을 혁명 투쟁 완수에로 조직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혁명의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로 되였다는 것이다. 세째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쏘련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 친선적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대가정의 당당한 일원으로 국제 무대에 출현하게 되였다.

중앙 정부의 수립은 혁명에서 정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반부가 미 제국주의의 강점에 의하여 중앙 정부의 시책이 기본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괴뢰 도당들과 조선 인민간의 모순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혁명의 성격은 여전히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성격을 띠게 된다.

공화국의 물질적 기초는 북반부의 민주 기지이며 공화국의 창건은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의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공화국의 기본 임무는 전국적으로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다. 전국적으로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의 수행, 즉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들을 소탕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은 주로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공화국의 주되는 기능도 현실적으로는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의 기본적 투쟁 과업은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을 소탕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북반부에 한하여서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을 수

행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정권이다.

❋ ❋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전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일익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남반부는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고 있다. 조선 혁명에는 조선 인민과 외래 제국주의와의 외'적 모순, 조선 인민과 국내 반동 세력과의 내'적 모순 이외에 또한 국제 반동세력과 평화, 민주주의, 사회주의 세력간의 모순도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모순은 서로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호상 련관되며 호상 제약되여 작용한다. 이 모든 관계를 충분히 분석함이 없이는 조선 혁명의 복잡한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많은 리론적 문제들이 토론되였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토론이 주로 일반적 성격을 띠였으며 어떤 문제를 깊이 과학적 재료에 근거하여 토론함이 부족하였다. 가령 1946년 2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계급적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해방후 인민 정권을 위한 투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였으며 또 1947년 정권이 더 발전된 정권이라면 1946년 2월부터 1년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정권이 강화되였는가를 과학적 재료에 근거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

둘째로 금번 토론회에서 많은 동무들이 정권의 계급적 성격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나 조선 혁명이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 모순을 각 방면으로 분석하는 준비된 토론이 부족하였다. 정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의 계급적 성격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규정으로서 우리가 조선 현실을 과학적으로 연구함에 만족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우리 당 문헌들에는 사실이 사실대로 명확하게 규정되여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명칭을 부여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구체적 방책과 관련되여 그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성으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국제 국내의 제 모순의 진지한 연구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여야 할 것이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 과도기에 있어서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도시와 농촌에서 소상품 경리 형태와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특수성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금번 토론회에서 발로된 결함의 하나는 당 문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 문헌의 제반 규정들은 우리들의 모든 연구의 출발점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유일한 과학적 태도는 오직 우리 당의 문헌에서 주어진 모든 규정들을 력사적 사실과 심오한 과학적 리론에 기초하여 리해하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현실을 더욱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연구함에 있다. 당 문헌에서 주어진 규정들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일반론으로부터 출발하든가 외국의 경험을 류추하려고 하는 태도는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과학원 력사 연구소 철학 연구실)

《근로자》 제 1 호 (루계 제13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1월 20일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년 1월 25일

ㄱ——40 353 값 45원